

**TEACHING ACROSS  
BORDERS:**  
A GUIDE TO FOLLOW-UP ACTIVITIES  
FOR APTE ALUMNI TEACHERS

#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후속활동 길라잡이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국제교사교류실 엮음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후속활동  
길라잡이**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국제교사교류실 역임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후속활동 길라잡이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후속활동 길라잡이

**기획·편집**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국제교사교류실  
**집필**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국제교사교류실  
Jyoti RAHAMAN, Angie TOH, Reka TOZSA | 아시아유림재단(ASEF) 교육과  
안봉선 | 송정동초등학교 교사 최홍길 | 선정고등학교 교사  
정지영 | 현동초등학교 교사 김다원 | 광주교육대학교 부교수  
김지연 | 서울대학교 박사후연구원 김명석 | 전 상관중학교 교사  
MOHD AL KHALIFA bin Mohd Affnan | Kolej Vokasional Keningau 교사

© APCEIU 2022  
BE-ITE-2022-028  
ISBN: 979-11-87819-80-6

**발행처**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TEL. 02-774-3956 | FAX. 02-774-3957  
**홈페이지** www.unescoapceiu.org  
**인쇄처** 서울셀렉션 주식회사  
**발행일** 2022년 12월

- 이 책의 저작권은 아태교육원에 귀속됩니다.
- 이 책은 대한민국 교육부 주최 아태교육원 주관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이 책에 포함된 저자의 아이디어와 견해는 아태교육원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머리말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sia-Pacific Teacher Exchange for Global Education (APTE))는 지금까지 꾸준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몽골, 필리핀 단 두 개 국가와 첫 발을 떴던 교육교류사업은 2022년 현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까지 더하여 총 일곱 개 국가로 확대되었으며, 코로나-19라는 난관조차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올해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년 동안의 사업 과정에서 약 2천여 명이 넘는 국내외 교사들이 참여하여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하였습니다. 이는 유네스코의 핵심 교육의제 중 하나인 세계시민교육의 가치 확산을 목표로 삼은 선생님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이 뒷받침되어 가능한 성과입니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과 동행한 모든 교사 및 학생분들께 깊은 감사를 포함합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인연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사업을 통해 수많은 인연의 끈이 전 세계 곳곳으로 이어졌고, 참가교사 및 학생들은 이 인연의 끈을 유지하고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교육교류사업 참가 후에도 후속 활동을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후속활동 길라잡이>를 기획·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더 넓은 세계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모든 교사들을 응원하며, 이 책자의 발간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필진 및 연구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본 길라잡이가 국제교육교류 후속활동의 확산 및 지속성 제고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국제교사교류실

005	<b>머리말</b>
010	<b>I. 후속활동의 이해</b> 김다원   광주교육대학교 부교수
	<b>II. 후속활동 유형 및 우수 사례</b>
024	<b>1. 후속활동 유형 소개</b>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국제교사교류실
	<b>2. 후속활동 우수 사례</b>
028	[온라인 실시간 화상수업 사례] • 온라인 국제교육교류 시작하기 정지영   현동초등학교 교사
042	[방문 및 초청 프로그램 운영 사례] • 국제교류프로그램에 대한 고찰 MOHD AL KHALIFA bin Mohd Affnan   Kolej Vokasional Keningau 교사
066	[동아리 중심 학교 간 교류 사례] • 발명 동아리 활동과 함께 한 후속교류사업 김명석   (전) 상관중학교 교사
072	[학교 간 협약 체결 사례] • 소중한 인연들 최홍길   선정고등학교 교사
082	[각종 지원사업 참가 사례] • 韓마음, 多가치 교실의 경계를 넘다 안봉선   송정동초등학교 교사
	<b>III. 후속활동 운영 방법</b>
100	<b>1. 교육교류 자체 운영을 위한 9단계 준비 과정</b> Jyoti RAHAMAN, Angie TOH, Reka TOZSA   아시아유럽재단(ASEF) 교육과
124	<b>2. 국제교류 자체 운영의 절차</b> 김지연   서울대학교 박사후연구원
	<b>IV. 붙임</b>
146	<b>1.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소개</b>
147	<b>2.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소개</b>
148	<b>3. 후속교류 시 참고 프로그램</b>

## I. 후속활동의 이해



광주교대 김다원

# I. 후속활동의 이해

## 1 국제교육교류의 등장 배경과 성격

지구촌에서 세계화, 정보화 사회현상은 더욱더 깊고 넓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교육의 영역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세계로 확장해 주기를 요청한다. 특히,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사회의 변화는 국가 시민성을 포함하여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발전의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최근 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 문제는 해결에 있어서 지구촌 모두의 관심과 참여, 협력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 책무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세계화·정보화 현상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외의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국제교육교류는 이미 1945년 UN과 UNESCO 주도의 타국·타문화 이해, 세계공동체에서 함께 살기, 국제이해와 협력을 위한 교육 등을 포함하는 국제이해교

육과 함께 시작되었고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다만 세계화·정보화에 따라 국제교육교류의 내용과 방법, 범위, 빈도 등의 면에서 더 넓고 깊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기본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국제화교육’은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 태도를 갖춘 인재 양성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외 동포교육을 포함하여 타문화 이해 교육,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한다(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2).

학술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은 2015년 UNESCO에서 제시한 정의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를 길러줌으로써 변혁적인 교육을 달성하는데 중점을 둔다(UNESCO, 2015).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핵심 개념 영역으로 인지적 영역(지역사회·국가·지역·세계의 이슈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가 및 사람들 간의 상호연계성·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 이해, 비판적 사고를 습득한다), 사회·정서적 영역(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대 및 공감,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여 인류애를 함양한다), 행동적 영역(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국가·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을 제시하였으며 인권 교육, 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의 교육 목표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교육교류는 국가 간 이해의 증진과 우호적 관계, 그리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행하는 국가 간에 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특히, 국가 간의 교육적 효과를 목적으로 교육 분야에서 행하는 국제교육교류라고 한다.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양국 학생들 간, 양국 교사들 간 교류를 토대로 양국 간 상호 이해의 증진과 협력적 관계 형성, 인권, 평화, 지속가능발전, 문화 간 이해 등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활동이다.

## 2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2012년 필리핀과 몽골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과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교육부-APCEIU, 2021; 김주영 외, 2020). 한국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교사의 글로벌 교육 역량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교육을 구현해 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국제교육교류 사업은 양국 교사가 각 교류국의 현지 학교에 3~5개월간 배치되어 교과 내용 수업, 양국 문화 이해 수업, 다문화·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수업, 그리고 방과후 특별 수업 및 지역사회 주민 대상 수업 등을 실시한다.

양국 교사 간 교과 수업에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공동수업안 개발, 공동 수업의 실시 과정에서 교류국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의 글로벌

별 수업 역량을 강화하면서 혁신적인 교수법을 개발한다. 양국 문화 이해 수업에서는 교류국 또는 세계의 여러 문화를 대상으로 하여 전통문화, 현대 문화, 청소년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문화에 대한 주제 학습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서 문화 문해력과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 수업과 연계하여 양국의 언어 수업을 통해서 양국 언어 체험과 소통 능력 함양을 지원한다.

다문화·세계시민교육에서는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내용과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을 활용하여 글로벌 사회 현상을 파악하고 전세계적 공동의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업력을 발휘하여 문제 해결의 대안을 탐색한다. 이외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컴퓨터, 로봇, 발명, 전통악기 등 참가 교사의 재량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뤄진다. 그리고 참가 교사는 교류국 배치학교의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 주민 대상 교육 및 지역사회 주민들과 여러 가지 적절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소통,

상호 이해, 주민 교육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즉, 이러한 현지 활동과 교류는 참가하고 있는 파견·초청 교사는 물론이고 배치된 학교의 동료 교사와 학생들의 글로벌 교육역량을 향상시키고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 교육 활동 경험의 전반적인 공유와 교수학습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3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후속활동

#### 1) 후속활동의 의미와 필요성

국제교육교류의 후속활동은 본 활동을 이어서 실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후속활동은 본 교육교류활동을 토대로 활동 내용을 연속화, 다양화하거나 본 활동을 심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양측 학교 간 본 활동이 종료된 이후 지속, 심화하여 진행하기도 하고, 학교 내에서 학교 차원의 또는 교사의 능동적 주도성에 의해 교육교류활동 경험을 지속적으로 심화, 확장해 가는 일련의 활동을

모두 후속활동이라고 한다.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육교류 사업에 참여한 교사가 사업 종료 이후에 담당 교실에서 관련 수업 및 활동을 전개하고 지속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하는 것,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수업의 제약을 극복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육교류를 실행하는 것, 양국 교사들 간 지속적으로 교육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수업을 실행하는 것, 본 교육교류 활동과 같은 유형으로 또는 다른 유형으로 교육교류를 지속하는 것 등이 모두 후속활동에 포함된다. 이러한 후속활동은 국제교육교류의 양적 확산, 질적 제고, 그리고 교사의 글로벌 교육 역량 함양 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과거와는 달리 세계화, 정보화의 진전과 심화는 상호 이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이해, 세계 이슈 파악과 문제해결,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지구적 차원에서의 공동 노력, 세계시민의식 함양 등 교육을 통해서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고 내용의 복잡성도 커졌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그리고 꾸준한

소통을 포함하는 교육을 요청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것을 전수하거나 경험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후속활동은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연계, 동아리 활동 연계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실 안과 밖에서 개념 지식을 깊고 풍부하게 습득하게 하고 탐구 방법과 사고력을 키워서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세계시민의식을 스스로 키워가고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변혁적 교육을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습의 양보다 학습의 질적 제고를 추구한다.

또한, 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지식의 획득과 사고력 그리고 가치의 내면화가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었을 때 효과적이다. 국제교육교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는 상호 문화 이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세계 이슈의 공유, 세계시민의식 함양 등으로 이러한 지식과 가치의 내면화와 같은 목표에 도달을 위해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장기적,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후속활동의 의의와 실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후속활동은 교육적인 면에서 다음의 효과들을 갖고 있다. **첫째**, 학습한 내용에 대한 이해 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세부 내용들을 연관 지어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개념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양국 학생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연계하고 연계한 내용을 공유하여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지식, 이해, 가치와 태도, 실천력을 키울 수 있다. 이는 세계시민교육에서 지향하는 변혁적인 학습과도 관련되어 있다.

**둘째**, 흥미도와 자신감 획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학습 내용을 토대로 학습자의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하고 적용 후 적용 결과를 공유 및 의견 교환 등 학습 내용을 토대로 관련 연계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학습자들의 학습에의 흥미도와 학습 결과에 대한 자신감 제고에 긍정적이

다는 평가이다.

**셋째**,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 Dewey<sup>(이홍우 역, 2007)</sup>는 교육을 생명의 필연적 요구이자 사회적 갱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함께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교육이라고 하였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꼭 신체적으로 서로 가까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교육교류는 지구촌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학습자들이 서로를 알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세계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면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호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이다. 학습은 전수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학습자 간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동의 사회에 대한 인식과 발전의 방향이 탐색 될 수 있다. 그래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학습의 내용을 확장하는 방향을 연속적 교육활동을 전개하거나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양국 학생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장

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넷째**, 후속활동은 학생들의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UNESCO에서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의 원리로서 ‘알기 위한 교육’, ‘존재하기 위한 교육’, ‘행동하기 위한 교육’, ‘더불어 살기 위한 교육’,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위한 학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세계시민성 함양에 중점을 둔 교육이다(UNESCO, 199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김다원 외, 2018). 이러한 학습에서는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창조적으로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개인적 책무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의 함양이 필요하다. 세계시민성 함양 교육에서는 궁극적으로 타문화에 대한 인식의 개발, 타인 그리고 환경과 조화로운 발전에 필요한 가치와 태도의 함양, 타인과 상호존적 관계의 형성과 글로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는 지식 이외에 생각과 가치의 공유, 실제적 실천과 실천 결과에 대한 공유와 성찰 등의 일련의 활동에서 연계적 수행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국제교육교류 활동에서 후속

활동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외에 국제교육교류의 후속활동은 교사 자신의 교육 역량 함양 면에서 유의성을 갖는다. 김주영 외(2020)의 연구에 의하면, 아태 지역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 국제교육교류 활동에 참여한 교사들은 “나의 후속활동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외국의 교사들과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자 하였다.”, “일회성이 아닌, 나 이외의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세계시민교육은 필수 교과목이며, 핵심역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와 같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드러내는 반응을 보여 주었으며, 전반적으로 지식과 이해, 가치와 태도, 기능, 행동과 실천, 세계시민 정체성의 발현이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국제교육교류에서 교사가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후속활동은 국제교육교류에서 얻은 경험을 더 강화하는 데 영향을 주어 교사의 세계시민의식을 더 공고히 하고 세계시민교육의 실천력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한다. Dewey<sup>(이홍우 역, 2007)</sup>

는 ‘학습은 경험의 지속적 성장’이라고 하였다. 후속활동은 교사와 학습자 모두의 교육교류 경험을 지속적으로 심화, 확장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교육교류에서 ‘지역사회 환경 문제 해결과 실천’ 학습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본 활동에서는 문제해결 방안과 실천 방안을 만드는 활동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지만 후속활동을 통해서 실제 학생들이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공유, 성찰하여 학습 활동을 마무리 지어 주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교육적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교육적 실천의 경험과 효과를 얻

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본 활동을 토대로 관련 주제를 연계하여 차후 학습을 전개해 볼 수 있다. 이는 양국의 문화 소개, 글로벌 문제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목표(SDGs)에 대한 내용 학습 등에도 해당한다.

본 교육교류의 경험을 토대로 후속활동을 계획하고 전개함으로써 교사의 교육적 경험의 지속적 성장을 이루면서 교육교류의 전문성과 세계시민교육의 실천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는 세계시민교육의 주체자이자 선도적 교사로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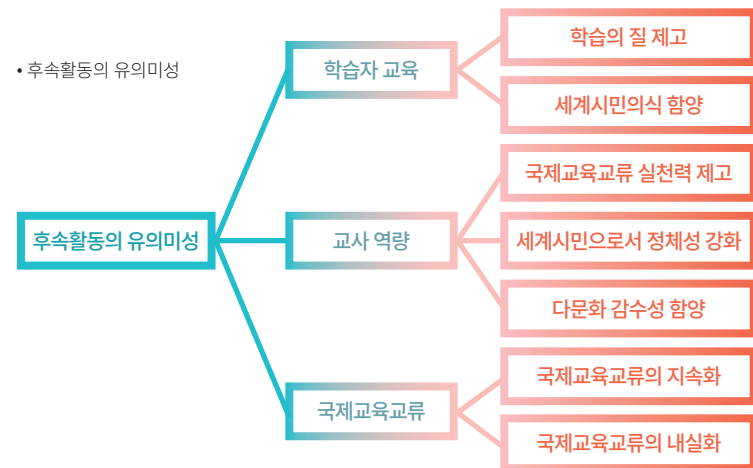
것이다. 국제교육교류 활동은 교사의 역량에 의해 성과의 정도가 좌우된다. 단기적이고 이벤트적인 국제교육교류 활동을 넘어서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활동으로서 후속활동은 학생들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질 제고뿐 아니라 교사의 국제교육교류 경험의 성장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효과적 후속활동 방향**

후속활동은 국제교육교류의 마지막 단계에서 교육교류에 대한 평가 단계를 활용하여 그 효과를 토대로 교육교류의 연속 및 심화를 결정한다. 양측 기관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연속 및 심화를 결정했기 때문에 1차 국제교육교류에서 더욱더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런데 양국 학교 간 교육교류는 상호 간의 노력을 토대로 공동의 교육 목표와 가치를 향해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 적정의 결실을 보고 지속성을 유지해 갈 수 있다. 특히, 교육교류의 목적을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상호 이해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 및 세계 이슈의 공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추구하는 데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향에서 교육교류의 지속성과 효과를 위해서는 후속활동을 어떻게 전개하느냐가 중요하다. 후속활동은 본래의 국제교육교류 활동의 연장선에서 진행되며, 국제교육교류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파트너십의 발전 전략을 점검, 수립하고 연속, 심화의 방안을 고안한다. 기본적으로 초기의 교류 합의서를 수정하여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파트너십의 지속성과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즉 소통의 원활한 유지, 교육교류 방법의 효과적 진행을 위한 방안 구축, 교육 관련 정보의 공유, 교육과정에 기반한 장기적 계획, 지역사회 환경과 연계 구축, 교육교류 방법의 다양화 등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후속활동은 학습자의 수준, 교사의 의지, 학교 상황, 지역사회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속활동의 장애 요인으로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전체 구성원의 동의와 협력, 참여 의지, 참여에 따른 기대 효과, 자아실현, 교육적 성과 등이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상대 학교와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교류 활동에 필요한 지원 부분 등이 있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의 극복 여부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내부적 요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했을 때 후속활동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교육교류 활동의 정체성과 지속적인 활동 방향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후속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협력과 참여 의지 등의 내부적 요인과 상대 학교와 파트너십 강화,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의 구축에서는 무엇보다도 교류 활동의 후속활동이 갖는 유의미성, 효과성, 가능성 등이 중요한 변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후속활동의 방

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더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교류는 소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교류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 양측 학교 간 소통뿐 아니라 학교 안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 간 적극적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학교 상황에 따라서 상대 학교와 소통을 위해 공동의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과 양측 학교의 교육 정보 및 학습 성과물 공유, 정기적인 비대면 회의 진행, 정기적인 온라인 수업 진행 등의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이외 학교, 지역사회, 관계 기관 간의 소통을 위해서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교육교류의 내실화를 추구한다. 후속활동은 국제교육교류 활동을 심화하는 과정으로 본 교류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기대하면서 실행하게 된다. 그래서 후속활동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본 국제교육교류 활동의 내용을 심화하고 체계화

하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진행할 경우 안정적인 시간 확보가 가능하고,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지식, 이해, 적용 중심의 인지적 영역과 가치와 태도의 정의적 영역, 실천 중심의 행동적 영역을 포함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진행할 경우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교류는 언제든지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의 축적은 이후 안정적, 지속적으로 후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연계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활용한다. 먼저 지역사회와 연계 관련하여, 지역사회는 학습자의 삶의 장소임과 동시에 무한한 학습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국제교육교류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학문의 내용 지식에 대한 학습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시민성 함양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본 국제교육교류 활동에서 학습한 내용을

양국 학생들의 지역사회의 자원 및 환경과 연계하여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의 후속활동은 학습 내용의 이해와 실천에 효과성을 지닌다. 학습자에게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동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학습 기회가 되기도 한다. 상호 이해와 협력적 문제 해결은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해 더없이 좋은 학습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지역 사회의 자원과 환경, 재정적 지원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 교육 활동은 유의미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유관 기관과의 협력은 학교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여 국제교육교류의 후속활동을 전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유관 기관들과 클러스터 협력을 추진하여 관련 정보와 방법을 공유하고 도전과제에 대해 상호 지원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과 역량 강화, 업무의 효율적 분담화 등 여러 면에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유관 기관과의 협력은 같은 지역사회에 속하는 기관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기관들도 포함하며 인적 지원, 물적 지원 등을

• 후속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팁

항목	내용
구체적인 후속교류 환경 조성	국제교육교류 활동의 방향성을 점검하여 구체적인 후속활동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교육교류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관계자의 참여 유도	국제교육교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토대로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의 방안을 협의하여 모든 교류 활동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유도
후속활동의 유의미성, 효과성, 가능성 공유	후속활동의 유의미성, 효과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후속활동 관계자 간 내용의 공유 및 파트너십 강화
기관 내 그리고 기관 간 유대관계 구축	국제교육교류 활동에서 파악한 내부역량 및 외부기관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소통의 장 마련	양측 기관 간 또는 학교 내에서 정기적, 지속적, 적극적 소통을 위한 환경 조성
교육과정 기반 교육의 내실화 추구	교육과정에 기반한 활동으로 본 활동의 내용을 연계 심화 및 적정 시간 확보 및 체계적 교육으로 내실화 추구
교과 및 학교 차원의 교육과정과 연계	정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 교류 활동의 내용을 심화, 확장할 수 있는 방안 구안
온라인 교류 환경 조성, 활용	ICT 기반의 원격 수업 교류 등 국제교류를 학교생활의 일부로 통합시킬 수 있는 편리한 방법들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접근성 확보
상호주의에 기반한 파트너십 구축	상대측 문화에 대한 사전학습을 통해 문화 간 이해 및 존중에 기반을 둔 상호협력적 파트너십 강화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중심의 교육	단순한 문화체험 및 어학학습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공동의 관심사, 지구적 이슈, 문화 다양성, 지속가능한 세계, 세계화 등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에 대한 공동의 논의와 문제점 찾기 및 해결 방안의 공동 모색 등 공동의 활동 영역을 수직적·수평적으로 심화·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통해 교류의 목적인 상호 이해와 소통의 폭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세계시민의식 함양의 방향으로 진행

통해 교육교류의 질적 제고와 양적 팽창을 도모할 수 있다.

국제교육교류 활동은 특별한 지식, 정보의 전달과 공유에도 의미가 있지만 참여한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고 학습자들 간 상호작용과 성찰, 자신의 내적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역할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사업은 3~5개월간 양국 교사 교류를 포함한 교육교류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양국 교사의 경험과 역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주변 교사들의 글로벌 교육 역량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양국 학생들에게도 상호 이해와 협업, 세계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적절한 방법의 후속활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APCEIU, 2021,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021년도 사업 최종보고서.
- 김다원, 이경한, 김현덕, 강순원, 2018, 21세기 국제 이해 교육을 위한 홀리스틱 페다고지 모형개발. 국제이해교육연구, 13(1), 1-40.
- 김주영, 최민영, 송여진, 이지민, 배현주, 2020, 세계시민의식 관점에서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육교류 사업」의 의미고찰: 근거이론을 활용한 국내 기참가 파견교사들의 후속활동 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이해교육연구, 15(3), 91-139.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2, 시도교육청 국제 교육 협력 매뉴얼 개발, 교육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지속가능발전교육 길잡이.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학습목표.
- Dewey, J.(이홍우 역), 2007,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과학사.
- UNESCO, 1996,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Report to UNESCO of 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UNESCO(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번역, 1996,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종합보고서, 오름).
- UNESCO, 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Objectives*(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기획번역), 2015, 세계시민교육: 학습주제 및 학습목표).

## II. 후속활동 유형 및 우수 사례

### 1. 후속활동 유형 소개

### 2. 후속활동 우수 사례

- [온라인 실시간 화상수업 사례]
- [방문 및 초청 프로그램 운영 사례]
- [동아리 중심 학교 간 교류 사례]
- [학교 간 협약 체결 사례]
- [각종 지원사업 참가 사례]



국제교사교류실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1. 후속활동 유형 소개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 Asia-Pacific Teacher Exchange for Global Education)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대면 파견 및 초청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2021년부터는 온라인 교육교류 방식이 도입된 바 있다. 즉 본 사업에 참가한 교사들의 경험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파견(초청) 교사의 경우 출신국을 떠나 교류국의 일선 학교에 배치되어 현지 교사들과 교류하고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게 된다. 둘째, 배치학교 협력 교사의 경우 본인이 기존에 소속된 학교에 교류국의 교사가 배치되었을 때 이 교류국 교사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셋째, 온라인 교류에 참가한 교사의 경우, 본인 소속 학교의 동료 교사들 3~5명과 함께 연구회를 구성하여 교류국 학교에서 마찬가지로 구성된 연구회 교사들과 더불어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 수업 교류를 진행한다.

김주영 외(2020)에 따르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참가 교사들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

는 구체적으로 교사(본인)의 개인적/직업적 역량 증진, 교사(본인)의 삶의 가치 및 태도 함양, 파견 경험을 통한 지역 사회의 학습적 파급 효과, 파견 경험을 통한 지역 사회의 정서적 파급 효과, 파견 대상국과의 교류 관계 발전,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대한 반응 및 책임 의식 작용 등으로 발현되었다.

또한 참여 교사들의 참여경험에 대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2021)의 연구에 따르면, 교류국과의 교류 경험은 비교를 통한 성찰을 가능하게 했으며, 교사들은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얻으면서 교사로서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위의 두 연구 결과는 본 사업이 참가교사들에게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밝혔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실질적인 후속활동을 위해서는 참가교사 개인의 차원에서 스스로 본 사업 참여 경험을 통해 얻은 바가 무엇인지 성찰해 볼 것이 요구된다. 이에 기반하여 교사 자신의 성장 경험을 사업 종료 이후에도 스스로 활용하고 발

전시켜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후속활동은 본 사업 참가교사가 스스로의 성장을 성찰하고 이에 따라 이어가는 내면의 자연스러운 발현에 가까울 것이다. 개개인의 경험과 이에 따른 배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업 경험을 후속활동으로 이어가는 내면적 동기에 대해서는 뒤에 이어지는 실제 우수 사례로 구체적인 설명을 대신하고자 한다.

다만 후속활동의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들을 일반적인 차원에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1 방식에 따른 분류: 초청/방문/온라인

상술한 다문화가정대상국가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 후속활동 역시 방문, 초청, 온라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참가교사들은 본인이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 교류에서 경험한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다른 방법을 참고하여 시도해 볼 수 있다. APTE 사업 참가를

통해 인연을 맺은 교사를 통해 후속 교류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나, 아태교육원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NETS)를 통해 교류를 희망하는 교사 혹은 학교를 새로 탐색할 수도 있다. NETS에 대해서는 4장 ‘붙임’에서 상술한다.

## 2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분류: 교과수업/교과 외 활동

교사로서 APTE 사업의 후속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결국 그 열매를 학교 현장에서 공유하고 확산할 때 의의가 있을 것이다. 후속활동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서, 즉 사업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교과목에 직접적으로 통합하는 방법과, 교과 외 활동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교과목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APTE 사업을 통해 얻은 바를 개념화하고 이를 교육과정의 각 층위에 적절하게 녹여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APTE 사업 시행 기관인 아태교육원에서는, 교육원이 중점적으로 증진하는 세계시민교육과 APTE 사업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것으

로 보고, APTE 참가 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세계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통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4장 ‘붙임’에서 소개한다.

한편 교과 외 창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경험을 넓힐 수 있도록 활동을 구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 주체에 따른 분류: 교사/학교

후속활동을 주도하는 주체에 따라서 교사와 학교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와 교사가 완전히 별개는 아니지만, 교사 개인이 해외 학교를 방문하거나 개인적으로 다른 교사와 교류하는 등의 활동과 학교 전체가 다른 학교와 학교 대 학교로 교류하는 활동을 나누어 보면 후속활동의 방향을 생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후속활동이 교사 개인의 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개별화된 경험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후속활동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학교 구성원 전체를 설득하는 과정을 줄일 수 있다.

전학교적으로 접근할 경우, 후속활동의 파급력이 학교 구성원 전체에게 미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 궁극적으로는, APTE 참가 경험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변화를 학교 전체를 어떠한 배움의 장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상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 국제교사교류실에서 선별한 몇 가지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Khalifa Affnan, 김명석, 안봉선, 정지영, 최홍길 교사 5명의 사례를 통해서 위에 소개한 방법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후속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지영  
현동초등학교

## 2. 후속활동 우수 사례

온라인 실시간 화상수업 사례

### 온라인 국제교육교류 시작하기

#### 왜 온라인 국제교육교류인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 이후로 우리의 일상은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간의 대면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교육 활동을 비롯하여 기존의 국제교육교류 활동도 위축되었지요. 반면, 온라인 교육 활동과 화상 수업이 대안으로 등장하여 보편화되면서, 국제교육교류 활동의 무대도 온라인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국제교육교류 활동은 교류 국가 간 상호 방문을 통해 화합하고 우정을 도모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양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국가 간 교류의 필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지요. 그러나 교류 준비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요구했고, 국제 정세의 변화와 돌발 변수 등에 의해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국제교육교류는 기존의 대면 교류 방식에 비해 준비 과정과 절차가 비교적 쉽고 간단하며,

시·공간과 비용적 제약을 덜 받습니다. 온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교류할 수 있고, 교류의 지속성과 연결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돌발 상황에도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요.

#### 온라인 국제교육교류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활동 경험

저는 2021년 경상남도교육청 온라인 국제교육교류 활성화 사업에 참가하여 말레이시아, 일본의 초등학교와 교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 APTE 참가 경험을 통해 교육교류의 효과와 중요성을 느꼈고, 이를 바탕으로 교류 활동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선뜻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온라인 국제교육교류 활동 대상 국가를 늘려 일본 2개 학교,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각 1개 학교와 교류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2021년에는 담임교사로서 학급 아이들과 교류 활동을 실시했고, 지금은 영어

교과 교사로서 학생 동아리를 조직하여 교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교과와 내용과 교류 활동 내용을 융합하여 창의적인 통합 활동을 시도할 수 있고, 교과 시간 운영의 자율성을 발휘하여 교류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국제교육교류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감이 충만하고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선발하여 운영하므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류 활동을 기획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온라인 국제교육교류의 시작 - 교류 상대 국가 및 학교 매칭

온라인 국제교육교류의 접근 방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APEC 국제교육협력단(ALCoB), 지역 교육청 국제교육교류센터 등 유관 기관에서 진행되는 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류 활동 및 예산 사용 계획 등을 사전에 작성하고 정해진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계획 수립, 중간 활동 보고, 활동 결과 제출 등의 행정 업무가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그리고 교사가 희망하는 국가나 학교와 매칭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류 대상 국가 및 학교와 연결되는 과정이 비교적 수월하고, 교

류 의지와 여건이 잘 갖추어진 학교와 매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산을 지원받아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류 활동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요. 전문가의 자문이나 교사 연수, 동일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교사와의 네트워킹 형성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사 스스로 교류 대상 국가 및 학교를 선정·매칭하고 교류를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APTE 참가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된 현지 학교의 선생님과 후속 교류 활동을 이어가거나, 그의 소개와 추천을 통해 현지의 다른 교사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해외 파견이나 국제교육교류 경험이 있는 국내의 동료 교사를 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의 국제교육교류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국제교육교류 경험과 경력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교사를 발굴하여 국제교육교류 인력풀을 구성하기도 하므로, 이를 통해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교육협력교사회(MICE) 등 국제교육교류에 관심 있는 교사들의 모임을 통해서도 교류 대상국을 찾을 수 있지요.

원하는 조건에 맞는 교류 대상 학교를 찾아 직접 연결을 시도하는 일이 쉽진 않지만, 절차 진행을 위한 형식적 업무가 적고 자유로운 주제와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으며, 업무 추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류 대상 국가나 학교를 물색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저는 학교급과 학년, 인원수, 시차를 중요한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연령이 비슷하면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쉽고, 양국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 활동을 구상하기에도 수월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영어 의사소통 능력만 우수하다면 중·고등학생과도 충분히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은 너무 차이 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차가 적을수록 양국 담당 교사 간 협의와 피드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실시간 교류 일정을 정하기도 좋습니다. 시차는 최대 4~5시간 이내면 원활하게 교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온라인 국제교육교류 활동 준비 - 담당 교사 간 협의 및 실시간 교류 준비

교류 대상 국가와 학교가 결정되었으면, 담당 교사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메일을 통해 소통할 수도 있지만, 국가 간에 통용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활용하면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LINE(라인), Whatsapp(왓츠앱), Telegram(텔레그램) 등을 활용하면 사진이나 문서 등의 자료도 손쉽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소통 방식을 결정한 후에는 먼저 양국의 학사 일정 및 일과 운영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 방식(실시간/비실시간, 화상 교류 여부, 사용 플랫폼 등)과 주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화상 교류의 경우 대략적인 횟수와 시기를 정합니다. 이후에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하게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류 활동을 시작하기 전 상대국 교사와 실시간 화상 회의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서로 필요한 세부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교환하고, 양국 학생의 관심사와 성향 등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담당 교사 간 친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교류 활동에 앞서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고 파악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과 운영

- 일과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전반적인 일과 운영 스케줄을 사전에 파악해야 구체적인 실시간 화상 교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연결, 장비 등의 제반 여건과 예산 확보 여부

- 온라인 국제교육교류를 희망하는 학교의 경우 대체로 인터넷 연결 상태가 양호하고 기자재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나,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용 제한 여부, 화면/음향 장비 상태 등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

여부 및 예산 규모를 확인하면 그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구상할 수 있고, 편지나 선물 교환까지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 교사와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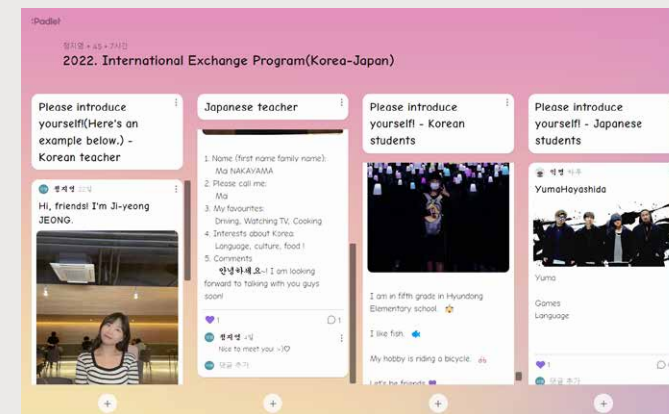
- 교류 활동이 대개 영어로 이루어지고, 학교급, 학년, 국가나 지역별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국 교사와 학생 모두 영어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번역기 사용과 통역 활용에 대해 상호 의견 교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 교사와 학생의 관심사 및 교류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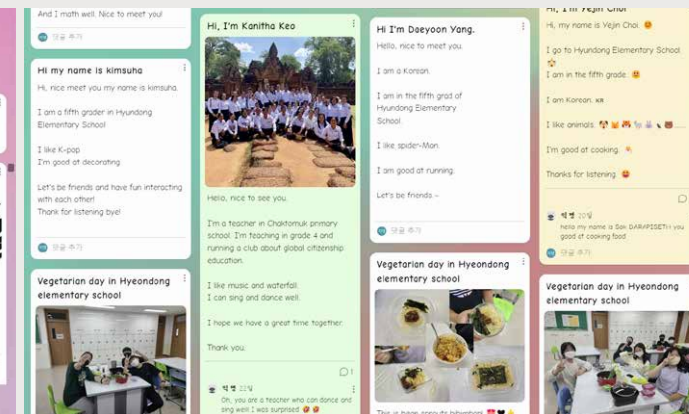
- 상대국 교사와 학생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양국 교사와 학생의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류 활동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 과정에서 양국이 원하는 교류의 방향과 교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 성공적인 실시간 화상 교류를 위해 유의할 점

기본적으로 실시간 화상 교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접속 및 연결이 원활한 교실 여건의 조성, 웹캠 등의 장비 준비가 필수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상대국의 인터넷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 상대국 교사와 학생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학생의 목소리가 작아서 상대측에서 잘 안 들린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요.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스피커의 성능과 음량을 사전에 점검하고, 발표자용 마이크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시간 화상 교류 활동 시, 대체로 첫 만남에는 자기소개와 양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학교나 지역을 소개하기도 하지요. 이를 위해 양국 학생 간에 발표 자료를 미리 공유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패들렛



2022. 한-일 교류 자료 공유(패들렛)



2022. 한-캄 교류 자료 공유(패들렛)



2021. 한-일 교류 동시통역



2021. 한-일 교류 Q&A

(Padlet)이나 구글 잼보드(Jamboard)에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업로드하여 댓글 등을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화상 교류는 대개 영어로 진행되며, 쉽고 간단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별로 영어의 발음과 억양, 발화 수준 등이 달라서 친숙한 영어 단어나 문장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나 음향 장비의 상태마저 좋지 않으면 길고 복잡한 문장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렵지요. 비영어권 국가의 학교와 실시간 교류를 진행할 경우, 통역이 가능한 분을 미리 섭외하여 활용하면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서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흥미와 친밀감을 느낍니다. 이때 담당 교사가 영어로 통역하거나 번역기를 활용해도 좋지만, 현장에서 양국 언어로 신속·정확하게 통역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있으면 훨씬 생동감 있는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언어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크고 선명한 사진, 실물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번역기를 활용하여 영어와 상대국 언어로 자료에 대한 부연 설명을 표기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 음식과 놀이, 한복을 소개할 때는 역시 실물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화상 교류 진행 시 다양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양국 학생의 발표 자료와 사진, 동영상 등을 미리 교환하여 점검하고 저장해두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실시간 화상 교류를 위한 예행 연습을 실시하면 더 완성도 있는 교류 활동이 될 것입니다.



2021. 한-일 교류 한국 음식(떡볶이) 소개 포스터

2022. 한-일 교류 한국 전통문화(한옥) 소개 포스터



2021. 한-일 교류 한국 전통문화(한복) 소개



2021. 한-일 교류 지역 특산물(미더덕) 소개

### 온라인 국제교육교류의 마무리 - 선물 교환, 활동 정리 및 소감 나누기

온라인 국제교육교류를 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고 좋아했던 활동은 편지와 선물을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으로만 만나던 친구들이 보낸 정성 어린 편지와 선물을 보며, 아이들은 감동과 기쁨, 그리고 마음으로 연결된 기분을 느낍니다. 한국 학생들이 직접 선물을 준비하여 보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상대 국가의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한국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선물을 고르는 과정에서 교류 대상국의 학생들과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지요. 선물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기념품도 좋고,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린 것도 좋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색칠해서 만든 노리개, 한지로 접은 딱지로 테두리를 둘러 만든 사진 액자가 일본 학교에서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와 학생들이 사는 지역에는 국화 축제가 유명해서, 말린 국화 꽃잎으로 책갈피를 만들어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국제교육교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교류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소감 나누기 활동이나 설문지를 통해 교류 과정 대한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



직접 만든 노리개



말린 국화 꽃잎으로 만든 책갈피



한지 딱지 액자



2022. 한-캄 교류 선물

이들은 교류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을 정리하여 내면화하고, 교사는 교류 활동의 효과성과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세계시민교육과 온라인 국제교육교류

세계시민교육(GCED)은 지구촌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와 실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시민’은 세계의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고,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며, 기후 위기, 전쟁과 난민 등의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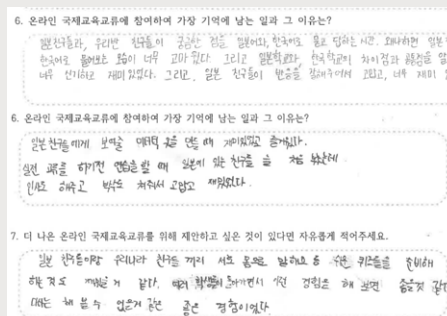
이런 관점에서 국제교육교류는 세계의 상호 연결성을 체험하고, 세계시민적 태도와 행동을 실천하는 훌륭한 무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학생 동아리를 조직하여, 이를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과 국제교육교류 활동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에서 다루는 환경, 평화, 인권 등과 관련된 문제는 세계인의 공통 관심사이며, 여러 나라 학생들이 함께 이야기 나눌 거리가 많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환경 문제는 국제교육교류의 주요한 활동 주제로 언급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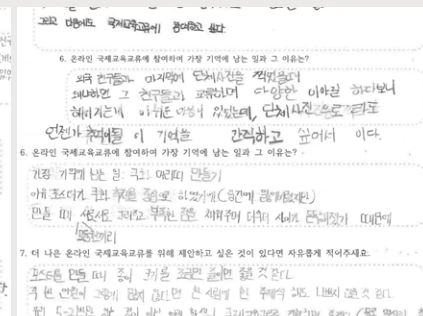
지요. 교류 중인 일본의 어느 학교에서는 알루미늄 캔 모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분리 배출되어 수집된 알루미늄 캔은 휠체어로 제작되고, 완성된 휠체어는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로 기증된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학생 동아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거든요.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 업사이클링 업체에 기증하는 캠페인이었지요. 수집된 플라스틱 병뚜껑은 열쇠고리로 재탄생하여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해양 보호 단체에 기부된답니다. 이 유사한 두 사례에 대해 한, 일 양국 학생들이 각각 발표하고,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 나눔의 가치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교류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학교와는 ‘채식’을 주제로 교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기후 위기와 식생활의 관계에 대해 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동 화상 수업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한국의 대중적인 식재



2021. 한-일 교류 학생 설문 조사 결과(1)



2021. 한-일 교류 학생 설문 조사 결과(2)



2022. 한-일 교류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캠페인



2022. 한-캄 교류 채식 요리 실습



2022. 한-말 교류 해양 보호 캠페인

료인 콩나물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콩나물을 활용한 요리 실습을 한 뒤, 활동 내용을 패들렛에 업로드하여 캄보디아 학생들과 공유했습니다. 양국 학생들은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공동 대응의 필요성, 식생활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채식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학교와는 두 번째 실시간 화상 교류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양국 학생들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가정과 학교에서 실천하고, 활동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해양 보호 캠페인과 공정무역 학습 및 체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학교 인근 해양 공원에 가서 우리 지역의 바다를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했고, 바다의 소중함과 해양 보호의 중요성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에 대해 공부하며 열대 우림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아동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교류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소중한 배움을 얻었습니다.

### 온라인 국제교육교류 활동의 아주 소소한 팁

#### 한복은 어디서, 어떻게 구하지?

교류 활동 중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한복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한복을 소개하는 것보다 한복을 직접 입고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상대국 학생들에게 한복의 생김새와 맵시를 더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고, 우리나라 학생들도 한복을 입어보는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지요. 한복은 온라

인 대여 사이트에서 유료로 대여할 수 있고, 지역 교육청의 다문화교육센터 등에서 무료로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에 온라인에서 아동용 한복 한 벌당 약 1~2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대여할 수 있었고, 택배를 통해 대여·반환하였습니다.

올해는 아동용 한복을 남녀 각 한 벌씩 구매하여 학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매번 대여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할 때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오염과 손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선물도 친환경적으로!

교류 대상국 친구들과 선물을 교환할 때도 환경을 고려하면 어떨까요? 실제로 환경 보호를 주제로 교류 활동을 실시하기도 하니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은 친환경 기념 엽서입니다. 친환경 용지에 콩기름으로 인쇄하여 엽서를 제작해주는 온라인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인쇄할 이미지(교류 활동 사진, 양국 국기와 캐릭터 등)를 보내고 원하는 크기와 수량을 알려 주면 며칠 내로 멋진 기념 엽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버려진 종이컵을 재활용하여 포토 카드, 포스터, 포토북을 제작해주는 업체도 있어요. 상대국 학교

에 포토 카드나 포스터를 선물로 보내도 좋고, 우리 아이들에게 1년 동안의 교류 활동을 기념하고 추억할 수 있는 포토북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지요.

다음으로 추천할 아이템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플라스틱 병뚜껑 열쇠고리입니다.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 깨끗하게 세척하여 업사이클링 업체에 보내면 멋진 바다거북이 모양 열쇠고리가 탄생합니다.

이 열쇠고리는 원래 개당 5천원의 가격으로 판매되지만,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 보낸 경우 개당 4천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기부를 실천하고, 이웃 나라 친구에게 선물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은 폐현수막 에코백입니다. 폐현수막 에코백은 업사이클링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며 실용성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개당 약 3천원 정도로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만든 가방이라 매우 튼튼합니다. 장바구니로 딱이지요. 게다가 무료로 학교 로고 라벨도 달 수 있고, 폐현수막에 새겨진 한글 덕분에 우리나라 문자를 홍보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는 사실!

### 시민 외교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 부여하기

온라인 국제교육교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학생들에게 사이버 예절과 개인정보 보호, 국제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 외교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도록 교육하는 일도 중요하지요.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교류 활동의 시작 또는 마지막에 시민 외교관을 상징하는 기념 배지(badge)를 수여하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 학생에게 공식적으로 배지를 수여해주시면 정말 효

과 만점입니다. 온라인 배치 제작 업체가 많으므로, 원하는 소재와 디자인을 찾아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문·제작할 수 있습니다.

### 아는 만큼 가까워진다!

교류를 시작하기 전에 교사와 학생은 상대 국가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합니다. 동영상 시청이나 자료 검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요. 그리고 상대 국가에 대한 책을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와 교류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아세안 국가 아는 만큼 가까워진다!’ 시리즈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등 국가별로 책이 나누어져 있고, 각국에 대한 기본 정보와 간단한 회화를 알려줍니다. 무엇보다도 사진과 그림이 많고 두께가 얇아서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미리 책을 읽어오도록 안내하고, 간단한 퀴즈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온라인 국제교육교류의 효과

아이들은 실제로 교류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 문화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상대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문화가 가진 고유성과 우수성을 경험하면서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요. 발표와 소통 과정에서는 영어와 상대국 언어를 배우고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의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발표하며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태도, 실천 능력도 함양하게 됩니다.

작년에 교류 활동을 함께했던 학급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제게 찾아와서 교류 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자신들처럼 국제교육교류의 경험을 꼭 해보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교류 활동을 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와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는 보람과 희열을 느끼지요.

### 온라인 국제교육교류와 다문화수용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매 3년을 주기로 일반 국민과 청소년(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요약에 따르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71.39점으로 2018년에 비해 0.17점 상승한 수준이지만, 2015년 67.63점에서 2018년 71.22점으로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상승 폭은 매우 적은 수준으로, 사실상 2018년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병뚜껑 열쇠고리



폐현수막 에코백



시민 외교관 배지



교류 대상국 관련 책 읽기 활동

다문화수용성은 다양성(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관계성(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행동 의지), 보편성(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 의지)의 3개 차원 8개 하위 구성요소로 이루어집니다. 2018년과 2021년의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성인과 청소년 모두 세계시민행동 의지, 문화개방성, 상호교류행동 의지가 공통적으로 하락했습니다.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요약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결과에는 코로나 사태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합니다.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2),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ii ~ v 쪽)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이 지속·반복될 경우,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대면 접촉 경험이 줄어들고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청소년의 세계시민행동 의지, 문화개방성, 상호교류행동 의지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전반적인 다문화수용성 저하로 이어질지도 모르지요.

세계시민교육과 온라인 국제교육교류 활동은 팬데믹 시대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갈래의 교육 활동은 세계시민행동 의지와 문화개방성, 상호교류행동 의지를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다문화수용성의 상승 효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세계시민교육과 국제교육교류는 다문

화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의 핵심 의제가 될 것입니다.

### 온라인 국제교육교류에 대한 꿈과 열정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국제교육교류에 대한 지금의 열정과 에너지는 모두 2019년 태국의 뜨거운 여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넓은 세상에 눈뜨게 되었고, 더 멀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모두 각자의 개성과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개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교류 활동을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겠지요.

국제교육교류는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더 멋진 미래를 꿈꾸게 할 것입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동료와 함께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APTE 참가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후속 교류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Khalifa Affnan  
Kolej Vokasional  
Keningau

방문 및 초청 프로그램 운영 사례

## 국제교류프로그램에 대한 고찰

A. 프롤로그

B. 프로그램 들여다보기

- 2017 한국-말레이시아 협력 프로그램
- 2018 APEC국제교육협력단(ALCoB) 학생교류프로그램
- 2019 가자! Korea
- 2019 대동중학교의 방문
- 2021 한국 말레이시아 교사교류프로그램
- 2021 대동중학교 온라인 수업
- 2022 온라인 후속교류 지원사업(PLANETS) 프로그램
- 2022 대동중학교의 방문

C. 에필로그

### A. 프롤로그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sia Pacific Teacher Exchange Programme, 이하 APTE)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 주최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를 포함한 많은 아태지역 교사들이 탁월한 교육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 일원이 된 것이 내게는 평생 잘한 일이라고 기억될 일인데, 한국에서 3개월간 APTE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여러 후속활동을 기획하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APTE 프로그램 당시 나는 말레이시아의 다른 교사들과 함께 서울공업고등학교에 배정되었는데, 우리를 포함한

총 10명의 교사가 한국의 여러 학교에 배치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 말레이시아와 한국 간 지식 교류, 다양한 음식과 언어 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한국 교사들의 수업 방식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도 뜻깊었다. 말레이시아로 돌아와 APTE 후속활동을 기획하면서, 나는 여러 멘토와 프로그램 담당자, 동료들로부터 배운 우수 사례들을 양질의 국제교류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적용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수년간 내가 기획했던 8가지 후속활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자 적어 보았다. 즐겁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2019년 APTE 프로그램 관련 말레이시아 포럼 장면(맨 왼쪽이 필자)

### B. 프로그램 들여다보기

## 2017 한국 말레이시아 협력 프로그램

2017년 12월 26 ~ 27일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한국 말레이시아 협력 프로그램 계획은 2017년 APTE 프로그램 3분기 때 내 멘토인 서울공업고등학교 임현빈 선생님과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국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중이었고 함께 진행할 국가를 찾고 있었다. 그때 APTE 프로그램이 서울에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 서울에 있던 나에게 기회가 왔다. 초기 단계에서는 교육청 담당자 없이

멘토 선생님과 둘이서 몇 번의 회의를 했다. 프로그램 내용을 교육청 담당자에게 전달하려면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는 교육청 사무실에서 담당자들을 비롯한 여행사 직원, 참여학교 담당 교사와 함께 한 번의 회의를 거쳤다. 서울로봇고등학교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중 하나였다. 계획을 수정하고 협의를 끝낸 뒤,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프로그램 개요**

이 프로그램은 문화 교류와 기술 공유 활동(특히 드론 분야 관련 기술)을 통해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Keningau Vocational College) 참가자들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간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드론 및 로봇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을 증진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한편,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참가 대상은 말레이시아 사바 주에서 다양한 직업전문과정을 밟고 있는 40명의 학생이었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역 학교들의 협력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국제교류프로그

램을 경험한 것은 참가자들, 특히 사바 주 내륙지역 학생들에게 있어 관련 분야 지식을 쌓고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였다.

40명의 말레이시아 참가자들은 ‘드론 제작 및 조립과 운영 프로그램’ 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 과제를 수행하며 지식을 습득했다.

드론 장비와 훈련과정은 교육청에서 마련해 주었고, 식사와 행사 준비는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의 지원금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외에도,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는 서울로봇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양국이 서로에게서 최고의 것을 배우자는 다짐의 의미였다.



드론 실습을 위해 현장에 모인 말레이시아와 한국 학생들 서울로봇고등학교와의 자매결연 내용을 다룬 지역신문 기사



한국 대표단이 기부한 드론 10대를 들고 촬영한 기념사진

일자	활동
2017.12.25.	한국 대표단 공항 도착
<b>2017.12.26.</b>	<b>프로그램 1일차</b>
오전 8:40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
오전 9:00	한국 학생들의 소개
오전 9:30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소개
오전 10:00	휴식 시간
오전 10:20	워크숍 시작
오후 12:30	한식 점심
오후 2:00	워크숍
오후 4:00	휴식 시간
오후 4:20~5:30	워크숍
<b>2017.12.27.</b>	<b>프로그램 2일차</b>
오전 9:00	워크숍 시작
오전 10:00	휴식 시간
오전 10:20	워크숍
오후 12:30	말레이시아식 점심
오후 2:00	워크숍
오후 4:00	휴식 시간
오후 4:20~5:30	워크숍

**절차**

이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의 초기 계획부터 그 진행까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우리가 순서에 따라 계획한 단계별 절차다.

**계획** 말레이시아 측 책임 교사(나)와 서울공업고등학교의 멘토(임현빈 선생님) 간에 비공식 논의가 오갔다. 그런 다음, 내가 말레이시아 동료 교사들에게 내용을 전달해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12월 초에 APTE가 끝나고 2주 후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필요했다. 나는 학교 동료 교사에게 전체 준비를 일임했다.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관련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Dc7FsPcxCAA&t=1s>

**프로그램 내용**

이 프로그램은 드론 실습 및 조립 과정과 한국 문화 소개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2017.12.27.	문화의 밤
오후 7:30	게스트 도착
	사자 춤 공연
	키아와이안 초등학교(Kiawaian Elementary School) 댄서들의 오프닝 공연
	VIP의 환영사
	MOU 체결식
	저녁식사 및 공연
	사진 촬영 시간 및 행사 마무리

- 한국 대표단 이동수단
- 식사
- 양국 문화에 대한 소개 활동
- 숙소(호텔 또는 게스트하우스)
- (자매학교 결연을 위한) MOU 체결
- 워크숍 내용(장소 포함)
- 문화의 밤
- 기금 마련
- 참가 학생들
- 필요 서류(의향서, 증명서 등)
- 미디어 및 사진 촬영

**회의** 모든 당사자가 서울시교육청에 모여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통역사가 동석했다. 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서로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청 담당자 및 교사들)
- 참가 학교에 대한 이해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
- 프로그램 내용(2일간의 워크숍) 및 일자 확인
- 말레이시아 방문
- 사바 주에서의 추가 활동
- 교육청의 드론 기부

**서류 준비** 국제교류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류다. 양국 관계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상대국과 주고받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 서울시교육청의 의향서(말레이시아에 오려는 이유와 시기, 횡수)
-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의 초대장 (대표단 초대)
-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에 기부할 드론에 대한 면세 및 청구 신고서(한국 대표단은 교육용으로 드론 20대를 가져와야 하므로 이는 중요한 서류다. 신고서는 말레이시아 세관원에게 제출했다.)
- 두 학교 간(또는 그 이상) MOU 서류
- 증명서. 이는 국제활동의 증거로 활용되므로 말레이시아 참가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예산 계획** 국제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책정은 특히 프로그램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이동수단, 숙소, 식사, 워크숍 및 각종 활동에 사용할 물품 등의 특정 비용을 어느 쪽에서 부담할지 결정하는 일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비용을 한국 대표단이 부담했고, 전체 프로그램 및 문화의 밤 행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식비를 말레이시아 측에서 부담했다.

**진행사항** 프로그램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짚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양국의 문화 차이를 고려할 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추가 일정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 일례로, 우리는 한국 대표단이 일찍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문화의 밤 행사를 일정보다 앞당겨서 시작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저녁 6시 반에 행사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지만, 양국의 문화 차이를 고려해 이를 받아들였다.

**보고서 및 미디어** 보도 프로그램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미디어는 보고서 및 서류 작성을 위해 서로 공유했다. 사진 공유 및 미디어 보도 시 준수해야 할 특정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양국의 동의를 중요했다. 서울로봇고등학교와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의 MOU 체결식이 말레이시아 국영 TV(TV1)에 보도되었다.

### 교육 중점 사항

이 프로그램은 4가지 주요 교육 중점 사항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활동	중점 사항
1 드론 조립	참가자들은 한국 교사와 학생들의 모듈 수업을 참고해 드론 조립 기술을 배웠다. 사용한 드론은 아레스 X FPV 레이싱 프레임 키트 220 (Ares-01-R)이었다.
2 드론 비행	참가자들은 드론 비행 기술을 익히고 드론 비행시 안전 유의 사항을 숙지했다.
3 문화 공유	양국은 전통 놀이, 음식, 춤, 언어 등 상호 문화의 우수 사례를 선보였다.
4 커뮤니케이션	참가자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일환으로 영어로 소통했다.

### 도전과제 및 난관

**문화 차이** 우리 학교가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때문에 어떤 이들의 경우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익숙지 않았

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배우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따라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상대국 참가자가 다소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언어 장벽** 몇몇 참가자는 언어 능력 때문에 영어로 말할 때 긴장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일부 학생들은 자리를 피하거나 입을 다물기도 했다. 하지만 그 외 많은 참가자들이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활발한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사소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 2018 APEC 국제교육협력단(ALCoB)

### 학생교류 프로그램

2018년 7월 8일~14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APEC국제교육협력단(ALCoB) 학생교류 프로그램은 APTE 프로그램의 후속활동으로 임현빈 선생님이 계획한 것이다. APEC국제교육협력단의 회원인 그는 서울공업고등학교와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의 후속교류활동으로 이 프로

그램을 제안했다. 계획은 2018년 2월에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2018년 3월에 내가 한국을 다시 방문했고, 그때 말레이시아에서 수행할 활동들을 좀 더 상세하게 논의했다.

### 프로그램 개요

이 프로그램은 알콕의 주도 하에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와 서울공업고등학교가 진행한 협력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 학생 10명과 교사 4명은 기숙사에서 지내며 말레이시아 문화를 경험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드론 작동법과 한국 음식 조리법을 가르쳐 주었다.



드론 실습을 위해 현장에 모인 말레이시아와 한국 학생들

이 프로그램은 드론과 로봇, 한국 음식에 대한 학생들의 기술과 지식을 진작하고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외교 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이는 서울공업고등학교와 APEC국제교육협력단의 협력 프로그램이기도 했다. 최신 기술 교류 및 국제교류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은 사바 주 내륙지역 학생들에게 최신 기술 관련 지식을 쌓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참가 대상은 사바 주에서 다양한 직업전문과정을 밟고 있는 60명의 학생이었다.



비빔밥 만드는 법을 설명하는 한국 학생

이중 30명은 드론 수업, 30명은 한국 요리 수업에 참여해 이틀간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높았다.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드론 프레임 자르는 법을 가르치는 한국 학생

이 프로그램은 서울공업고등학교와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의 지원금으로 진행됐고 큰 성과를 거두었다.

### 프로그램 내용

이 프로그램은 양국 학교의 우호관계를 다지는 한편, 기술과 문화 공유를 통해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of Education)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자	시간	활동
7월 7일(토)	19:25	인천국제공항에서 코타키나발루 국제공항으로 출발
7월 8일(일)	00:00	말레이시아 교사들과 만나 코타키나발루 프리미네이드 호텔로 출발
	10:00	호텔 체크인 후 리카스 모스크 및 코리안 마트 방문
	13:00	케닌가우로 출발
	15:00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 도착
	16:00	현지(케닌가우) 마트에서 재료 구입
	18:00	케닌가우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
	21:00	휴식
7월 9일(월)	08:00	스승의 날 행사 참여를 위해 SJK 육영학교(중국인 학교)로 출발 • 지역정부 인사들의 연설 • 양한석 교사의 연설 • 문화 공연
	14:00	• 직업교육훈련 및 세계기능경기 준비에 대한 양한석 교사의 강의 • 임현빈 교사의 APEC국제교육협력단 소개 •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 수업 및 워크숍에 대한 의견 • 서울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 교사들의 영어수업
	18:00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 구내식당에서 저녁 식사
	21:00	휴식
7월 10일(화)	07:30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
	08:30	드론과 한국 음식 1부(Ms. Lee & Mr. Lee)
	12:30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
	13:30	드론과 한국 음식 2부(Ms. Lee & Mr. Lee)
	18:00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 구내식당에서 저녁 식사
	21:00	휴식
7월 11일(수)	07:30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
	08:30	• 기념 행사(문화 교류) 및 점심 식사 한국 • 학생들의 공연 • MOU 체결식
	13:30	드론과 한국 음식 3부(Ms. Lee & Mr. Lee)
	18:00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 구내식당에서 저녁 식사
	21:00	휴식
7월 12일(목)	07:30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
	08:30	드론과 한국 음식 4부(Ms. Lee & Mr. Lee)
	12:30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
	13:30	드론과 한국 음식 수업 최종 세션
	18:00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 교사 및 한국 대표단과 함께 '쿨림봉 마요(Kulimbong Mayo)'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
	21:00	휴식
7월 13일(금)	08:30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
	12:30	케닌가우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
	13:30	케닌가우 및 주변 지역 관광
	18:00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 교사(노르딘 선생님) 댁에서 저녁 식사
	21:00	휴식
7월 14일(토)	07:30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
	08:30	케닌가우 관광
	11:00	케닌가우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
	12:00	봉가완 반딧불 투어로 출발
	13:00	봉가완 반딧불 투어 활동, 저녁 식사
	19:00	코타키나발루 공항으로 출발
7월 15일(일)	00:30	코타키나발루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

### 절차

이 부분은 초기 계획부터 프로그램 진행까지 그 흐름을 아는 데 필수적이다. 다음은 우리가 순서에 따라 계획한 단계별 절차다.

**계획** 말레이시아 측 책임교사(나)와 서울공업고등학교의 멘토(임현빈 선생님)가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비공식 논의를 했다. 그런 다음, 내가 말레이시아 동료 교사들에게 내용을 전달해 교사들이 팀을 짜서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시작까지는 총 5개월의 시간이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 대표단 이동수단
- 전체 프로그램 기간 동안의 식사
- 양국 문화에 대한 소개 활동
- 숙소(학생 기숙사)
- (자매학교 결연을 위한) MOU 체결
- 활동 내용(장소 포함)
- 방문할 케닌가우 명소
- 문화의 밤
- 기금 마련 및 배정
- 참가 학생 및 교사
- 필요 서류(의향서, 증명서 등)
- 미디어 및 사진 촬영
- 한국 대표단이 머무는 동안 책임질 여성 보호자

**회의** 2018년 3월, 한국을 방문해 있는 동안 모든 참여 교사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통역사들이 동석하지 않았고, 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서로에 대한 이해 증진(교사들)

- 참여 학교에 대한 이해(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와 서울공업고등학교)
- APEC국제교육협력단(ALCoB) 협회에 대한 이해
- 프로그램 내용(8일간의 프로그램) 및 일자 확인
- 말레이시아 사바 주 여정
- 드론 기부
- 사바 주 명소 입장료 및 부수 비용

**서류 준비** 앞서 말하였듯, 국제교류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류다. 양국 관계가 달린 사안이기 때문에 상대국과 주고받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 서울공업고등학교의 의향서(말레이시아에 오려는 이유와 시기, 횟수)
-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의 초대장(대표단 초대)
- 두 학교 간(또는 그 이상) MOU 서류
- 증명서. 이는 국제활동의 증거로 활용되므로 말레이시아 참가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예산 계획** 국제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책정은 앞서 설명하였듯 사전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초청 인원의 이동수단, 숙소, 식사에 대한 부담 워크숍 및 활동에 사용할 물품 등과 같은 특정 비용을 어느 쪽에서 부담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비용을 한국 대표단이 부담했고, 전체 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식비를 말레이시아 학교들이 부담했다.

**진행사항** 프로그램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짚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국제활동을 기획하는 것이 두 번 째였기 때문에 양국의 시차와 언어 장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보고서 및 미디어 보도** 프로그램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미디어는 보고서 및 서류 작성을 위해 휴대용 데이터 저장기기로 서로 공유했다. 그 외에도, 서울공업고등학교와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의 MOU 체결식이 있었다.

**교육 중점 사항**

이 프로그램은 5가지 주요 교육 중점 사항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활동	중점 사항
1 드론 프레임 제작	참가자들은 골판지 상자와 아이스크림 막대 같은 폐품을 이용해 드론 프레임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런 뒤, 드론을 날려보면서 신뢰도 검사를 했다.
2 한국 요리 수업	참가자들은 김치, 비빔밥, 김밥,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수업은 부엌에서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은 만든 음식을 교내 학생들에게 나눠 주었다.
3 현장 학습	한국 대표단은 현장 학습을 통해 사바 주의 진면모를 경험했다. 체험 내용으로는 하이킹, 커피 재배원 및 공예센터 방문, 강 유람, 현지 웨트 마켓 쇼핑 등이 있다.
4 문화 공유	양국은 전통 놀이, 음식, 춤, 언어 등 상호 문화의 우수 사례를 선보였다.
5 커뮤니케이션	참가자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일환으로 영어로 소통했다.

**도전과제 및 난관**

**숙소** 한국 대표단은 학생 기숙사와 교사들의 집에서 지냈기 때문에 물 부족, 정전 등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매일같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언어 장벽** 2017 한국 말레이시아 협력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일부 참가자들은 영어로 대화할 때 긴장했다. 하지만 그 외 많은 참가자들은 지난 교류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활발한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사소한 부분에서 지나지 않았다.

**2019 가자! Korea**

2019년 9월 22일~29일



**• K O R E A •**

Experiencing TVET in Seoul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가자! Korea는 한국의 교육기관을 8일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공업고등학교의 말레이시아 방문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앞서 한국의 두 학교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서울 소재의 학교들을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에서 별도로 계획한 것으로, 모든 자금을 우리 쪽에서 마련했다.

**프로그램 개요**

이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교사와 학

생들이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으로, 참가자들은 숙련 기술자들을 배출하는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기관들을 방문해 체험할 계획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말레이시아 참가자들에게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고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시스템과 그 풍부한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기간 동안 서울공업고등학교가 대표 주최자의 역할을 했다.

직업교육훈련은 교육의 부차적인 요소



서울공업고등학교 강당 무대에서 공연하는 학생들

라는 잘못된 인식은 전 세계적인 문제다. 참가자들은 다른 관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그 중요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되새길 수 있었다. 또한 8일간의 일정을 소화하며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었다. 프로그램 참가 대상은 케닌가우 직업 전문학교의 교사 5명과 학생 14명으

로, 모든 참가자는 서울공업고등학교,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 서울로봇고등학교를 방문했고 APEC국제교육협력단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또한 펀데이 코리아 네트워크(Funday Korea Network)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국 문화를 재미있게 경험했으며, 일정 중 하나로 남이섬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남이섬 활동을 즐기기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모습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있는 참가자들

일자	일정	비고
2019. 09.22.(일)	공항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8시간 환승 대기
09.23.(월)	한국으로 출발	호텔에서 체크인
09.24.(화)	서울공업고등학교	학교 방문
09.25.(수)	서울로봇고등학교	학교 방문
09.26.(목)	서울폴리텍 평생교육원	학교 방문
09.27.(금)	교사 모임	현장 학습
09.28.(토)	말레이시아 커뮤니티 모임	펀데이 코리아 네트워크 활동
09.29.(일)	말레이시아로 출발	밤 11시 30분에 공항 도착

에는 소그룹을 지어 스마트폰의 지하철 앱만 보고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자비 부담이었고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 학부모회의 후원을 일부 받았다.

### 프로그램 내용

가자! Korea는 말레이시아 교사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절차

초기 계획부터 프로그램 진행까지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음은 내가 순서에 따라 계획한 단계별 절차다.

**계획** 2019년 2월에 교사들이 몇 차례

참가자들은 주요 이동수단으로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가격이 적정 수준이고 웬만한 곳은 다 갈 수 있었다. 며칠 후

모임을 갖고 2019년 9월에 한국에 갈 계획을 세웠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들을 해외로 데려갈 때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 전체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 책정
-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
- 자유시간에 할 추가 활동
-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떠나는 현장학습
- 한국에서 지낼 숙소
- 한국에서 이용할 이동수단
- 프로그램 3개월 전에 처리해야 할 서류(초대장, 의향서)

**선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한국에 갈 교사와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치러야 했다.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최적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적극적이고 학업 성적이 좋아야 하며 활동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야 했다.

**회의** 프로그램 시작 전에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참가자 최종 결정
- 준비해야 할 모든 서류 확인
- 참가자들에게 역할을 배정할 위원회 선정
-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
- 한국의 관습과 주의해야 할 문화적 요소에 대한 브리핑

**서류 준비** 국제교류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류다. 18세 미만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국과 주고받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 서울공업고등학교의 초대장 (정식 결석계 신청용)
-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가 한국에 방문하고자 한다는 의향서
- 관리자들에게 보낼 공식 신청 양식. 관리자로는 학교 교장, 교육지원청, 교육부 등이 있다.
- 증명서. 이는 국제활동의 증거로 활용되므로 말레이시아 참가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예산 계획** 국제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책정은 특히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조기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이동수단, 숙소, 식사, 워크숍 및 활동에 사용할 물품 등) 특정 비용을 어느 쪽에서 부담할지 결정하는 일이 있다. 우리의 경우 어떠한 연계도 없이 진행되는 개인 프로그램이었기에 모든 비용을 말레이시아 대표단이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가까스로 학부모회로부터 약간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진행사항** 우리가 계획한 모든 활동은 아무 탈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주요 이동수단으로 이용한 지하철은 믿을 만했고 가격도 적정했다.

**보고서 및 미디어** 보도 모든 사진과 영상은 텔레그램 앱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공유되었다. 정식 사진사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는 촬영 사진과 영상을 자체 보관한 후 지정된 구글드라이브에 공유해야 했다.

**교육 중점 사항** 이 프로그램은 2가지 주요 교육 중점 사항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활동	중점 사항
1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식 공유	참가자들은 한국의 직업교육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몇몇 기관들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이 한국의 우수 사례를 배운 후 그 지식을 말레이시아의 학생과 교사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지식 공유는 중요하다.
2 문화기행	문화기행은 프로그램의 주요 부분으로, 참가자들은 광화문 성곽, 남이섬 등 많은 유적지를 방문했고 김밥을 만들어볼 기회도 가졌다.

**도전과제 및 난관**

**자금 지원** 아무런 연계도 없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금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1순위 과제다. 학교 지원금만으로는 국제프로그램을 수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참가자의 자비 부담 등 다른 자금을 찾아야 한다.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의 경우 참가자들에게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고 미리 공지했다. 비행기 티켓은 3개월간 각 참가자로부터 500링깃씩 걷어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한 번에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했다.

## 2019 대동중학교의 방문

2019년 11월 18일



DAEDONG MIDDLE SCHOOL AND KENINGAU VOCATIONAL COLLEGE  
STUDENT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MONDAY 18TH NOVEMBER 2019

대표단이 도착한 후 찍은 기념 사진

이 프로그램은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와 대동중학교의 후속교류 활동이다. APTE 프로그램의 일환인 ‘2019 한국 말레이시아 교사교류 프로그램’ 때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는 대동중학교에 배치되었다. 대동중학교는 사립학교로, 풍부한 문화와 자연을 자랑하는 사바 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2019년 11월 18일에 대동중학교 학생 12명과 교사 2명이

한국에서 말레이시아 사바 주까지 날아와 우리 학교를 방문했다. 한국 대표단은 말레이시아 문화와 음식을 경험하고 교내를 둘러보았다. 말레이시아의 학생 대표들이 보물찾기, 학교 구경, 스팀보트 파티(steam boat party, 국물을 끓이면서 갖은 야채와 얇게 썬 고기 등을 국물에 담갔다 먹는 요리를 놓고 만찬을 즐기는 파티) 등 많은 활동을 준비했다.

2019 APTE 프로그램의 후속활동인 이 프로그램은 문화 교류를 통해 대동중학교와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한국과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양국의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차이를 좁히고 세계시민교육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와 대동중학교가 함께 꾸려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지구촌이라는 생각이 확인되었다. 이 단기 프로그램을 통해 두 학교는 양해각서(Notes of Understanding, NOU)를 통한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간에 더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았다. 또한 한국 대표단이 방문하기 전에 상호 간의 온라인 수업도 진행했는데, 만나기 전에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수업 내용에 넣었다.

이 프로그램은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와 대동중학교의 자금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 '로티 잘라'를 예쁘게 만드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교사



말레이시아 학생들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한국 학생



스팀보트 파티를 즐기고 있는 학생들

## 2021 한국 말레이시아 교사교류 프로그램(후속)

2021년 5월~7월

이 온라인 프로그램은 APTE 프로그램의 후속교류 지원사업으로,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 특별히 기획한 프로그램이었다. 케닌가우 직업전문학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말레이시아의 두 학교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교사 3명(두 명은 기 참가자)과 말레이시아 학생 25명이 한국의 인천항공고등학교와 한 팀이 되었다. 우리는 각 학교당 세 번씩 6번의 수업을 진행했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두 차례 수행했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온라인 학습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대유행



2021 한국 말레이시아 교사교류프로그램(KOMTEP) 포스터 디자인



프로그램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양국의 교사들

에도 APTE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 3개월간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웹사이트<sup>1)</sup>를 만들어 활동 내용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APTE 프로그램 및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했다. 말레이시아 교사들이 수행한 3가지 활동은 말레이시아 문화에 대한 영어 수업

과 두 번의 요리 수업이었다. 요리 수업은 각각 말레이시아 현지 빵 ‘첵멕몰렉(Cek Mek Molek)’을 만들고, 간단한 과일 조각을 하는 수업이었다. 25명의 학생들은 100퍼센트 수업 참여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자택에서 편안하게 진행되는 프로젝트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수행했다. 또한 학생들은 인천항공고등학교 교사들이 준비한 ‘라면 챌린지’ 프로젝트에서 자신만의 전자책(e-book)을 만들기도 했다.



야채로 조각을 하고 있는 한국 학생

1) <http://www.bit.ly/komtep2021>



## 2021 대동중학교 온라인 수업

2021년 9월 ~ 11월



프로그램 참가자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10월부터 11월 까지 2개월간 진행된 100퍼센트 온라인 수업이었다. 수업은 한 달에 2번 진행되었고, 주로 학생들에게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말레이시아 학생 14명과 한국 학생 14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교사들은 조력자 역할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대유행 전, 2019년 APTE 프로그램으로 쌓은 네트워크를 이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학생들은 공동 수업의 개념(concept)로 서로 자유롭게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 수업에서 다룬 내용은 서로의 국가, 학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소개였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시안에 활동과 프로젝트를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했다.



한국 학생들과 공동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



각자의 집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학생들



학생들이 대동중학교로부터 받은 기념품

이 프로젝트는 자비 부담이었고, 우리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 대동중학교로부터 선물과 기념품을 받았다.

## 2021 온라인 후속교류 지원사업(PLANETS) 프로그램

2022년 8월 22일 ~ 10월 21일



말레이시아의 PLANETS 참가 교사들



PLANETS 프로그램의 활동 티셔츠

이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새로 만든 온라인 플랫폼 NETS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우리 학교는 온라인 후속교류 지원사업(PLANETS, Promote Linking Alumni on NETS)에 선정되었고 한국 수원에 있는 다솔초등학교, 황곡초등학교와 한 팀이 되었다. 프로그램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양국이 2번씩, 각 학교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여러 APTE 프로그램

의 기 참가자들을 서로 연결하는 데 있었다. 수업과 프로젝트 내용은 말레이시아 간식 및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 소개, 중고품의 중요성, 캔버스 가방에 그림 그리기 활동 등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이 있었다. 우리 학교 과학 교사는 PLANETS 프로젝트를 위해 비상시에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는 간단한 수경재배시스템을 만들었다.

각 학교에서 선발된 총 25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또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국으로 학습 도구가 배송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서 자금을 지원했다.

최근에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2019년



한국 교사와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

## 2022 대동중학교의 방문

2022년 11월 1일



대동중학교의 방문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년 만에 대면으로 이루어졌다. 대동중학교는 지난 번 방문 때와 똑같은 일정을 따랐다. 총 교사 2명과 여러 학년의 학생 12명이 이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5일간의 프로그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사바 주를 방문했다. 이 프로그램은 두 학교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다른 나라 친구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해 자기 소개와 더불어 서로의 문화를 소개했다. 덕분에 학생

들은 대면으로 만났을 때 서로를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한국 대표단을 책임졌고, 따라서 대부분의 활동이 학생들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 수행한 활동으로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 학교 구경, 한국 교사들의 달고나 커피 제조 시연, 말레이시아 교사들의 로티 카나이(말레이시아 현지 음식) 만들기, 저녁 스티มป์트 파티 등이 있었다.

## C. 에필로그

여기까지가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기획했던 국제교류프로그램 이야기다. 이 프로그램들은 많은 신규 교사들이 국제교류프로그램에 더 관심을 갖도록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SEAMEO-TED(동남아시아교육장관기구 직업교육개발) 교류프로그램 같은 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찾아 나서도록 도와주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진작과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제교류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곧 자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전이나 도중은 물론, 사후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당국 및 상

대 측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 각종 고민으로 잠들지 못하는밤, 부족한 지원 등 이러한 여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어떤 일을 진행하든 유연함을 잃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모토는 어떤 국제교류프로그램에서든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다. 창의성은 프로그램을 고민하다 보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준비하고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말레이시아의 많은 학교들을 국제교류프로그램의 개척자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김명석  
(전) 상관중학교

동아리 중심 학교 간 교류 사례

# 발명 동아리 활동과 함께 한 후속교류사업

저는 2017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여 캄보디아 Sisowath high school (NGS)에서 3개월 동안 물리학을 가르쳤고, 그곳에 근무하는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현지 학생 및 학교의 과학 교사들과 함께 생활에 필요한 아이디어 발상과 학생들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 ‘발명동아리’를 만들고 점심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관심 있는 학생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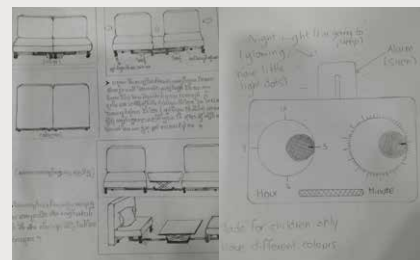
캄보디아의 과학고등학교라고 불리는 Sisowath의 학생 및 교직원들은 발명 활동과 특허나 실용신안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매우 생소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발명 활동은 특히 재산권으로서 보호를 받고 부를 쌓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창의력 향상을 위한 활동의 가치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과후 동아리 활동



점심시간 동아리 활동



학생들이 제출한 아이디어

그리고 한국에 돌아온 후 발명교육 활동이 활성화되어있던 본인의 근무 학교였던 ‘상관중학교’에서 캄보디아 Sisowath 과의 발명동아리 활동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학교가 소속된 지역인 완주군청의 지원과 함께 국제교류 협력학습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제교류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국제교류를 전문적으로 해왔던 기관이나 여행사 등을 거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현지 학교와 직접 교류의 의사를 타진하고, 교류 행사에 필요한 절차와 예약, 그리고 점검할 모든 부분들을 본인의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고 부담감이 컸습니다.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활동의 안전성, 제도와 절차적인 가능성 여부, 상급기관의 승인, 학부모의 의견 등 여러 가지가 염려되었습니다. 막연하고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복귀하던 2017년에 학생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여 모두에게 긍정적이고 적

극적인 동의를 얻게 되었고, 그에 힘입어 상관중학교와 캄보디아 Sisowath의 발명을 주제로 한 국제 교류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다행스럽게도 학교 내부적으로는 상관중학교에 지자체인 완주군청에서 해마다 지원하는 발명 관련 예산이 있었고, 그 비용과 국제교류 행사에 참가할 학생들이 일부 비용을 지불하면 비용 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하였습니다. 웹 검색과 여러 기관에 문의를 통하여 학교 자체적인 국제교류 매뉴얼을 만들고, 참가할 학생과 교사의 인원 확정 및 학생선발에 관한 규칙 그리고 학부모의 동의 절차, 지역 교육청과의 협의, 현지에서 수업에 필요한 통역의 확보, 현지 학교와의 일정 조율, 항공권과 숙소 예약, 차량 렌트, 일정 진행에 따른 캄보디아 현지의 사전정보 파악,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지에서 함께 교류하며 공부하게 될 내용과 학습 방법 등을 정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 준비과정에서 소수의 교사 의견이

지만, 군청에서 지원받은 예산의 일부가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만 쓰인다는 문제점에 대한 반대 의사와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염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여러 차례의 교사 협의와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더 클 거라는 다수의 의견이 조율되어, 2017년 상관중학교의 16명의 학생과 4명의 교사들과 함께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5박 7일 동안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의 Sisowath high school 첫 번째 방문 국제교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8년에도 상관중학교 16명의 학생들과 5명의 교사가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하였고 Sisowath 학생들과 서로 한 장소에 모여서 “발명”을 주제로 3일 동안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을 묻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공동학습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일정들은 캄보디아 학생들과 함께 유적지 탐방 등 문화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반갑게도 2019년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캄보디아 Sisowath의 학생 12명과 교사 3명이 상관중학교를 방문하였고, 그 후속으로 10월 3일부

터 10월 9일까지 상관중 학생 16명과 교사 4명이 다시 Sisowath을 방문하여 역시 발명을 주제로 교류하였습니다.

이 교류활동은 발명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양국의 학생과 교사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림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류 활동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발명’이 어렵거나 꽤 심도 있는 과학적 지식에 기반하는 것이 아닌 일상의 불편함을 공감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창의적으로 찾아내고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의 교환 속에서 과학과 창의력이 결합 되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다르고 생활환경이 다른 선입관적 이질감을 본 교류 프로젝트를 통하여 단순 소통이나 이해의 차원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고 서로를 배려하고, 진정으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MOU 체결과 더불어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약속하였으며, 3년간의 교류활동으로 인해 양쪽 학교의 훌륭한 연중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교류 활동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너무 좋은 행사로 인식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2020년에는 교류를 지속하고자 모



기념촬영

든 계획과 예산을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물리적인 교류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내놓은 발명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본인이 Sisowath에 있는 동안 희망하는 학생들과 함께 점심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몇몇 주제를 정하고 학생들이 작성한 아이디어를 보며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과 홍보가 거의 없었던 캄보디아에서 현지 교사와 학생들이 발명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지 담당교사가 페이스북(Facebook)에 동아리방을 만들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동아리방을 통해서 발명과 현지 소



아이디어 발표



2017년 MOU체결

식에 관한 교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상관중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Sisowath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등 삼각대보다 개선된 제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상관중학교 학생들이 미리 생각한 아이디어를 Sisowath 학생들과 함께 발표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3일 동안 수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그룹별 수업을 통해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문에서는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MOU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 교류를 약속하였고, 두 번째 방문에서는 “소변 비산 방지를 위한 보다 위생적인 변기”라는 주제로, 상관중 학생들이 방문 전 준비한 발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Sisowath 학생들의 질문과 다른 의견에 대한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 방문과는 달리 Sisowath 학생들이 준비한 아이디어도 함께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문 모두 캄보디아 TV뉴스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5월에는 드디어 캄보디아 Sisowath 학생들 12명과 교사 3명이 상관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수업 참관과 강당에 모여 전통춤을 선보이는 등 학생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에 따라 전통문화에 대한 소개를 짧게나마 서로

에게 선보였습니다. 홈스테이 형식으로 학생들의 집에 기거하면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을 보여주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정겨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또 상관중학교 소재지 인근의 전주에 위치한 한옥마을 방문과 비빔밥 만들기 체험 등을 하였고, 짧은 시간이지만 방문 기간 동안 Sisowath 학생과 교사들에게 한국에 대한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가을에 상관중에서 다시 Sisowath을 방문하였고,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발명과 연관 있는 공작수업을 하였고, 학생들이 준비한 우리의 전통 공연을 선보이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의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없었지만, 양국의 학생들은 페이스북이나 기타 메신저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3차례의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서 나라가 다르고 일상의 문화가 서로 다른 캄보디아 Sisowath과의 직접 방문하고 만남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Sisowath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활동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조금은 수동적인 학습에 익

숙한 우리들에게 적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거나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을 통해 볼 수 있는 외형적인 현지 모습이 아닌 Sisowath

학생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의 문화와 그들의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공유하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쇼핑몰과 아파트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고층빌딩을 보며, 세계의 여러 도시가 놀랍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느끼며 세상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학생들 스스로 미래의 진로나 직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Sisowath에서 교사로서 현지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저 스스로도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며, 이 작은 계기가 파견복귀 후 본인이 근무했던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그 모든 경험들을 새롭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점을 매우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의 발판을 마련해 준 대한민국 교육부와 APCEIU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 학생들 한국방문



캄보디아 학생들을 보내며



캄보디아 학생들 배웅



최홍길  
선정고등학교

학교 간 협약 체결 사례

## 소중한 인연들

생활지도부장을 맡았던 2016년은 피로의 연속이었다. 학생지도는 기본이고, 선도위원회와 학폭위는 수시로 열렸다. 주변의 여느 학교보다 학생 수가 많기에 이런저런 사건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일쑤였다. 하교 때에는 정문과 후문의 주택가 후미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 때문에 출동을 자주 하기도 했다. 쉬고 싶었다. 그러다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라는 교육부 공문을 접하게 되었고, 지원 후 선발되었다. 우리 학교가 다문화정책학교인데다가 한 해 앞서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때 3학년

이 학교에 처음 출근하던 날, 정문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환영해준 퍼포먼스 때

가 공적으로 인정받은 듯싶었다. 우리나라에서 파견 전의 사전 연수, 다시 현지에서의 연수 등을 받고서 26명의 교사가 하노이의 13개 학교에 배치되었다. 2016년 9월부터 3개월간의 여정이었는데, 나는 ‘응우옌 주’ 중학교에 동지를 틀었다. 이 중학교는 관광지 호안끼엠에서 었드리면 코 당을 데에 자리했다. 특히 가을로 접어드는 11월부터는 동서양에서 온집한 외지인들 때문에 여러 국가의 언어를 접할 수 있기에 다문화 체험의 최적지였다.

문에 찢끔 눈물이 날 정도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업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쳤다.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게 여겼고, 교사들을 두 팔 벌려 환영했다.

현재 베트남의 학제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이다. ‘도이모이’라는 개방정책 실시 전까지는 여느 사회주의 국가처럼 무상교육을 실시했으나, 1990년 이후 유료 교육제도가 도입되었다. 지금은 초등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고, 중학교 과정부터는 유료이다.

베트남의 교육열은 매우 뜨겁다. 특히 토요일 같은 날은 학원에서 영어교육을 받는 어린이들도 적지 않다. 학교에서의 우열반 편성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녀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교에 보내려는 부모들의 열망이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경제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등의 해외로 유학을 보내기도 한다.

2주 정도의 참관수업이 끝나자 교실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참고로 베트남의 중고교에서 외국인이 수업을 하려면, 베트남인 통역과 같이 입실하는 건 일종의 불문율이다. 학생들은 비좁은 교실에 40-50명이 앉아 더위를 물리치며 수업에 참여했다. 에어컨이 있었으나 물이 새는 등 불편한 교실 환경에서도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다. 모둠별 토의와 발표 수업은 기본이었다. 우

리와는 달리, 쉬는 시간이 고작 5분뿐이었다. 12시경에 급식을 먹은 후 교실 문을 잠근 채 낮잠을 자는 모습은 이채롭기까지 했다.

어떤 학생들은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서 잠을 잔 후 1시 50분경에 재등교를 하기도 했다. 2시부터 시작된 수업은 오후 5시를 훌쩍 넘겨서야 끝났다. 수업 시작과 끝을 알리는 건 종소리가 아니라 북소리였다. 학교 관리실 아저씨가 시계를 보면서 크나큰 북채를 들고 북을 몇 번씩 두드리는 모습도 이색적이었다.

## K-Pop 경연대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12월 초순경, 이 학교 자체적으로 K-Pop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무대에 올라가 ‘뽕뽕뽕’과 ‘파이어’, ‘치어업’, ‘픽미’ 등을 불렀다. 초대받은 학생 관객들이 노래 가사를 따라부르는 건 기본이고, 현란한 춤 동작에 넋이 나간 표정들이었다. 특히, ‘픽미’를 부를 때는 합창 소리가 강당을 뒤흔들었다. 다른 학교에서 온 심사위원들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때 심사위원이기도 한 탕롱중학교 소속 한국어 교사와 연을 맺었다. 당시 하노이의 두 개 학교와 호찌민의 두 개 학교를 선정해 한국어 보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였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탕롱중학교에서 희망 학생들에 한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국

립국제교육원 소속의 장기파견교사 신분이었다. 경연대회가 끝난 후 이분과 에 그커피를 마시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의 열정을 들을 수 있었다. 마침 우리 학교 인근 지역에 자택이 있다고 해서 더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었다.

3년도 아니고,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중학생들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얼마나 가르쳤겠는가! 한국 드라마와 K-pop 이 알려지고 국내 대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함에 따라, 베트남 대학의 한국어과에 대한 인기도 높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하노이는 당연하고, 하이즈엉·후에·호이안 등에서도 젊은이들의 한글사랑은 그치지 않았다.

나는 베트남의 중학생들에게 ‘안녕하세요’를 포함해 네 가지 한국어 문장을 꼭 기억하라고 당부했고, <엄마야 누나야>란 시와 노래를 통해 두 나라의 유대관계까지 언급했다. 10여 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후 ‘내 중학 시절 어떤 한국선생님이 한국을 소개했는데 그걸 잊을 수 없었다’라는 학생이 몇 명 정도만 나온다면, 나로서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 아니겠는가!

12월 5일 아침 7시 30분, 전교생 2천여 명이 운동장에 모였다. 두 명의 파견교사를 환송하는 자리였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정들었던 이곳을 내일 떠납니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미래의 주인이 되라는 메시지를 듣고 학생과 교사들은 인사말 도중에 한참 동안 박수를 보냈다. 나는 다시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다. 잊지 못할 90일간의 체험임을 이 시간 고백한다.

## 6월 25일. MOU 체결

베트남 파견 근무를 마치고 학교에 복귀한 나는 그동안의 다문화 체험을 PPT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문화 다양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병행했다. 그 화면이 무려 80여 장이나 되었다. 학생들은 길거리 이발 장면을 보고 웃었고, 사람 머리만 한 열대과일 잭푸르트를 보면서 신기해했다. 호아빈 강변의 수상가옥은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브랜드인 ‘초코파이’가 면면촌촌에서까지 잘 팔린다고 하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그때 만났던 한국어 선생님과는 카톡을 통해 소식 등을 교환하며 인연을 유지해갔다. 그 선생님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학생의 부모들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호감을 갖고, 이들의 자녀가 졸업 후에는 여기에 들어가서 근무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려면 당연히 한국어를 기본으로 배워야 한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었다.

탕롱중에 적을 둔 이 선생님은 한국의 중학교와 교류를 원했다. 탕롱중은 4월 중순에 기말고사를 보고 5월 중순이면

3개월 정도의 긴 방학에 들어가기에 방학을 활용해서 MOU 체결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다른 기관을 통해 교류할 방법을 찾았으나 연결이 잘되지 않자 필자에게 긴급하게 요청을 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탕롱중학교 소개자료를 메일로 보내왔다. 1972년에 설립한 이 학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0교실에서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이었다. 베트남 총리로부터 2차에 걸쳐 ‘상장’을 받을 정도로 명문이었고, 국제협력활동도 꾸준히 실시하는 학교였다. 한국·일본·싱가포르 등의 국제학생단이 탕롱중을 방문했으며, 특히 학생의 지식 향상과 외국어 능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거듭하다, 학교급이 맞는 중학교와 연결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선정중학교 교감 선생님을 찾아가 그동안의 사정을 얘기했다. 마침 선정중학교 또한 우리 학교와 같이 다문화정책학교이어서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의 신호를 보냈다. 이 학교의 교감은 외국 학생과의 교류에 적극적이었다. 일정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면 교장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문화를 담당하는 교사가 있기에 공문 기안 등의 행정 처리 등을 맡기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후 모든 게 물 흐르듯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어서 서울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선정중에서 준비해 주었으면 하는

초청장 서류까지 보내왔다. 일본 학교와 교류할 때의 양식이라면서 그 내용만 약간 바꿨다고 했다. 또한 행사 당일 하노이를 상징하는 선물이나 기념품을 가져가서 한국학생들과 교환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다. 그러면서 한국학교의 행사 진행 방식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도 말했다. 더 나아가 MOU 이후에는 학교 투어를 한 시간 정도 하기를 희망했다. 즉, 대강당에서 MOU가 끝나면 선정중학교 교실·식당·운동장·체육관 등을 견학하고 싶다는 뜻이었다.

## 진도 아리랑과 민속춤

2017년 6월 25일, 서울 은평구 선정중학교 강당에서 베트남 하노이 소재 탕롱중과의 MOU가 체결됐다.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대강당에서 두 학교 간의 자매결연 행사가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었던 이날은 서로 다른 사회체제 속에서 전쟁의 경험을 했던 한국과 베트남의 학교가 함께했기 때문에 더욱 뜻깊었다고 생각한다. 학교 정문에는 이들을 환영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분위기를 돋우었다.

베트남에서는 이 학교의 교장과 학생·학부모 등 30여 명이, 선정중학교에서는 학생회 간부와 학교 기숙사에 사는 유학생들이 참여했다. 탕롱중 학생들은 베트남의 민속춤을 선보였고, 한국 학생들은 진도 아리랑을 부르면서 이들을 환영했다. 박수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진

풍경이 연출되었다.

이날 체결식은 선정중학교 교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개회선언, 국민의례, 학생 대표들의 양국 학교 소개, 사회자의 MOU 체결내용 설명, 양해각서 조인식, 학교장 인사말, 선물교환과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양해각서 조인식 때는 양국 학교의 교장이 나와서 사인을 했다. 양해 각서는 총 5조로 구성되었는데 1조는 목적, 2조는 역할, 3조는 기밀유지, 4조는 각서의 변경, 5조는 효력 발생에 관한 것이었다. 2조의 ‘역할’에는 문화 교류와 학술 세미나를 포함한 협력 등이 적혀 있었고, 5조는 ‘서명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였다. 그리고 양방 모두 협약의 종료에 대한 서면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2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MOU 체결 후에는 선정중학교 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후 가까운 한정식집에서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행사 비용은 선정중에서 교육청 지원금의 일부를 활용하였고, 탕롱중 측에서도 일부 부담하였다. 탕롱중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선정중 복도와 교무실에 게시해 놓았다.

MOU 체결 덕분이었는지 매년 연말에 열리는 다문화교육 성과보고회 자리에서 발표하는 영광을 얻었다. 12월 19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는데, 전국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당시에 도 다문화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기

에 인성캠프와 어울림한마당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지만, 탕롱중학교와의 MOU 체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각 교육청의 담당자가 들을 수 있도록 “다문화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하노이의 호안끼엠에를 반드시 봐야 한다”며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 각서는 지금도 유효

2018년 4월 9일에는 화상수업에 도전했다. 두 시간의 시차를 염두에 두고 카톡을 통해 의사를 교환하면서 준비했다. 수업 시간대가 서로 맞물려야 해서 쉽지 않았다. 일반 학급이 아닌, 수업 부담이 덜한 예체능 학급으로 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 예체능 학급의 학생들과 한국어를 선택해서 공부 중인 탕롱중 학생들과의 쌍방향 만남이 이뤄졌다. ‘스카이프’를 통해 우리는 교실에서, 탕롱중은 컴퓨터실에서 행사를 가진 것이다. 도중에 연결이 끊겨 진행은 순조롭지 않았다.

묻고 답하는 식의 단답형이었고, 대화는 한국어로만 진행되었다. 기껏해야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지금 어디에 살아요, K-Pop을 좋아하세요, 아이돌 가운데 누구를 좋아하세요?> 정도였다. 이쪽에서 트와이스의 노래를 간단히 불러주자 탕롱중 학생들은 뜨겁게 박수를 보냈다. 비록 1회성의 짧은 행사였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학



생들이 한국어로 대답을 했다는 게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 두 가지 문제로 화상수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전에 교사들끼리 수업지도안을 만들어 공유하지 못했고, 베트남의 인터넷 연결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준비하는 교사가 다소 힘들지라도 학생들의 흥미와 미래를 위해서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의 정제된 화상수업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후 다문화 업무 담당자가 바뀌고, 학교 책임자인 교장이 정년퇴임을 하면서 양해각서의 내용대로 활발한 교류는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각서의 내용 가운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마다 계약이 연장되기에 지금도 유효한 계약 사실이다. 현재도 선정중 교무실에는 MOU 때 받은 하노이 관련 액자가 세 개 정도 걸려 있다.

### 다양성이 경쟁력

베트남 파견 근무 이후 학교에 복귀해서 ‘다경(다양성이 경쟁력)’이라는 교원학습공동체를 조직해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필자 스스로 호안끼엠에서 다양성에 대해 체득한 바가 절절하였기에 이를 동료 교사들에게 설명하여 다경을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회원은 5-8명 선으로 한정했다. 학교마다 1년에 네 번씩의 정기시험이 진행되기에 시험 기간 중 한 날을 잡아 오후에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 최소 1년에 네 번 정도의 모임이 이어진다. 다문화정책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관련 도서를 구입해 윤독을 하고 토의를 한다. 또한 약간의 사비를 걷어 다문화박물관이나 다문화 가정 인구가 높은 것으로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안산 등지를 찾기도 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겨울방학을 이용해 동료 교사들



과 하노이와 사파 등을 찾아 다문화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이런 건 다 수업의 자산이었다.

이런 곳을 갈 때마다 사진을 찍고, 유인물을 챙겼다.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냈다. 학교에서 시험 이후 첫 시간에는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에 이런 자료를 토대로 미리 PPT를 만들어 이때 선을 보인다. 학생들의 반응은 항상 좋은 편이다. 교과서에 밑줄을 그으며 집중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으나, 화면 속의 여러 사진을 보면서 다문화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인지하리라.

여기서 빠트리면 안 될 귀중한 사진이 하나 있다. 2019년 2월, 다양성의 진미를 체험하려고 동료 교사들과 하노이 등을 찾았는데 하교할 무렵 당시 가르쳤던 학생을 만난 것이다. 정말 우연이었다. 기쁨의 재회 후에 기념사진을 남겼다. 그 학생에게 네 문장의 한국어를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그 학생은 서슴없이 한국

어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옆에서 이를 들은 동료 교사가 감탄했다. 이 내용은 모 라디오 방송에서 전파를 타기도 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역사와 시대의 필연이다. 이제는 공존을 위한 개방성과 다양성이 꽃처럼 피어나야만 번영과 발전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고 많은 이들이 역설한다.

다문화와 다양성은 어느새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덕분에 3개월 동안의 베트남 체험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을 내게 안겨 주었다. 이후 MOU 체결과 화상수업 또한 서로 간의 의미 있는 행사였다. 사비를 건어 다경 소속의 동료 교사들과 호안끼엠을 비롯해 사파까지 여행한 경험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 다문화 체험의 최적지

베트남 하노이의 호안끼엠 부근은 다문화와 다양성 체험의 최적지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한다. 호수 주변은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밤까지 차 없는 거리가 되기에 이곳은 만남의 장소이다. 차가 안 다니는 텅 빈 거리를 가족과 연인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가면서 게임에 동참하고 음악회 등을 들으면서 한 주를 마감한다.

또한 주변에 특화된 36거리가 있기에 물건을 사려는 관광객들로 항상 붐빈다. 한마디로 쇼핑의 천국이다. 예를 들어 어떤 거리에서는 여러 종류의 꽃만, 어떤 거리에서는 커피만, 어떤 거리에서는 맥주만, 어떤 거리에서는 가방만을 판다. 특히 주말에는 소수민족들이 특이한 복장을 한 채 그들만의 물품을 갖고 와서 좌판을 벌이기도 한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주관한 사업에 뽑혀 활동한 이 기간은 비록 짧았으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을 것 같다. 6년 후에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베트남과 같은 곳에 가서 한국어 교사를 할 생각으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이미 따놓기도 했다.

인연은 또 있다. 당시 응우옌 주 중학교에서 통역을 담당했던 베트남 현지인과는 지금까지도 카톡을 통해 연락한다. 베트남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이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수분 이내에 답변이 올 정도이다. 작년에는 베트남산 다양한 커피 종류를 구매해 아직도 아껴 마시고 있다. 차고로 인연은 소중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에 비해 베트남은 젊다. 따스한 심성을 갖고 있는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아름답다. 앞으로 해외 여행지를 선택할 때나 지인들의 권유를 받을 때면, 나는 선뜻 베트남의 이곳저곳을 추천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점점 잃어가는 정(情)도 듬뿍 배워 올 수 있을 거라고 침언하리라.



탕롱중 한국탐방 일정표

날짜	지역	일정 내역
2017년 6월 22일(목)	서울	• 남산타워, 명동거리 관광
6월 23일(금)	서울	• 남이섬 및 뷔띠프랑스, 찜질방 체험
6월 24일(토)	서울	• 경복궁 & 국립민속박물관, 서울랜드
6월 25일(일)	서울 - 제주도	• <b>선정중학교 결연(서울 은평구)</b> • 서울-제주 이동, 천지연 폭포, 수목원 테마파크
6월 26일(월)	제주도	• 용두암, 성읍민속마을,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6월 27일(화)	제주도 - 서울	• 외돌개, 올레길 • 제주-서울 이동
6월 28일(수)	서울	• 인천국제공항 (출국)



## 양해각서

탕롱중학교와 선정중학교는 교육, 연구, 문화, 사회 교육봉사 분야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탕롱중학교와 선정중학교가 상호 교류를 원활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류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1.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 가. 탕롱중학교의 문화 교류 관련 방과후 활동 상호 교류 협력
  - 나. 문화 교류 학술 세미나 등 교육 예체능 문화 활동 분야에 대한 협력
  - 다.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협력
2. 양 기관은 교류에 필요한 자원 조성 및 지원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별도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각자가 소요 경비를 부담한다.
3. 이 협약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양 기관의 상호 의견을 조율하여 시행하기로 한다.
4. 탕롱중학교 및 선정중학교는 교류의 계속적 수행이 어려운 사유 및 기타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상호간에 통보하며, 대책에 대해 상호 협의 한다.

### 제3조(기밀유지)

탕롱중학교 및 선정중학교는 상호 교류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 기타 감독기관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양해각서의 변경)

아래 사항에 해당한 경우 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탕롱중학교와 선정중학교가 상호 합의 할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효력발생)

본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협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협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방이 6개월 이내에 정식 서면형식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양방 모두 협약의 종료에 대한 서면 통지가 없을 경우에 이 협약은 2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2017년 05월 05일

선정중학교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0길 19  
서울 은평구 갈현동 227-5  
교장 정탄진

탕롱중학교  
46A Nguyễn Văn Ngọc  
Ba Đình - Hà Nội  
교장 Nguyễn Thanh Hà



## BIÊN BẢN GHI NHỚ

Hôm nay, đại diện hai bên chúng tôi gồm: Trường THCS Thăng Long và Trường THCS Sunjung sẽ tiến hành ký kết biên bản ghi nhớ về việc hợp tác và hỗ trợ lẫn nhau trong lĩnh vực giáo dục, nghiên cứu, văn hóa và tình nguyện (dưới đây gọi là "Chương trình giao lưu"). Sau khi trao đổi và bàn bạc, hai bên đã đi tới thống nhất thực hiện các điều khoản sau:

### Điều 1: Mục đích

Biên bản cam kết này được ký với mục đích nhấn mạnh quyền và nghĩa vụ của hai bên là: Trường THCS Thăng Long và Trường THCS Sunjung, cũng như đưa ra các điều khoản cơ bản cần thiết cho việc thực hiện chương trình giao lưu một cách thuận lợi, hiệu quả nhất.

### Điều 2: Nghĩa vụ của mỗi bên:

1. Hai bên phải hợp tác, giúp đỡ nhau trong mọi lĩnh vực.
  - a. Chương trình giao lưu văn hóa, ngôn ngữ giữa hai trường.
  - b. Tổ chức các hoạt động thuộc lĩnh vực văn hóa, giáo dục, giải trí, thể dục thể thao, học thuật.
  - c. Hợp tác tiến hành các chương trình giao lưu giáo dục ngôn ngữ, văn hoá.
2. Hai bên phải nỗ lực hết sức để huy động các nguồn tài chính và hỗ trợ cần thiết cho chương trình giao lưu. Trong trường hợp thay đổi không có thỏa thuận trước, các bên sẽ phải chịu bồi thường.
3. Để biên bản cam kết này được thực hiện một cách hiệu quả nhất, hai bên phải đưa ra ý kiến và tham vấn lẫn nhau.
4. Trong trường hợp xảy ra sự cố hoặc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tiến hành chương trình giao lưu, Trường THCS Thăng Long và Trường THCS Sunjung phải lập tức thông báo cho bên kia, hội ý để đưa ra đối sách giải quyết thỏa đáng nhất.

### Điều 3: Vấn đề bảo mật

Trường THCS Thăng Long và Trường THCS Sunjung không được cung cấp các thông tin về chương trình cho các tổ chức, cơ quan khác ngoài trừ các cơ quan, tổ chức Pháp luật, cơ quan, tổ chức Nhà nước.

### Điều 4: Những thay đổi trong biên bản cam kết

Biên bản cam kết này có thể được thay đổi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Sau khi Trường THCS Thăng Long và Trường THCS Sunjung thỏa thuận lại.

Toàn bộ chương trình không triển khai được hoặc không triển khai được một phần nào đó mà không có lý do chính đáng.

Trong thời gian thực hiện chương trình có phát sinh vấn đề nghiêm trọng tới mức có khả năng triển khai chương trình.

### Điều 5: Hiệu lực của biên bản cam kết

Biên bản cam kết này có hiệu lực từ ngày ký kết và kéo dài trong vòng 2 năm. Trong trường hợp hai bên muốn thay đổi nội dung của biên bản hoặc chấm dứt thỏa thuận thì phải gửi bản cho bên còn lại trong vòng 6 tháng kể từ khi ký kết biên bản này. Trong trường hợp một bên đưa ra một văn bản chính thức về việc chấm dứt thỏa thuận thì biên bản cam kết này hạn 2 năm một lần.

Ngày 05 tháng 05 năm 2017



Thang Long Secondary School  
Nguyen Van Ngoc Street,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수신:

제목: 베트남 하노이 탕롱 중학교와 자매결연 및 한국 탐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베트남 하노이 탕롱 중학교에 대한 소개는 하기와 같습니다.  
탕롱 중학교는 1971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1,668여명의 학생으로 구성되고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시의 지속적인 명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중학교 중 최초로 한국어 학습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부터 한국 문화를 소개한 다양한 축제 및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3. 한국 중학교와 자매결연 및 한국 탐방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관계에 기여하며 양국 학생들 간의 교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 중학교와 자매결연을 요청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학생들에게 베트남 문화를 소개하여 한국어 학습 중인 베트남 중학생들에게도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어 학습 중인 68반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 탐방 일정에 대해 베트남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국 탐방의 일정은 2017년 06월 22일-27일로 예정입니다.
4. 귀 기관의 협조를 기원합니다.

탕롱 중학교 총장

(서명 & 날인)



안봉선  
송정동초등학교

각종 지원사업 참가 사례

# 韓마음, 多가치 교실의 경계를 넘다

광주광역시의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들에서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 교육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2014년 다문화가정대상국가 필리핀 파견에 참가했다. 필리핀에서 4개월의 생활은 한 나라의 문화를 하루하루 배워가는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 선생님에 관한 관심과 대한민국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필리핀 학생들의 열정적인 수업 참여는 나를 국제교류에 매료되게 하였다. 하루 3시간 수학, 과학,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전혀 다른 교육환경에서 현지 상황에 맞게 수업하는 방법도 배웠다. 이러한 경험은 나의 교육적 관심의 영역을 국제교육교류, 세계시민교육으로 확장해주었다. 2014년의 경험은 하나의 물꼬를 여는 것과 같이 교

사로서의 나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다. 나는 다문화가정대상국가 파견을 통해 국제교육교류가 단순히 학생들의 국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를 자발적으로 끌어내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가르칠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믿음으로 많은 국제교육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필리핀 2개 학교, 캄보디아 1개 학교와 비대면으로 실시간 화상수업 교류를 실천하고 있다. 다음은 내가 경험했던 국제교류 사례들이다. 사업의 개요와 지원 절차는 해당 사업 기관의 홈페이지와 공문을 참고했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 이.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https://asp.unesco.or.kr>

### 가. 사업의 개요

유네스코학교는 인권, 평화,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과 같은 유네스코의 이념을 학교 교육에 통합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운영 중인 세계 학교 네트워크이다. 유네스코학교는 구성원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하며,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학교와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스스로 구상하여 실천한다.

### ① 레인보우 프로젝트

#### (현 청소년 평화 프로젝트)

레인보우 프로젝트(현 유네스코 청소년 평화 프로젝트)는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로, 학생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관련 주제를 선택한 후 주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실천한다.

통과한 학교는 2차 심사를 거쳐 유네스코 본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고 '유네스코학교'로 인정되기 전까지 '예비회원교' 자격을 부여받는다.

② 2차 학교 가입 신청 및 심사는 OTA(Online Tool for ASPnet)라는 온라인 플랫폼<sup>2)</sup>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세한 가입 신청 절차는 이메일로 개별 안내된다.

### ② 국제교사교류(한일교사대화)

한국과 일본의 양국 교사가 교육 현장 방문을 통해 교육 현안을 이해하고 상호 정보공유와 지역 협력을 위해 매해 개최된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일 교직원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으로 실천되고 있다.

### 다. 활동 내용

2017년부터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레인보우 프로젝트(현 청소년 평화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과 국제이해, 환경보호, 다문화 체험 등의 세계시민교육활동을 전개했고 국제교사교류 사업에(2018년 한일교사대화) 참가했다.

### 나. 지원 절차

① 유네스코학교 가입은 매년 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차 국내 심사를

2) <https://www.unesco.org/en/education/aspnet>

### ① 레인보우 프로젝트(현 청소년 평화 프로젝트)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활동(2017~현재)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폐물품 재활용 및 생태 탐방 페현수막을 이용해 자원 재활용의 방법을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마을 생태환경을 조사한다.

다문화 이해 교육과 마을교육 실천 타 국가의 음식과 전통놀이를 체험하고 마을의 역사를 현장에서 탐방한다.



② 한일교사대화 참가(2018.1.16.~22. 일본 도쿄, 기후현, 교토)



초·중등학교 방문 및 한·일 교사 대화를 통한 양국의 교육 과제 토론 모든 학교 및 방문 시 현수막 대신 학생들 스스로 만든 환영 플래카드 사용이 인상 깊다.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슬리퍼를 사용 후 반대 방향으로 정리하고, 급식 후 음료수 뚜껑까지 물기를 닦아 재활용 분류하는 모습과 질서 있게 정리된 자전거

○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에 소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거나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본의 교육시스템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더불어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에 가입한다는 것은 학교가 세계시민교육 활성화에 의지를 가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

한 유네스코네트워크 학교 간 교류 활동을 위한 학교 매칭을 요구할 수 있고 교사가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의 지향점을 참고로 직접 프로그램을 구안할 수 있다. 송정동초등학교는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지원하여 다문화 학생들로 구성된 ‘다문화 학생 동아리’를 만들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마을의 역사를 안내하는 책자를 만들고, 학생들과 학교 근처

고려인 마을을 탐사하여 일제강점기 시대 강제로 중앙아시아에 정착하게 된 고려인의 역사를 공부하였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의 중점 사업 중 하나였던 에너지 절약 교육과 연계한 ‘송정동 에너지 레인저스’라고 하는 학생 봉사 단체를 조직하여 전등 끄기, 필요 없이 낭비되는 수도물 점검하기, 재활용 물품 모이기 등의 활동을 실천하였다. 특히, 내가 속한 2학년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주제를 세계시민 교육으로 설정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2학년 교육과정에 연계하여 실천하였다. 2학년 통합 교과 교육과정에 있는 세계 인식, 다문화 이해 단원을 재구성하여 재미장터 운영을 통한 기부활동, 다문화 교육 전문가 초청 수업, 국제이해교육, 다문화 체험,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Cross-Cultural Awareness Programme)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목표를 보다 실질적으로 성취하도록 하였다.

발하고 경진하는 대회이다. 2011년 ~ 2021년도까지 총 186개의 앱을 개발, 31개국 1033명이 참여하였다. 국내·외 학생 및 지도교사들이 팀을 이루어 앱을 개발하고 경진하는 국제 SW 경진대회이다. 2022년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 지원 절차

글로벌 협업과 SW 활용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국내 중·고등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 예선대회 참가를 위해 모든 지원자는 팀 별(학생 2명, 지도교사 1명) 지원 필수이며, 팀으로 지원하되 지원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1명당 1개씩 제출한다. 지원서는 홈페이지 "참가신청" 탭에서 게시물 "글쓰기"를 통해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업로드한다.

다. 활동 내용

제 8회 e-ICON 대회 지도교사 (2018. 6. 24.~30. 하와이주립대학교, 하와이)

02. e-ICON 세계대회

<http://e-icon.or.kr/ko>

가. 사업의 개요

e-ICON(e-learning International Contest of Outstanding New ages) 세계대회는 ODA 무상원조 사업으로, 개발도상국 학생 및 교사와 국내 학생 및 교사가 글로벌 팀을 이루어 앱을 개



두 국가씩 매칭된 4명의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다. 2018년 8회 대회는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되었다. 2022년 지금은 비대면으로 실시되고 있다.



앱 개발 경쟁 후에 학생들은 서로 어울리며 각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교 활동을 통해 문화 감수성을 높인다.

○ e-ICON 대회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부합하는 앱을 개발하는 학생 대회이다. 따라서 중·고등 교사가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지원한다. 나의 경우는 초등학교 교사이지만 좋은 기회가 되어 지역 내 중학생 2명을 인솔하는 지도교사로 대회에 참가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지원하는 것이어서 교사도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 소양이 있어야 한다.

내가 참가한 8회 대회는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과 회원국들 중 한 국가가 번갈아 가며 개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우리 팀은 한국 학생 2명, 하와이 현지 학생 2명 총 4명의 학생들이 한 팀이 되었다. 이 대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하와이에 있는 학생들과 대회 참가 전에 앱 설계에 대한 토의가 선행되어야 했는데 소통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메신저를 사용했기 때문에 소통할 플랫폼을 빨리 결정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중학생 아이들의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걱정은 기우였다. 학

생들이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언어로 쉽게 친해지고, 소통하였다. 나는 학생들이 대회 참가를 통한 경쟁에서 얻는 성취감보다 다른 국가 학생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03. APEC국제교육협력원 파견 <http://iace.re.kr>

#### 가. 사업의 개요

APEC 주요 회원국에 교사를 단기 파견하여, 현지 교사들의 역량을 개발시킨다. 워크숍 참여 및 팀별 활동 준비, APEC 주요 회원국 현지 파견 활동(회원국 교사 대상 ICT 활용 교수법 연수, 시범수업, 교육문화교류 활동)으로 진행된다.

#### 나. 지원 절차

4명의 교사가 자율적으로 팀을 이루어 알콕 봉사단 파견(ALCoB Internet Volunteer, AIV) 지원서를 제출하고 국제교육협력원이 4~5개 팀을 선정한다.

번호	파견국	파견 일정
1	필리핀	7.25.(수) ~ 8.1.(수)
2	파푸아뉴기니	7.25.(수) ~ 8.3.(금)
3	인도네시아	8.6.(월) ~ 8.12.(일)
4	베트남	8.14.(화) ~ 8.19.(일)

2018년 파견 대상국 및 파견 일정 :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파견 사업이 중지되어 있다.

## 다. 활동 내용

해외 교사 ICT 활용 연수 파견 / (2018.8.14.~19. 하노이, 베트남)



4명의 교사가 각각의 ICT 활용 수업 방법을 연수한다.



수업 기술뿐만 아니라 음식 만들기 등을 통해 교사 간의 유대감과 국가 간 이해를 도모한다.

○ APEC 국제교육협력원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국제교류 사업은 크게 알콕 협력프로젝트(ACP)와 APEC국제교육협력단 파견(AIV) 활동이 있다. ACP는 우편, 인터넷 플랫폼 등을 통한 문화교류활동이다. 주로 학급 단위 교류가 이루어지며 화상수업교류, 1대 1일 버디맺기를 통한 편지 교류, 전통 문화 소개 등의 활동을 하며 개인별로 년 초에 기관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선정되면 활

동을 전개한다. AIV는 4명씩 팀을 짜서 여름 방학 중 해당 국가에 1주일 정도 파견되어 현지 교사들에게 한국의 수업 기술을 전수한다. AIV는 국제교육협력원 교사 중에 4명이 자발적으로 팀을 이루어 지원하기 때문에 팀 매칭부터 까다로운 점이 있다. 4명의 팀원을 구성하는 것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협력단 컨퍼런스에서 적극적으로 매칭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통 AIV가

ACP보다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팀을 미리 구성하고 파견국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AIV 활동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ACP는 국가 간 파견이 아닌 활동이므로 현재도 진행 중이다.

나는 2022년도 필리핀 마닐라 J. P. Rizal 초등학교와 비대면 화상수업으로 ACP활동을 전개했다. 수업은 실시간 비대면 수업으로 총 6회 실시했다. ZOOM을 플랫폼으로 사용했으며 보통 4분할 화면을 구성했다. 3회의 수업은 내가 호스트가 되어 진행했고 3회는 필리핀 교사가 호스트가 되어 번갈아가며 한국과 필리핀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했다. 나는 첫 시간을 한글의 자음과 모음, 그리고 자음과 모음이 구성되는 원리를 소개했다. 다음 차시는 필리핀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게 하고, 한국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한글 단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시간은 한국 동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필리핀 교사는 필리핀의 문화, 역사, 필리핀 동요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3차시 수업을 구성하였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국제교류의 가장 큰 장애였던 물리적 거리를 극복시켜 주는

좋은 수단이 될 듯하다.

## 04.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https://cafe.naver.com/ki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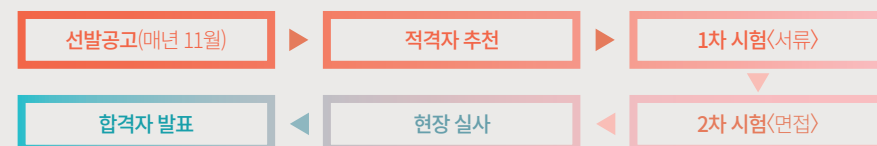
### 가. 사업의 개요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의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일시 체류 동포 자녀의 국내 연계 교육, 영주 동포 자녀의 모국 이해교육을 통해 한민족 정체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총 43개의 한국학교가 있으며, 이 중 이란(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젓다), 이집트(카이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캄보디아(프놈펜)는 2022년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교사를 선발하여 파견하고 있다.

### 나. 지원 자격과 절차

- **교육경력** | 현직 교육공무원으로, 초·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표시과목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외국어** | 인정 외국어 시험에서 만점의 6할 이상 점수를 득점한 사람
- **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 합격자
- **지원 절차**

▪ 지원 절차



## 다. 활동 내용

해외한국학교파견 / (2019.2.1.~2021.2.28. 프놈펜, 캄보디아)



교육과정은 한국의 교육과정을 따르나 사회 교과서는 지역 교과서를 자체 제작하여 활용한다.



한국인의 정체성과 현지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소양을 교육과정의 기본으로 한다.

○ 한국학교는 현지 교민들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다. 국내 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실천하며 교육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다. 매해 한국학교는 파견과, 초빙의 형태로 교사들의 지원을 받는다. 파견근무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모든 경력이 인정된다. 또한, 승진 가산점을 취할 수 있다. 한국에서 월급을 해당 교육청에서 지급받음과 동시에 현지 이사회에서 주는 체재비를 동시에 지급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이점이 있다. 다만, 파견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물리적으로 먼 곳이거나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초빙은 고용휴직 형태로 현지학교와 계약 근무 형태로 근무

한다. 파견 지역보다 생활 여건이 좋고 다양한 지역에 많은 학교가 있어서 선택의 폭이 크다. 주로 자녀의 교육을 위해 초빙 근무를 신청하거나 해외 생활의 경험을 갖기 위해 지원한다. 하지만, 보수를 국가에서 지급받지 못하고 현지 학교의 체재비만으로 생활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그리고 경력 산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파견과 초빙을 선택할 때는 이러한 점을 숙고하여 근무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문제로 파견 학교는 줄어가는 형태고 초빙 근무 지역이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다. 파견근무가 지리적 격리와 생활여건 때문에 매우 힘들 거라는 선입견과 달리 실제로 각 국가의 수도는 교육, 사

회, 경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생활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의 근무는 3년 이상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신의 교육 경험을 전개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교사로서 가장 심도 있는 국제교육교류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국제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해외 한국학교 초빙이나 파견근무를 꼭 해보시길 추천한다.

나는 캄보디아 프놈펜한국국제학교에서 근무했다. 교육과정은 한국의 교육 과정에 방과 후 수업이 통합된 형태로 한국과 거의 흡사하나 외국어 교육이 강화된 교육과정 형태이다.

학생들 가운데 한국인 아버지와 캄보디아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비율이 높았고 완벽한 한국어를 하는 학생부터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학생까지 다양했다. 언어 소통이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한 학년 단일 반 5명 정도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개별화 교육이 가능했다. 교육과정은 한국의 교육과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정보 기자재, 과학 실험 도구 등은 부족한 편이었다. 그러나 현지 학교에 비해 상대

적으로 좋은 교육환경과 교육과정 때문에 한국국제학교는 학부모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받았다. 학생들도 학교생활에 만족도가 높았고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거의 없어서 생활지도 측면에서는 거의 신경을 쓸 일이 없었다. 교사들은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아파트에서 주거했고 다수의 한인 마트와 한식당 등이 있어 크게 불편하지 않게 생활했다.

## 05. 해외 한국어 교사 수업 지원단 파견

<https://okeis.moe.go.kr>

### 가. 사업의 개요

2022년 교육부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학교에 한국의 교육시스템 및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수업 지원단을 모집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타슈켄트한국교육원에서 추진한 이 사업은 다른 국가 한국 교육원으로 사업 범위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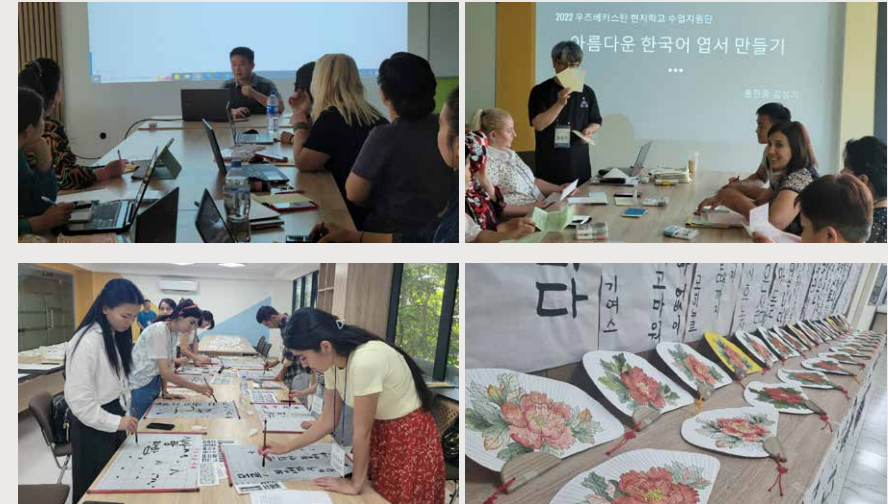
### 나. 지원 자격

- 우즈베키스탄 현지학교 한국어교사 연수 및 컨설팅을 지원할 초·중등교사 10명

구분	자격 및 기준
공통 조건	1.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2. 국내 체류자(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3. 각급 학교 현직교사 혹은 초·중등교원 자격 소지자 4. 해외 체류 결격 사유가 없으며 파견 기간 동안 해외 생활이 가능한 자 5. 단신 부임이 가능한 자 ※지원자 외 동반자에 대한 별도 지원 내역 없음

## 다. 활동 내용

해외 한국어 교사 수업 지원단 파견 / (2022.7.28. ~ 8.10. 타슈켄트 부천대학교, 우즈베키스탄)



선발된 10명의 교사가 2주 동안 자체 조직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분담 수업을 한다.

ICT활용,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서예, 민화 등 한국 교육과 전통 문화를 교육과정으로 조직한다.

○ 코로나 시국으로 거의 3년 동안 국제교육교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통제 가능한 정도에 이르면서 다시 대면 교류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듯하다. 2022년 8월에 교육부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수업 지원단’을 모집하였다. 이 사업은 급박하게 추진되었던 터라 교육부나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이 파견단에게 우즈베키스탄으로 출발하기 직전까지도 세세하게 교육과정 조직이나 수업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있던 교사들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2주 동안 이루어진 현지 파견단 활동은 현지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들었다. 이번 파견단 활동을 통해서 교사들에게 재량권을 주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교육교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9명의 교사들은 자신의 교과와 특기를 살려 ‘국어 엮서 만들기’, ‘오조봇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교육’, ‘오디오북 제작 방법’, ‘서예’, ‘민화’, ‘한국 전통 매듭과 한복’, ‘구글폼을 활용한 평가 방법’을 학습 주제로 강의했다. 나는 ‘이미지 편집부터 프레젠테이션, 코딩교육까지 팔방미인 PPT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수업하였고 ‘한

국의 IT 수업 기술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타슈켄트 교육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였다.

국제교류를 하는 교사들이 자기 개성이 강한 경우가 많아 종종 팀 내에서 의견이 충돌하는 때도 있다. 그러나 이번 파견에서 만난 교사들은 그들의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파견 기간을 열정과 배려로 채워주었다. 결국, 모든 활동은 사람에 대한 것이며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되새겼다. 파견 기간이 끝나고 함께 했던 교사들이 그리워진다는 것은 내게 우즈베키스탄 파견이 많은 프로그램 중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 06. 지자체 및 교육청 공모사업을 통한 국제교류

2022학년도 대상국 : 캄보디아, 필리핀

### 가. 사업의 개요

지자체 및 교육기관의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국제교류 사업을 실천할 수 있다. 송정동초등학교 국제교육교류 연구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안 행복체험 활동 동아리 지원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비대면 국제교류 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 **공모대상** | 광산구 초·중·고·특수학교 89개교 ※ 관내 학교 10개교 내외 선정
- **지원내용** | 학교안 행복체험 동아리 활동 지원(체험활동비, 재료비 등)

### ② 세부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추진시기
다문화 체험활동	• 다문화 음식 만들기 • 다문화 전통놀이 하기	7월, 10월
글로벌 친구만들기	• 1대 1 버디 맺기 • 편지 교환	연중
국제 문화교류	• 전통음악에 관한 화상 교류 수업 • 전통 문화재 소개에 관한 화상 교류 수업 • 한국 대중 문화 교류 화상 수업	연중
봉사활동 교류	• 재미장터 통한 모금 • 헌 교과서 수집 활동	11월
세계시민활동	• 자연환경 정화 활동 • 전통 공예품 전달	연중

○ 지자체나 교육청의 공모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국제교류를 실천할 수 있다. 송정동초등학교는 관할 구역 구청에서 공모한 “학교안 행복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에 국제교류사업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선정되었다. 실시간 비대면 화상교류수업을 주 활동으로 하면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다문화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학생들은 외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고 다문화 가정 대상국의 전통놀이와 전통 무용을

체험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연구회, 인문·역사 동아리,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회 등 공모사업을 국제 교류와 연계하여 실천할 수 있다. 송정동초등학교는 국제교류사업을 통해 교류 대상국인 필리핀과 캄보디아 학교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자료를 국제우편으로 전달하였다.

## 나. 지원 절차

### ① 지원서 예시

기관	기관명	송정동초등학교		
	대표자	직명 : 교장 성명 :	등록사항	등록부서 : 교무부
	홈페이지	http://songjeong-d.gen.es.kr	연락처	0
	소재지	(우편번호 : 62378) ※ 사암로 27번길 58 (신촌동 1035)		
해당연도 신청사업 개요	사업명	다가치 <b>韓</b> 마음 (국제교류 및 다문화 체험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부분)		
	사업(활동)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기간 2022. 4.1.~12.31</li> <li>• 장 소 송정동초등학교, 송정동 일대 및 온라인 수업</li> <li>• 대상인원 학생 94 명, 교사 7명</li> <li>• 주요내용 <b>다문화 체험활동, 국제교류활동 및 다문화 학생 진로 탐색</b></li> </ul>		
	사업비	6,000천원 (보조금+자부담)	보조금	3,000천원( 50%)
			자부담	3,000천원( 50%)
	사업 담당자	• 성명 : 안봉선 (직위 : 교사) • 휴대전화 :		• E-mail :
회계 담당자	• 성명 :		• 휴대전화 :	
전년도 보조금 신청·지원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다. 활동 내용

지자체 공모사업 비대면 국제교류 / (2022학년도 대상국: 필리핀, 캄보디아)



필리핀 학교와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발표하는 수업을 실천한다.



캄보디아 한국학교와 교류를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과 다문화 이해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수업을 진행한다.



필	리	핀	♥
File	Li	Pin	the Philippines
사	랑	해	요



## 07. 교육청 e-learning 세계화 교사단 활동

<http://iace.re.kr>

### 가. 사업의 개요

LEAD (리드)는 Leading Educators for Achieving e-learning Development의 약어로 17개 시·도 교육청 이러닝 세계화 사업 관련 교사연구회 통합 명칭이다. 교육정보화 기반 국제협력에 관심이 많은 시도교육청 재직 교사로 구성한다. 주요 활동은 대상 국가에 대한

연수강의, 교재개발, 국제교육문화연구, 컨설팅 등이다.

### 나. 지원 자격 및 절차

지원자격은 교육정보화 기반 국제협력에 관심이 많고, 교육봉사 활동에 열의를 지닌 각 교육청 산하 소속 교원으로 모집인원은 교육청별 20명이다. 주요 역할은 연수 강사, 컨설턴트 개발자, 연구자, 평가자, 연사로 지원은 각 교육청별 공문에 따른다.

## 다. 활동 내용

e-learning 세계화 교사단 / 2020학년도 대상국 : 탄자니아



세계화 교사단은 교육청별로 매칭된 해당 국가 교사단을 원격으로 연수한다.

세계화 교사단은 전국 교육청 합동 연수회와 자체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

○ e-learning 세계화 교사단 활동은 학년도 초에 각 교육청 공문을 통해서 지원서를 받는다. 중·고등 기술계열 교사나 정보교사가 주를 이룰 것 같지만 오히려 초등학교 교사가 과반인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IT 분야에 소양을 가진 교사가 지원하며 여기에 영어로 강의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주로 비대면으로 교류국 교사에게 IT 소양과 관련한 수업 기술을 지도하나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한글이나 K-CULTURE 내용을 프로그램에 포함하기도 한다. 따라서 꼭 IT 기능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지원하는 데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내가 소속된 광주광역시에는 아프리카 탄

자니아와 매칭되어 현지 교사들의 IT 소양과 수업 활용 역량 강화를 도왔다. 각 교사는 소프트웨어 코딩, 인공지능, 구글 클래스룸 운영, 드론, 파워포인트와 같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해당 국가 교사들을 지도하였다. 나는 캄보디아 파견근무 경험을 통해 국가별 IT 기기 보급률에 따라 컴퓨터보다 모바일 기기의 활용도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바일 휴대폰을 이용한 수업자료 만들기과 화상 수업 방법을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상대국 교사들에게 소개하였다.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교류국 교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대면으로 연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한국

교사가 해당 국가로 단기 파견되어 현지 교사를 지도할 수도 있다. 교육청별로 교류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좋다.

참고사이트

-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http://www.unescoapceiu.org>
-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https://asp.unesco.or.kr>
- 한국디지털교육협회  
<https://kefa.or.kr>
- APEC국제교육협력원  
<http://iace.re.kr>
-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kischool>
- 재외교육기관포털  
<https://okeis.moe.go.kr>

### III. 후속활동 운영방법

1. 교육교류 자체 운영을 위한 9단계 준비 과정
2. 국제교류 자체 운영의 절차



Jyoti RAHAMAN  
Angie TOH  
Reka TOZSA  
아시아유럽재단(ASEF)  
교육과

# 1. 교육교류 자체 운영을 위한 9단계 준비 과정

세계화는 교사교육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 동시대 교육 목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Zhao 1).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교육 역량 증진을 위한 국제 교사교류 프로그램은 전 세계 교사들 사이에서 더욱 각광 받게 되었다. 오늘날 국제 교사교류 프로그램은 세계 많은 지역에서 학교와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은 아시아 교사들에게 국제적인 교사 역량을 구축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교류 프로그램의 한 예라 하겠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은 APTE 기 참가교사들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향후 활동들을 수행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지속성 있는 효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장은 APTE 참가 교사들이 독자적으로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한층 넓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통찰과 수단을 제안한다.

## 성공적인 국제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위한 계획 및 준비

어떤 프로젝트든 적합하고 철저한 계획

은 성공적인 실행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교육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활동이며, 국제교육교류 프로그램의 설계는 다양한 단계에서의 뜻깊고 신중한 계획을 요구한다.

이 글은 APTE 참가 경험을 활용해 해외 학교들과 함께 수행할 독자적인 활동을 계획하는 APTE 기 참가교사들을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아래의 전반적인 계획 단계는 온라인 상호교류뿐 아니라 초청(협력교사를 국내로 초청하기) 및 파견해외로 나가서 가르침)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계획 단계들을 제시하는 주된 의도는 교사들이 독자적으로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주요 사안들과 관련해 중요한 통찰과 프레임워크 및 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이 계획 단계들을 통해 교사들에게 다양한 국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련 활동을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공하고자 한다.

## APTE 참가교사는 다음 9개 단계를 거쳐 후속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 1 프로그램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 분명한 목표 설정은 성공적인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제공한다.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교사는 육하원칙에 따라 다음의 기본 질문에 답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 ▶ 무엇이 대한 프로그램인가?
- ▶ 어디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가?
- ▶ 언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종료하는가?
- ▶ 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가?
- ▶ 누가 이 프로그램과 관련되는가?
- ▶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착수하는가?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교사는 계획 및 준비 단계에서 위와 같은 설명을 잘 활용하여 교류 대상 학교, 관리자, 후원기관에 자신이 희망하는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다.

교사는 희망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들을 명확히 한 뒤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목표에 대해 생각할 때 교사는 개인 차원의 목표와 조직 차원의 목표를 모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아래 예시는 교류활동의 성격, 참가 교사 및 학교에 따라 어떤 목표를 선택하고 매칭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Horvath 10).

### 교사 개인 차원의 목표:

#### 전반적인 학습/교육 목표는 무엇인가?

#### 이 교류 프로그램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익:

- 상호문화적 역량 향상과 국제학생에 대한 이해 증진
- 교수법 또는 교육학적 역량 향상
- 세계시민교육(GCED), 기후변화교육(CCE)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 습득
- 새로운 교육과정 또는 교과 외 활동 개발

#### 교사로서 전문성 개발의 결과는 무엇인가?

#### 이 교류 프로그램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익:

-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대인관계, 협력, 스트레스 관리, 상호문화적 이해)
- 나의 직업적 네트워크 확장, 다른 나라 교사와의 친분 구축
- 승진

### 조직 차원의 목표:

####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 어떤 부가 가치를 제공할 것이며, 학교 관리자는

#### 해당 프로그램을 왜 지지해야 하는가?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교사는 학교가 얻을 부가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의 학교/동료 교사들에게 미칠 유익에 대해서도 최소한 하나 이상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사는 프로젝트 이후에 그가 배운 것을 동료 교사들과 공유하는 데

힘쓸 수 있고, 학교에서 더 나은 수업 진행을 위한 협력 그룹을 조직할 수 있고, 우수 사례에 입각한 새로운 수업, 모듈, 활동을 도입할 수 있고, 학생 및 학부모, 그 외 이해관계자에게 학교의 국제 활동과 경험을 대외적으로 선보임으로써 학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학생들은 이 교류를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 학생들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으로 인한 유익을 얻겠지만, 교사들은 이에 더해 다른 나라 학교들과 함께 교류 대상 학교와의 학생교류 프로그램 발족이라는 목표를 세우거나, 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과 외 활동을 공동 개발할 수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자신의 목표가 충분히 ‘SMART’한지 반추해 보기를 권한다. SMART는 계획이 ‘구체적(Specific)인가, 측정 가능(Measurable)한가, 달성 가능(Attainable)한가, 현실적(Realistic)인가, 시기 적절(Timely)한가’를 묻는 다섯 항목의 앞 글자를 딴 단어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Specific)인가:** 광범위하고 일반화된 목표 대신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 것

이 더 좋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다 현실에 입각한 유의미한 프로그램이 된다.

**측정 가능(Measurable)한가:** 교사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의 측정 가능 여부를 반추해 보아야 한다.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면 프로그램 말미에 자신의 학습 결과뿐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의 학습 결과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달성 가능(Attainable)한가:** 목표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목표 내에서 달성 가능해야 한다. 목표가 성취 가능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전체가 수포로 돌아간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과 동료의 프로그램 수행을 편하게 여기고,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자신감을 갖고 프로그램에 임하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현실적(Realistic)인가:** 현실성은 성공적인 계획의 핵심이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자신과 동료의 역할, 책임, 자원을 이해함으로써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기 적절(Timely)한가:** 누구나 알다시피 시간은 엄수되어야 한다. 교사는 목표가 구체적인지, 측정 가능한지, 달성

가능한지, 현실적인지 반추하는 한편, 모든 목표의 시기적절성에 대해 계속 생각해야 한다.

**교사 개인 차원의 목표 예시**

**포괄적인 목표:** 해외교류를 함으로써 나의 교수법 또는 교육학적 역량 향상

**SMART한 목표:** 한국 중고등학교에서 2주짜리 수업교류 실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및 교사 역량 증진, 내가 소속된 학교 학생들의 세계시민에 대한 이해도를 최소 70% 향상

**기관 차원의 목표 예시**

**포괄적인 목표:** 우리 수업을 위한 우수한 학교교류 프로그램 수행

**SMART한 목표:** 교류 대상 학교의 동료 교사들과 협력하여 기후변화교육(CCE)과 그 문화적 맥락에 초점을 맞춘, 최소 50%의 학생이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6주짜리 가상수업 교류 프로그램 공동 설계

계획 첫 단계로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는 종합적인 프로그램 기획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프로그램 기획서는 간단하게, 앞에서 언급한 육하원칙(누가, 언

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추어 진술하고,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 위에 언급한 SMART한 목표를 포함한다. 교류 대상 및 후원기관에 접촉할 때 프로그램 기획서를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2 교류 대상 선정하기**

교육교류 프로그램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면, 시간을 갖고 교류 대상 후보들에 대해 조사한 뒤 누구에게 접근할지 제대로 결정해야 한다. 교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교류 대상 학교가 어떤 특징들을 갖춰야 하는지 숙고하고, 다음과 같은 특징에 따라 후보들을 점검해야 한다. 교류 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독특한 지식 또는 역량:** 특정 영역이나 교수법, 산업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강점이 분명한 국가나 학교들이 있다. 교육교류 프로그램의 목표가 그러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교수법을 습득하는 데 있다면 독특한 지식이나 역량을 갖췄다고 인정된 교류 상대를 찾아보는 편이 바람직하다.

**유사한 조건과 목표:** 규모, 전문 분야, 재

정 면에서 ‘우리 학교와 비슷한’ 해외 학교와 협업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선택의 결과다. 그런 학교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교사가 속한 기관과 공통된 목표 및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일견 비슷해 보여도 막상 문화, 관습, 기대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도 있다.

**파트너십 역사:** 어떤 학교들은 이미 해외 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은 이력이 있거나, ASEF클래스넷(ASEFClassNet),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ASPnet) 같은 국제학교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이미 협동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교사는 동료 교사 및 교장 등에게 도움을 청해서 주변에 교류를 원하는 해외 학교와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해본 사람이 있는지,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하는 파트너십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 이미 구축된 협력 관계에 대해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생활 환경:** 나라와 도시마다 생활방식, 음식, 어울리는 방법, 문화적 규범 등이 다르므로, 계획 단계에서 특수한 필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이런 사안들을 고려해 볼 만하다. 화폐 가치도 도시마다 다르

로 교사는 교류 대상 학교가 있는 도시의 물가가 어떤지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요소가 때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기준을 갖고 교류 대상을 찾든, 잠재적인 교류 대상의 필요와 동기를 생각해 보고 그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어할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독특한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사는 교류 대상을 선정한 후 상대방에게 연락해 미리 제작해 둔 프로그램 제안서를 공유할 수 있다. 제안서에는 이 파트너십의 본질적인 동기와 양측이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 상대방이 시간을 갖고 제안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향상을 위해 제안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야 한다.

### ③ 일정표 만들기

목표를 설정하고 잠재적인 교류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는 교사가 희망하는 교육 교류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을 담은 총설

한 일정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기를 권장한다. 일정표는 교사들이 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완수하고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일정표를 짜기 전에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학교들은 교내 활동으로 1년 내내 분주하며 나라마다 학사 일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견을 받는 기관과 보내는 기관 교사 모두에게 유효한 일정표를 짜는 것이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핵심이다

교류 프로그램 일정표 초안을 짤 때 고려할 만한 일정표 구성의 한 예로 **부록1**을 참조하라. 해당 예시는 완성된 일정표가 아니며, 교류 형태(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변형될 수 있다. 점검 목록을 만들어 두면 업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파악할 수 있고, 특정한 요구사항들과 산출물을 식별하고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④ 핵심 프로그램 활동 계획하기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교류 대상 선정과 희망 교육교류 프로그램 일정표를 확정 한 다음, 교사는 동료와 의논하여 교류기

간 동안 실행할 핵심 프로그램 활동을 고안해야 한다. 교류 프로그램은 3일짜리 부터 6개월짜리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우리는 프로그램 전반의 정해진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편을 추천한다. 이때, 아래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활동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래 제안하는 프로그램들은 교사교류와 학생교류 프로그램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아이스브레이크 활동:**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사람들이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흥미롭고 참여를 유도하는, 의미 있는 아이스브레이크 활동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아이스브레이크 활동을 고안할 때 교사는 해당 활동이 문화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언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현지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이스브레이크에 정해진 답은 없으며, 교사는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다. 아래의 아이디어 목록은 교사가 참고할 만한 간단하고도 의미 있는 활동들이다.

**교사교류에만 추천하는 활동:**

• **‘왜’에 대해 생각하기:** 프로그램 첫날, 참가자들은 자신이 교류 프로그램을 하게 된 이유와 더불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소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참가자들은 ‘왜’라는 질문에 대답할 때 활동에 임하는 자신의 사명을 한층 수월하게 표현하게 되고, 서로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으며, 활기찬 분위기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다.

• **새로운 통찰 공유하기:** 이 프로그램을 계획한 교사는 자신이 속한 나라/학교의 재미있는 점 등을 소개할 수 있다.

• **바람과 염려 공유하기:**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각자 바라는 점 하나와 우려하는 점을 하나씩 소개할 수 있다.

• **핵심 교육가치:** 교사 참가자들은 자신을 정의하는 핵심 교육가치를 하나씩 나눌 수 있다.

**교사교류와 학생교류 모두에 추천하는 활동:**

• **첫인상:** 참가자들이 (교류 상대, 상대방이 속한 나라와 학교, 교사 동료, 학생, 음식을 포함해) 무엇에 대해서든 첫인상이 어땠는지 공유할 수 있다.

• **현지 유래 게임:** 참가자들은 상황에 맞는 현지의 간단한 교육 게임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계획한 교사는 적절한 게임이 있는지 교류 상대국 교사에게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 **현지에서의 재미있는 활동:** 참가자들은 새로운 나라에 있는 동안 재미있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

• **추측 게임:** 새로운 환경에서 교류하는 참가자들은 효과적인 아이스브레이크를 위해 추측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 설립 연도 맞추기, 주최국을 대표하는 음식/게임/동물 맞추기 등이 있다.

**주요 주제에 관한 교수 및 학습활동(교사교류 프로그램에만):**

교사들 대부분은 자기 전공이 있고 특정 주제를 가르치지만 세계시민교육(GCED), 기후변화교육(CCE),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등 교차 개념들에 중점을 두면 유익하다. 이런 역량들을 참가자들의 국내외 문화적 맥락 내에서 구축하면 유용하다. 수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GCED에 관한 핵심 자료들을 제안한다. 이 자료는 교사가 시기 적절하고 타당한 국제 교수 및 학습목표와 활동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GCED 학습 목적과 목표에 관한 유네스코 보고서」(2015)는 유네스코 웹사이트<sup>3)</sup>에서 열람 가능하다).

**팀워크 활동 :** 누구도 혼자서 성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일부로 팀워크를 구축하는 활동은 매우 유용하다. 교사는 APTE 프로그램 참가 당시 자신에게 유용했던 팀워크 활동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이를 자신의 프로그램에 맞춰 적용해볼 수 있다. 팀워크 활동은 다문화적 맥락에서 특히 유용하다. 위에서 언급한 아이스브레이크 활동 몇 가지를 팀워크 활동에 고려해볼 수 있겠다. 팀워크 활동을 몇 가지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 한 팀으로서의 장점과 약점 나누기
- 한 팀으로서의 기대 나누기
-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함께 지역 음식을 만들어서 소풍 가기
- (모두가 재미있어 하고 편하게 참가할 수 있는 스포츠/퀴즈/활동에 기반한) 대회 열기

**현지의 문화 활동 체험/명소 방문:** 박물관, 유적지, 현지 교육기관, 도서관, 훈련기관 등 현지에서 중요한 장소를 직접 경험하는 것을 통해 가장 값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활동은 팀워크 활동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에 통합될 수 있다.

**상호문화적 활동:** 상호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면 자신이 속한 문화와 다른 배경을 탐구하면서 상호문화적 기술을 구축할

수 있어 상당히 만족스럽고 심도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이 활동도 팀워크 활동의 일환일 수 있다.

**평가 및 피드백 활동:** 프로그램 성과와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초기 현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항상 유용하다. 프로그램에 착수하기 전에 교류 프로그램의 어떤 측면을 평가해야 하는지 생각해 두면 교사는 유의미한 결과와 향후 개선을 위해 어느 영역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된다.

**활동 수행의 도구 및 자료 고려:** 활동을 실행하려면 교사는 필요한 도구와 자료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예산과 전반적인 프로그램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상식/폐회식/증명서 수여 활동:** 적절한 인정과 폐회식 없이 프로그램을 끝내면 불완전한 활동이 될 것이다. 교사는 현장 프로그램을 종결하는 작별/감사 선물과 시상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⑤ 예산 준비 및 자금 조달처 구하기**

교사는 국내, 국외, 온라인, 복합 교류 등 해당 교류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상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GCED 학습 목적과 목표에 관한 유네스코 보고서」(2015):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32993>

**대면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에서 고려할 예산 항목**

**여행 비용 :** 교사는 항공비, 보험,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필요시 비자 발급 비용까지 생각해야 한다. 비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학생 교류 프로그램일 경우 대사관에 비자 비용 면제를 요청해볼 수 있다. 단거리 여행을 할 때는 가능하면 비행기보다는 대중교통, 기차, 버스를 우선 선택하는 등 최대한 지속가능한 방식의 여행을 고려해야 한다(예: 1시간짜리 비행 지양하기).

**숙박비:** 이 항목에 대한 자금 해결 방법 중 하나는 파견을 받는 학교를 통한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ASEF클래스넷 참가교사 대부분은 학교 교류 프로그램 숙박을 홈스테이 컨셉으로 구성했다. 이렇게 하면 다른 항목의 예산이 빠듯할 때 최소한 숙박비라도 해결할 수 있다.

**생활비:** 교사는 목표 도시에 머무는 동안 드는 일일 생활비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 이 비용에는 식당 또는 학교 구내식당 비용(파견을 받는 학교에서 어떤 식사도 제

공하지 않을 경우), 지역 내 교통비, 소정의 사고비용, 교육 연구, 문화적 활동에 드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sup>4)</sup>들이 있다.

**선물/상품:** 필수는 아니지만 교류 상대방의 동료, 책임자, 학생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물건으로 작은 성의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디지털 형식으로 된 것도 좋다. 디지털 형식은 예산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있다.

**예비비:** 어떤 경우든 교사는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이나 예산에 기입한 항목의 비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에서 10~20%의 예비비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에서 고려할 예산 항목**

**소프트웨어:** 계획된 활동의 유형에 따라 교사는 온라인 회의 플랫폼(Zoom, MS Teams), 설문 프로그램(Mentimeter, Slido), 협업 도구(Padlet, Mural), 문서 공유 및 저장 도구(GoogleDocs, Dropbox) 등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앱이 이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설비와 디지털/기술장비:** 온라인 교류에 참가하는 교사 및 학생은 반드시 시청각 장비가 갖춰진 교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시 학생은 노트북이나 PC를 사용해야 한다.

**교수 및 홍보자료:** 학문적 성과는 교류에 참가하는 교사/학교가 제공할 것지만 프로그램을 계획한 교사는 프린트물 출력 비용, 우편 요금, 문구류 구입 비용, 필요시 온라인 배너나 그래픽 디자인 같은 홍보자료 제작 등 자료 배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국내/국외/온라인 등) 다양한 교류에 필요할 수 있는 물품 목록 예시는 **부록2**를 참조하라.

모든 물품과 수량에 대해 근거 있는 예산이 확실해지면 교사는 후원자 및 후원기관에 제출할 후원 제안서를 준비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 그리고 이 목표가 어떤 식으로 후원기관의 사명과 이전에 부합하는지 설명하는 문서를 간단히 작성한다. 무엇보다도 후원기관이 관심을 기울이는 효과를 창출하는 것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일부 교육부처는 국제교사훈련 및 개발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둔다.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교사가 속한 나라와 교류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가 속한 나라 간에 상호 파트너십이 있거나, 두 국가 및 그 외 다른 여러 나라들 간의 다자간 합의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런 기회가 있을 경우 교사는 적절한 관계 당국 또는 기관에 접근해 자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후원을 받을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금 지원책을 찾고 파견을 받는 학교와 파견을 보내는 학교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또는 교사/학생 교류를 지원하는 자선 사업가나 기관도 있다. 민간 조직으로부터 후원을 구할 때 학교는 해당 기관이 어떤 부문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들이 그런 계획을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다. 후원이 반드시 재정적 지원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현물 지원 형태의 후원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4) 관련 웹사이트 예시: <https://www.rome2rio.com>



## ⑥ 합의문에 서명하기

양측이 프로그램 목표, 일정표, 예산, 활동에 대해 상호 동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관계 당사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개괄한 합의문에 기입해야 한다. 이 때, 교사, 파견을 보내는 기관, 파견을 받는 기관 모두 문서에 서명하는 형식의 삼자동의서(three-party agreement)를 추천한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은 교류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음 여섯 항목에 해당될 수 있다.

### 1. 전반적인 준비

이 항목에서 각 당사자는 교류의 목표, 계획된 교류 기간, 교류 형식(물리적 교류, 온라인 또는 복합교류), 파견을 보내는 기관, 파견을 받는 기관, 제시된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다.

### 2. 연락 및 협력

이 항목에서 각 당사자는 교류활동 및 전반적인 과정, 문제 또는 동의내용의 변화에 대한 소통방식을 감독하는 연락 책임자를 명시할 수 있다.

### 3. 지원 약속

이 항목에서 각 학교가 맡은 모든 재정/현물 지원에 대해 명시할 수 있다. 파견을 받는 학교는 교사를 위한 장

학 지원 또는 숙박, 식사, 현지 교통카드 같은 현물 협찬을 약속한다. 파견을 보내는 학교 또한 교사/학생 교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거나 교류기간 동안의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다. 필요시 동의서에 부록으로 예산 지원을 첨부할 수 있다. 온라인 교류의 경우 어떤 기술도구/장비/소프트웨어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 4. 홍보

홍보는 교류를 촉진하고 교사 및 참여 학교의 업적과 성취에 대한 이정표를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항목에서 합의 당사자들은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기술한다.

### 5. 보고

교류 이후의 보고는 내부용이든 외부용이든, 교류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항목에서 합의 당사자들은 보고 목표를 위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일례로 교류프로그램 말미의 통합 피드백(교사, 학생 또는 학교) 자료 등이 있겠다.

EU의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 프로그램

은 훌륭한 교사교류 합의문 템플릿을 웹사이트<sup>5)</sup>에서 제공하고 있다. 부록3은 ASEF 클래스넷 프로그램에 기반한 학생 교류 프로그램의 예시이다.

## ⑦ 소통계획 준비하기

어떤 프로그램이든 소통은 성공적인 실행 및 홍보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강력한 소통 전략은 프로젝트 관련 파트너, 후원자, 대중에게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목적의 진행 및 성공 현황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목표와 가치 또한 선보이는 토대이다. 신뢰 구축을 위한 어떤 활동이든 그 효과와 가시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따라서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교사는 소통 전략 설정과 홍보 활동 일정을 정하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다.

MS 엑셀 파일을 사용해 여러 당사자들과의 소통의 형태, 빈도, 수단, 소셜미디어 이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소통계획을 손쉽게 짤 수 있다. 아래에서는 효과적인

소통 및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세 가지 영역을 제시한다.

### ▶ 내부 소통:

명확한 소통과 업데이트는 오해를 피하는 핵심이다. 이 모든 소통을 사전에 계획해 두면 필요할 때 관련 당사자들을 모두 개입시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내부 소통용 질문들을 잘 생각해 두어야 한다.

- 파트너, 후원자, 그 밖의 참가자들과 얼마나 자주 소통해야 하는가?
- 어떤 정보 업데이트 사항을 어느 당사자와 언제 공유해야 하는가?
- 효과적인 내부 협력을 위해 어떤 소통 수단/플랫폼(WhatsApp 그룹채팅, 페이스북 그룹, 이메일, Zoom 링크)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 ▶ 외부 소통:

교육교류를 위한 출국은 흥미롭고 유의미한 기회다.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적인 소셜미디어 노출과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이 창출한 효과를 더 많은 대중에게 부각시킬 수 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

5) 합의문 템플릿: <https://erasmus-plus.ec.europa.eu/resources-and-tools/mobility-and-learning-agreements>

시대에 살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공유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게 우리의 활동을 부각시키는 데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교사는 매주 게시글 업데이트, 블로그 게시글 작성, 영상 업데이트, 기록물 등 소셜미디어 활동 계획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 **의사소통 수단과 플랫폼 :**

마지막으로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 및 플랫폼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사가 소통 및 그룹작업을 위해 페이스북이나 지메일을 사용하고 싶는데 파견을 받는 학교에서 이런 소통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거나 이를 선호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수단을 찾아 사용해야 할 것이다.

⑧ **위기 예측 및 원안 검토하기**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교사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지만, 아무리 신중하게 계획한 활동이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실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위기 요소에 대해 생각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예상하고, 잠재적인 해결책을 사전에 생각해 두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렇게

해도 모든 위기와 문제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은 아니기에, 교사는 위기와 조치라는 면에서 항상 기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유연한 마음가짐을 갖춰야 문제를 해결하고, 융통성을 발휘하고, 필요할 때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 가지 유의미한 방법은 과거의 경험을 숙고해 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창출했는지 상상하는 것이다. 효과적이고 기민한 대처를 위해 교사들이 고려해볼 만한 위기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표1)

이와 관련해서는 **부록4** 위기 기록 템플릿을 참고하라.

⑨ **보고하기**

거의 모든 경우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교사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뒤 후원기관과 상사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설령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 후속 단계의 말미에 보고 시간을 계획하는 것은 언제나 현명하고 실리적인 조치다.

보고는 단지 후원기관에 제출할 의무사항일 뿐 만 아니라, 교사가 수행한 프로그

(표1)

잠재적인 위기	잠재적인 해결책
<b>건강과 관련된 위기</b> • 팬데믹 관련 공중보건 조치 • 입국을 위한 백신 접종 의무 및 권장 • 사고, 질병	해당 국가/지역의 공중보건 상황에 대해 조사, 행정 준비, 적절한 백신 접종  보험 가입, 비상연락망, 현지 비상연락 목록, 대사관에 등록(목적지 국가에 대사관이 있을 경우)
<b>프로그램 설계와 관련된 위기</b> • 참가자들의 언어 구사 능력 부족 • 참가자가 온라인 활동에 무사히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전자기기 사용능력 부족 • 받는 기관의 전자기기 시설 미비 • 명소 방문 및 체험학습 관련 문제 상황 발생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관련 역량을 갖춘 참가자 선정  역량 차이를 메울 필요가 있다면 실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사전 연수교육을 할 수 있음  시설 및 방문 장소 관련 문제를 점검하고, 필요한 모든 도구 및 장비를 사전에 준비
<b>문화와 관련된 위기</b> • 대상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 부족 • 문화적 충격 • 문화적 규범과 기대 관련 문제	받는 학교에 현지 문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요청, 자기 문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기  ‘해야 할 일/하면 안 되는 일’ 목록을 마련해 문화적 인식과, 젠더, 인종, 나이 등의 차이에 대한 이해 높이기

램에 대해 되새기고 교육 성과와 프로젝트의 효과를 내면화하는 데 유용하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뒤 프로그램의 효과에 초점을 두어 그 효과를 다양한 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후속 보고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안내 요소와 질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성취 및 결과**

- 당신이 이 프로그램에서 얻은 주요 성취는 무엇인가?
- 그것이 당신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CPD) 목표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 그것이 학생의 역량 향상에는 어떻게 기여했는가? [학생/학교교류의 경우]

**2. 대상그룹 및 접근**

- 당신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어떤 대상그룹에 접근했는가?
- 각 그룹에는 몇 명의 인원이 있었는가?

(표2) 대상그룹 및 접근

그룹명	그룹 설명	그룹인원
예시: 학생	[국가명 및 받는 학교명] 8학년 교사/학생	10
예시: 교사	[국가명 및 받는 학교명] 8학년 지리교사	2

### 3. 실행

- 프로그램의 목표를 성취하였는가?
-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 당신은 이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결과에 만족하는가?
- 실행된 모든 활동은 당신이 프로그램 목표를 성취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 원활하게 진행된 것은 무엇인가?
- 핵심적인 어려운 점 몇 가지를 들면 무엇인가?
-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면 무엇을 다르게 해 보겠는가?

### 4. 홍보 및 인지도

- 이 프로그램에 대해 국내외 홍보는 어떻게 진행했는가? 관련 링크가 있다면 링크를 삽입하라.
- 이와 관련해 가시적인 수치와 문서가 있다면 공유하라. (해당하는 경우)

### 5. 역할, 책임, 파트너십

- 프로그램의 여러 단계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신이 담당한 주요 역할 및 책임을 간단히 개괄하라.

- 프로그램의 여러 단계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 파트너가 담당한 주요 역할 및 책임을 간단히 개괄하라.
- 당신은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했는가? 파트너십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하는 점은?
- 프로그램 파트너와 향후에도 협력할 계획인가?
- 파트너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가? 있었다면 그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다르게 해 보겠는가?

### 6. 미래 계획과 지속가능성

- 이번에 실행한 프로그램에서 당신이 성취한 결과와 자료를 장래에 어떻게 이용할 계획인가?
- 다음 번 교류에서 다르게 해 보고 싶은 점이 있는가? 있다면, 이유를 설명하라.
- 완료된 교류 활동, 성과, 효과에 대해 참여 교사로서 APCEIU에 어떻게 알리고 업데이트할 계획인가?
- 당신은 교사교류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수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다른 APTE 기 참여교사들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가?

### 결론

어떤 활동을 하든 신중한 계획과 준비는 어려운 과정이고, 흥미진진한 동시에 벅찬 일일 수 있다. APTE 참여교사들이 교사교류 또는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철저히 계획 및 준비할 때, 앞서 언급한 아홉 단계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단계들은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교사들에게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사들의 계획 및 진행 과정 전반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이 단계들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제시했지만, 여러분이 융통성 있게 독창적으로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를 적극 권장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ASEFClassNet School Collaborations and Programme Activities. <https://asef.org/programmes/asef-classroom-network-asef-classnet/>
- Erasmus+Programme. "Mobility Agreement for Staff Mobility for Teaching," 2022. [https://erasmus-plus.ec.europa.eu/sites/default/files/2021-09/mobility-agreement-teaching\\_en.pdf](https://erasmus-plus.ec.europa.eu/sites/default/files/2021-09/mobility-agreement-teaching_en.pdf)
- Horváth, L. *Quality & Impact Tool for Teaching Mobility Assessment*. Budapest: ELTE Eötvös Loránd University Department of Erasmus+ and International Programmes, 2022. [https://uni-foundation.eu/uploads/2020\\_TWE\\_Impact\\_Tool.pdf](https://uni-foundation.eu/uploads/2020_TWE_Impact_Tool.pdf)
- Zhao, Yong. "Preparing Globally Competent Teachers: A New Imperative for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 61, no. 5 (2010): 422-431. <https://doi.org/10.1177/0022487110375802>

**부록1-1. 점검목록 샘플 (교사교류용)**

교사교류	초청	파견	온라인
<b>계획 (3~6개월 전)</b>			
목적 •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 설정	✓	✓	✓
제안 • 목표, 일정, 프로그램 초안을 포함한 제안서 작성	✓	✓	✓
승인 • 협력기관, 후원자 및 자금 지원 모색에 앞서 관리자 승인 받기	✓	✓	✓
예산 • 예산 견적 준비하기 • 자금 또는 후원금 확보	✓	✓	✓
교류 상대 • 교류 상대 찾고 확정하기 • 교류 때까지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소통하기, 상대방의 참여를 유도하고 최신 정보 제공하기	✓	✓	✓
<b>준비(2~3개월 전)</b>			
합의 • 참가자들의 임무와 책임에 관한 세부사항 합의문 준비 및 승인 • 합의한 내용 승인(계약)	✓	✓	✓
이동 및 체재 • 비행기표, 숙박 예약 • 보험 및 그 외 특수한 필요사항 준비 • (필요시) 비자 신청하기	✓	✓	
<b>프로그램 실행(2일~6개월)</b>			
내용 • 교류 계획 실행에 필요한 내용 준비하기 (예: 수업계획, 웹 세미나, 자료 등)	✓	✓	✓
기술 • 필요한 장비 구비 및 설치 확인하기 • (필요시) Zoom, MS Teams, Mentimeter, Slido 등의 앱/프로그램 이용권 사전 구매			✓
파트너십 • 교류 첫날 프로그램 소개 준비하기 • 교류상대와의 관계 관리하기 • 프로그램 실행 중 향후 협력을 위한 잠재적인 교류 상대 (선생님, 관리자 등) 탐색	✓	✓	✓
보고받기 • 교류 말미에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 준비하기	✓	✓	✓
<b>실행 이후 (1~3개월 후)</b>			
보고하기 • 관련 문서와 함께 보고서 준비하기 • (필요시) 후원자/자금 제공자 측에서 요구하는 재정 결산 및 보고서 준비하기	✓	✓	✓
평가 (교사/학생 및 교류 상대방으로부터의 피드백 포함)	✓	✓	✓
홍보 •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 활동 준비(공식 소셜미디어, 학교 웹사이트, 뉴스레터, 교지 등에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 게재 등) • (필요시) 지역 매체/기자과 접촉	✓	✓	✓

**부록1-2. 점검목록 샘플 (학생교류용)**

학생교류	초청	파견	온라인
<b>계획 (3~6개월 전)</b>			
목표 • 교류 프로그램의 분명한 목표 설정	✓	✓	✓
제안 • 목표, 일정, 프로그램 초안을 포함한 제안서 작성	✓	✓	✓
승인 • 협력기관, 후원자 및 자금 지원 모색에 앞서 관리자 승인 받기	✓	✓	✓
예산 • 예산 견적 준비하기 • 자금 또는 후원금 확보	✓	✓	✓
교류 상대 • 교류 상대 찾고 확정하기 • 교류 때까지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소통하기, 상대방의 참여를 유도하고 최신 정보 제공하기	✓	✓	✓
학생 선정 •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 물색 및 선발 • 학부모와의 소통 및 학생 참여 허락 받기		✓	✓
교사&학생 자원봉사자 • 학생교류 실행을 도울 교사와 학생 확보하기	✓		
<b>준비(2~3개월 전)</b>			
합의 • 참가자들의 임무와 책임에 관한 세부사항 합의문 준비 및 승인	✓	✓	✓
위원회 조직 • 학교 내 위원회를 조직해 교류 준비 과정에서 도움 받기 • 위원회 구성원 각자에게 프로그램 안내 및 역할과 책임 부여 • 위원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간 회의 조직하기	✓	✓	
이동 • 비행기표, 숙박(호텔/호텔/호텔) 예약 • 보험 및 그 외 특수한 필요사항 준비 • (필요시) 비자 신청하기 • 장소, 입장권예약, 환영행사용 출장요리 서비스, 이동수단 등 예약 (해당될 경우) • 버스 대절 - 공항 이동 등 교통수단 마련(해당될 경우)			✓
출장요리 • 학생들을 위한 식사 관련 요구사항 수집	✓	✓	
<b>프로그램 실행 (7~14일)</b>			
내용 • 교류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내용 (수업계획, 웨비나, 자료,현장 방문 등) 준비하기	✓	✓	
기술 • 필요한 장비 구비 및 설치 확인하기 • (필요시) Zoom, MS Teams, Mentimeter, Slido 등의 앱/프로그램 이용권 사전 구매			✓
파트너십 • 교류 첫날 프로그램 소개 준비하기 • 교류상대와의 관계 관리하기 • 프로그램 실행 중 향후 협력을 위한 잠재적인 교류 상대 (선생님, 관리자 등) 탐색	✓	✓	✓
교사&학생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를 위한 일간 브리핑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 제공 • 필요시 교통수단, 물품 등 제공	✓		
보고받기 • 교류 말미에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 준비하기	✓	✓	✓
<b>실행 이후 (1~3개월 후)</b>			
보고하기 • 관련 문서와 함께 보고서 준비하기 • (필요시) 후원자/자금 제공자 측에서 요구하는 재정 결산 및 보고서 준비하기	✓	✓	✓
평가 (관리교사, 학생 및 교류 상대방으로부터의 피드백 포함)	✓	✓	✓
홍보 •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 활동 준비(공식 소셜미디어, 학교 웹사이트, 뉴스레터, 교지 등에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 게재 등) • (필요시) 지역 매체/기자과 접촉	✓	✓	✓

**부록2. 잠재적인 예산 목록**

• 초청교류 (해외 파견단 받기)

항목	설명
숙박	교사(호텔/호텔/기숙사 등) 학생 (희망 가정의 협력이 있는 경우, 홈스테이 등)
공항 이동 (필요시)	해외 파견단을 태울 버스 대절 (왕복)
환영회	환영회 또는 해외파견단을 위한 점심/저녁식사, 출장요리 서비스 포함 (해당될 경우)
일상적인 비용	식당 또는 학교 구내식당 비용(주최 학교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교통비, 그 외 사고, 교육 연구, 문화적 활동 등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 등
문화행사	전통의상 및 국가 특색이 드러나는 물품 대여
선물/기념품	파견단을 위한 선물/기념품준비
교습 및 홍보자료	프린트를 출력 비용, 우편 요금, 문구류 구입 비용, 필요시 온라인 배너나 그래픽 디자인 같은 홍보자료 제작 등 자료 배포와 관련된 비용
사무비품	기본적인 상비약, 프린트물 출력, 우편요금, 문구류 등
예비비	비용 증가 또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 지출에 대비한 예산 총액의 10~20%

\* 위 항목들은 완결된 목록이 아니며 교류의 성격과 요건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파견교류(교사/학생 보내기)

항목	설명
항공료	교류 도시/국가로 향하는 파견단 항공료
비자 (필요시)	경유 도시를 포함한 방문국가가 비자를 요구할 경우
여행자보험	파견단 여행기간 동안 적용될 여행자보험
숙박	학생 및 교사를 위한 숙박(호텔/호텔/홈스테이)을 파견단을 받는 국가/학교에서 처리하지 않는 경우
현지 교통비 (필요시)	집-공항 간 왕복 교통수단 (파견단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선물/기념품	파견을 받는 학교를 위한 선물/기념품 준비
교습 및 홍보자료	프린트를 출력, 우편 요금, 문구류, 필요시 온라인 배너나 그래픽 디자인 같은 홍보자료 제작 등 자료 배포와 관련된 비용
사무비품	기본적인 상비약, 프린트물 출력, 우편요금, 문구류 등
예비비	비용 증가 또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 지출에 대비한 예산 총액의 10~20%

\* 위 항목들은 완결된 목록이 아니며 교류의 성격과 요건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온라인 교류

항목	설명
소프트웨어	Zoom/Teams 또는 그 밖의 비대면 회의 도구 Mentimeter/Slido 등 온라인 설문도구
설비 및 디지털/기술기자재	PC / 노트북 /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등
교수 및 홍보자료	프린트물 출력, 우편 요금, 문구류, 필요시 온라인 배너나 그래픽 디자인 같은 홍보자료 제작 등 자료 배포와 관련된 비용
사무비품	프린트물 출력, 우편 요금, 문구류 등
예비비	비용 증가 또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 지출에 대비한 예산 총액의 10~20%

\* 위 항목들은 완결된 목록이 아니며 가상교류의 성격과 요건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온,오프라인 복합 (하이브리드) 교류(해당될 경우)

온,오프라인 복합 (하이브리드)교류를 위한 예산 목록은 위 초청/파견/온라인 교류 목록에서 발췌할 수 있음.

부록3. 프로젝트 합의문

A학교 로고
B학교 로고

## 프로젝트 합의문

본 프로젝트 합의문은 [글자로 기입한 날짜] ([숫자로 기입한 날짜])에  
**A학교 이름(학교 정식 주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및 직함, 이하 “학교 정식명칭 또는 축약된 명칭”)**과  
**B학교 이름(학교 정식 주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및 직함, 이하 “학교 정식명칭 또는 축약된 명칭”)** 사이에 합의된 문서이며,  
 이 두 학교는 이하 ‘교류학교들’로 지칭된다.

교류학교들은 (기관명의 후원을 받아) **YYYY년** 교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류프로젝트명”**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로 지칭)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및 도시 등 지역명에서 **프로젝트 기간**동안 실행 및 실시될 것이다.

교류학교들은 다음 약관을 기반으로 동의서에 합의한다.

**A 학교**는 다음 사항을 책임지며 본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교류 교사/학생을 위해 해당 학교가 책임지는 전반적인 내용 기입]**

**B 학교**는 다음 사항을 책임지며 본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교류 교사/학생을 위해 해당 파견을 받는 학교가 책임지는 전반적인 내용 기입]**

본 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협력 범위(별첨 1) 참조.

본 동의서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류학교들은 최선을 다해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 동의서와 관련된/관련되지 않은 논쟁이나 의견 차이가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해당 문제는 양자가 상호 합의한 중재기관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A학교(학교명 명시)**의 대표자로서 동의합니다:

\_\_\_\_\_

성명  
직책  
날짜

**B학교(학교명 명시)**의 대표자로서 동의합니다:

\_\_\_\_\_

성명  
직책  
날짜

별첨 1: 협력 범위    별첨 2: 예상 비용

• 별첨 1: (참고자료, 지침 용도에 한함)

항목	번호	교류 참여 학교 간 공동 책임	번호	A 학교의 책임(파견을 보내는 학교)	번호	B학교의 책임 (파견을 받는 학교)
1. 전반적 준비	1.1	[행사 준비를 시작하기 위한 전반적인 준비 사항에 대해 기술할 것. (예: 매주 온라인 회의로 준비작업 진행 상황 업데이트하기)]	1.2	[예시: 파견을 보내는 학교의 구체적인 책임을 주제로 제시]	1.3	[예시: 파견을 보내는 학교의 구체적인 책임을 주제로 제시]
2. 연락 및 협력	2.1	[교류활동 및 전반적인 과정, 문제 또는 변동사항에 대한 소통방식을 감독하는 연락 책임자 명시]	2.2	[예시: 책임자 이름 및 직책 나열. 1인 이상일 수 있음]	2.3	[예시: 책임자 이름 및 직책 나열. 1인 이상일 수 있음]
3. 금전적 지원	3.1	[교류 학교들의 재정 또는 현물 후원 명시] 별첨 2 참조	3.2	[예시: 교사/학생 교류에 대한 재정적 지원 또는 교류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 온라인교류의 경우 어떤 기술설비/장비/소프트웨어가 필요한지 확인]	3.3	[예시: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카드 등. 온라인 교류의 경우 어떤 기술설비/장비/소프트웨어가 필요한지 확인]
4. 홍보 (해당될 경우)	4.1	[교류 프로그램을 위한 홍보전략과 홍보 실행 일치]	4.2	[예시: 교류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학교가 할 일 명시. 학교 웹사이트 또는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물 업로드 등]	4.3	[예시: 교류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학교가 할 일 명시. 학교 웹사이트 또는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물 업로드 등]
5. 보고	5.1	[프로젝트 종결 보고를 위해 피드백 등의 정보 공유 및 통합]	5.2	[예시: 보고 목적을 위해 필요한 문서 명시. 일례로 교류프로그램 말미의 통합 피드백(교사, 학생 또는 학교) 자료 등]	5.3	[예시: 보고 목적을 위해 필요한 문서 명시. 일례로 교류프로그램 말미의 통합 피드백(교사, 학생 또는 학교) 자료 등]

• 별첨 2: 예상 비용

**프로젝트 제목**  
**날짜/국가 및 지역(도시명 등)**

A 학교 (파견 보내는 학교) 항목		예산 / 결산 (현지통화 기준)	B 학교 (파견 받는 학교) 항목		예산 / 결산 (현지통화 기준)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b>합계</b>		<b>계</b>	<b>합계</b>		<b>계</b>

#### 부록4. 위기 기록 템플릿

• 리스크 관리- [여기에 프로젝트명 삽입]

리스크 식별		점수				리스크 대응		
리스크	리스크 분야	발생 가능성*	영향을 미치는 정도**	리스크 점수	리스크 등급	리스크 대응	리스크의 원인	리스크 당사자
[예시: 코로나19 감염사례 증가로 현지 교류학교가 강제로 폐쇄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활동 방식을 바꿔야 한다.]	공중 보건	5	5	25	낮음	교류 상대와 원격으로 작업할 새로운 방법 찾기	교류 상대	교사
[예시: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문제 때문에 여행이 금지되고 현장학습이 제한될 수 있다.]	공중 보건	6	6	36	중간	프로젝트 참가자가 현장 학습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모든 활동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원격 및 온라인 활동을 계획	현지 및 해외여행 금지/ 도시봉쇄	교사와 교류 상대
[예시: 다가올 선거 등으로 인해 방문, 파견을 받는 쪽 국가에서 소요가 예상된다. 사회불안, 시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 문제	5	6	30	중간	방문 취소/일정변경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적인 원격 및 온라인 활동을 계획	사회정치적 소요	교사와 교류 상대
[예시: 온라인 교류 시간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충분한 전자기기 사용 능력을 갖추지 못해 제대로 참가하지 못할 수 있다.]	전자 기기 관련	6	10	60	중간	학생들의 사전 준비를 위해 관련된 학습 실시	학생 선정	교사
[예시: 교류학교의 전자기기 설비 부족]	전자 기기 영역	6	8	48	높음	프로젝트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전자기기 시설 (기기, 소프트웨어, 인터넷) 사전 점검 및 확인	프로그램 시작	교류 상대
[예시: 교류 학교의 참가자 및 관계자들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할 수 있다.]	언어 숙련도	4	10	40	낮음	프로젝트 활동 기간 동안 영어가 유창한 교사 및 학생에게 통역을 요청, 또는 이러한 교사들이 도울 수 있는 관련 활동에서 동료에게 도움을 줌	교사 및 학생 선정	교사

**\*가능성**

- a. 높음 - (8 ≤ x ≤ 10)
- b. 어느 정도 높음 - (6 ≤ x < 8)
- c. 어느 정도 낮음 - (3 ≤ x < 6)
- d. 낮음 - (0 < x < 3)

**\*\*영향**

- a. 높음 -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침 (10-8)
- b. 중간 - 상당한 영향을 미침 (8-5)
- c. 낮음 - 미미한 영향을 미침 (5-1)



김지연  
서울대학교

## 2. 국제교류 자체 운영의 절차

### 초청/방문/온라인 교류 절차, 방법 및 유의사항

#### ① 초청/방문/온라인 교류 유관 기관 및 관계자 협의회

##### 가. 공통

국내/외 유관기관 협의회는 후속활동의 목적, 구체적 시행 절차 및 내용 등을 결정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후속활동은 소속 기관의 관리자 및 동료 교사, 학생회 등 구성원의 협조, 예산 및 행정절차, 교류 대상국의 협조 등에 따라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를 통해 상세 사항을 결정한다.

##### 나. 초청교류

학교장, 협력교사, 행정담당자들의 협조를 위해 초청 교류 전 준비사항과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운영 방안에는 초청 교류 인원, 기간, 프로그램, 협조 사항, 예산 등에 대해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

##### 다. 방문교류

교류대상국 및 교류대상 기관 간의 방문 일정, 인원, 방문 후 프로그램 및 예산 부담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대면 교류의 경우, 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더불어 초청 및 방문 체류 기간 동안의 안전 사항 등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교류대상국의 협조가 긴요하며, 협조 사항을 미리 명문화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참고1. 초청 및 방문 교류를 위한 필요사항]

##### ※교류 논의 절차

**(1단계)** 교원, 관리자, 학생회 등의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방문 교류에 관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확인한다.

**(2단계)** 교류 대상 학교에 방문에 관한 협약 의사 확인 및 교섭 절차(서신, 이메일 등) 확인 후 방문 교류 추진 계획안을 논의한다. 방문 추진 계획안에는 필수적으로 방문 인원, 기간, 프로그램, 예산, 현지 정세 및 안전 특이사항에 따른 협조사항 등을 포함한다.

**(3단계)** 교류 대상국은 소속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기록한다.

※ 교류를 위한 협약 의사 확인 메일에는 '학교명, 학교 홈페이지, 연락처, 학교소개'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기존에 교류 활동이 있는 기관 간에도 협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내 최신 정보를 공유한다. 메일은 교류대상국의 언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송부 한다.

※ 교류를 위한 협약 의사 확인 서신 샘플 예시<sup>1)</sup>

학교명		설립 구분	
학년		학급수	
학생 수	총 명	교직원 수	
홈페이지		담당교사	이름 e-mail
학교 주소			
학교 사진			
학교에서 운영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소개 (기존 교류 활동 내용도 포함)			
1.국제교류 관련 프로그램			
2.우수/특색 프로그램			
3.기타 학교 장점 등 강조하고 싶은 사항			
방문 교류희망 분야 또는 프로그램			
교류대상국 현지 정세 및 특이사항에 따른 협조 요청 사항			
예산 부담 사항			

##### ※ 교류 시 사전 고려 사항

- 교류 인원은 안전 관리 및 현지에서의 이동 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 간 교류 시에는 최대 10명~20명 내외가 일반적이며, 개별 교사 간 교류 활동 시에도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인원을 계획한다.
- 교류 시 예산은 학교 자체 예산, 외부기관 예산, 참가 학생 자비 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필요 예산 산출 및 계획할 수 있다.

##### ※ 교류를 위한 사전 협의내용 목록 예시<sup>2)</sup>

- 교류에서 가장 주요하게 진행할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 교류 대상 학교 수업에 참여 가능한가? (어떤 식으로 수업에 참여할 것인가?)
- 현지 문화 체험 프로그램 혹은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인원과 상세 내용 정보 교류)
- 공식 환영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일시, 장소, 협약식 진행 여부 등)
- 숙박, 교통 등 프로그램 참여시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인가?
- 교류 대상국 및 교류 대상 학교에 정세, 안전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가?



**라. 온라인 교류**

온라인 교류에 참여하는 인원, 일정,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의 방식, 플랫폼, 녹화 동의 여부, 자료 공개 범위 수준 등 온라인 활동에 대한 상세 운영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

다. 또한 온라인 교류 활동에 관한 기록과 공유 방식에 대해서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계획 시에는 상대국과의 시차를 고려하여, 운영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상대국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여 플랫폼을 다각화할 수 있다.

**[참고2. 온라인 교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양식]**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 Name, Nationality, Current address, Contact information, E-mail address  
 ※ Information retention Period: 1 year

\*Right to Disagree  
 You may disagree with the collection and use of above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f you disagree, you are not allowed to participate in our program as a participants.

I agree to collect and use my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lated law,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ate : , 2022

Full Name :	Signature :
-------------	-------------

1) 출처: 큰 세상을 만나다, 국제교류 매뉴얼 부록 p.2 서울시교육청(2020)  
 2) 2019 국제교류 매뉴얼 p.25 참고 (부산교육청)

**② 초청/방문/온라인 교류 대상 기관 및 교류 대상자 간 업무협약서 체결**

**가. 공통**

• 후속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교류 대상 기관은 1개 기관과의 양자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필요시 초청/방문/온라인 교류 활동 참여자들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교류 대상 기관 간에는 기관별 명문화된 업무협약서 등을 바탕으로, 초청/방문/온라인 교류 과정에 대해 양기관의 역할, 협약내용, 유효기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참고3. 교류 대상 기관 간 업무협약서 양식<sup>3)</sup>]**

**(예시1) 협력기관 간 업무협약서**

(교류 대상 기관 혹은 교류 교사명)과/와 (교류 대상 기관 혹은 교류 교사명)은/는(이하 ‘양 기관’으로 약칭한다) 양 국가 교류와 상호 유대관계 강화를 위하여 (국가+교류 대상 기관명)에 교류 활동을 추진하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 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류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있다.

제 2조 (협약 내용) 본 협약에서 상호교류 활동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① 교류 활동에 필요한 인원, 장소, 프로그램 운영 등을 협의 후 계획안을 마련한다.
- ② 기타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시스템을 지원한다.
- ③ 안전한 현지 체류를 위한 ooo(국가) 내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제 3조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당사자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교류 운영 기간 동안이며, 협약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3년 연장된다.

제 4조 (불가항력) 국가 돌발사건, 전쟁, 정부의 금지령 또는 기타 본 협약의 규제 범위를 초과하여 협약 당사자가 계속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협약 당사자는 반드시 협약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항목을 연장 또는 취소해야 하며 협약 상대방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 5조 (기타 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6조 (협의 언어) 협약서는 한국어와 (현지어)(으)로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두 언어의 협약서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년    월    일

(교류 대상기관 혹은 교류 교사명)	(방문 및 초청 기관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3) 출처: 큰 세상을 만나다, 국제교류 매뉴얼 p.12,14. 서울시교육청(2020)

**(예시2) OO국 OO학교와 XX국 XX학교간 파트너십에 관한 협약서**

OO국 OO학교와 XX국 XX학교는 양교의 발전에 차지하는 교육의 중요성과 양교간의 교육교류 협력을 통하여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합의한다.

**1. 양교는 아래 2가지 사항을 포함하는 상호교류계획을 시행하기로 한다.**

- 가. 교육, 문화, 친선 목적의 학생과 교사의 상호교류, 교과 및 교육 과정 교류
- 나. 교육프로그램, 교수-학습 자료의 교류: 교육프로그램과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새로운 교수 방법에 관한 경험의 교류를 목적으로 상호 간 교육회의,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참가

**2. 기본 협력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가. 양교는 교류계획에 따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 나. 교류의 조건(날짜 및 기간)은 사전협의를 구체적 합의로 결정한다.
- 다. 본 협약서의 해석이나 이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차이점은 양교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본 협약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며 각 협약서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양교 중 어느 한편의 요구에 따라 폐기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상대방에게 6개월 전에 본 협약서의 폐기를 알려야 한다. 본 협약서는 서명 일로부터 유효하다.

년 월 일

OO국 OO학교	XX국 XX 학교
교장	교장
서명	서명

※ 협약서 체결 이후 절차 예시  
협약서를 바탕으로 교류 활동 추진 시 협약식을 추진할 수 있다. 협약식은 협약서 교환, 양국 학교장 인사, 양국 언어로 협약서 낭독,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한다.

업무협약서는 교류 활동의 상징적이고 우호적 측면에서 작성 및 교환하는 절차이며, 별도로 교류 활동 계획서를 교류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업무협약서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문서는 공식적인 형식과 절차를 준수

해야 한다. 교류 대상국 간의 공식 언어, 영어 등 협약체결 언어를 결정하고 번역에 주의한다.  
서명은 교류 활동을 제안한 기관에서 원본 2부에 서명한 후에 교류 대상 기관에 발송하여 교환한다.

**③ 대면 및 비대면 교류 프로그램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가. (대면/비대면) 협력 기관 선정 및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교류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교류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범위를 결정한다. 참여자의 경력,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참고4. 초청/방문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 필요사항]**

- ※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 결정 (교원/ 학생/ 학교장 등 전체 구성원)
  -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안내문 배부
  - 비대면 프로그램의 경우 대면 프로그램에 비해 동시에 많은 참여자들이 함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나,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자체 기준 수립 후 참여자 결정이 필요

※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 결정을 위한 안내문 예시<sup>4)</sup>

**OO국 OO학교와의 온라인 교류 참여 희망자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OO국 OO학교와 국제교류 활동을 위해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성원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OO. OO 까지 OO부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일정: 2022.00.00-00.00 00시
- 2. 온라인 플랫폼: ZOOM
- 3. 참여 인원 : 00명
- 4. 세부내용

가. 프로그램 내용, 인원, 초청 및 방문 교류 내용은 교류 대상국 및 교류 대상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국가	프로그램 내용	일정	시간
OO	OO학교와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OO.00~00.00	GMT 기준

나. 교류 활동에 참여한 구성원에게는 활동 종료 후 활동 인증서를 발급함.

**5. 선발기준**

- 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주제 관심도 및 전문성
- 나. 영어 능력 혹은 해당 국어 언어 사용 여부

4) 2019 부산교육청 국제교류 매뉴얼 부록III-4 국제교류희망자 조사 가정통신문 참고

**<OO국 OO학교와의 온라인 교류 참가신청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빈칸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OO월 OO일까지 OO부서에 제출

(학생용)

학년 반		보호자 서명	(인)
이름		보호자 연락처	
학생 연락처		어학능력	

유관 프로그램 참여 경험

(교원용)

이름		서명	
소속 부서 및 반		어학능력	

유관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전문성

**나. (대면/비대면) 교류 프로그램 계획 수립**

-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참여자들의 경력, 전문분야, 교류 수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초청 프로그램을 최종 결정한다.
- 프로그램 일정, 장소, 방법, 지원 사항 등 세부사항을 최종 계획한다.
- 대면(초청 및 방문)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소속 기관 및 교류 대상 협력 기관의 학교장, 동료 교사, 행정부서 등의 사전 협조를 통해 지원 가능 범위를 확인하며, 예산에 대한 사전 계획을 필수적으로 논의한다.
-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교류 대상국과의 시간차를 고려하여 교류 일정, 교류 운영 플랫폼, 기록 방법 등 교류 과정을 최종 계획한다.

- 교류 과정을 계획할 때는 협력 기관과의 사전 협조를 통해 지원 가능 범위를 확인하며, 예산에 대한 사전 계획을 필수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구축, 유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가 사전 계획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류대상국을 위한 유료 프로그램 지원 여부도 논의가 필요하다.
- 가능할 경우, 온-오프라인 예비조사를 통해 교류 과정을 계획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 시간을 고려하여 교류 프로그램의 일정을 계획해야 한다.

**[참고5. 초청/방문 교류 프로그램 계획시 협의사항]**

- 1. 교류 추진 환경 분석**
  - 교류 추진 배경
  - 교류대상국 관련 정책
  - 유사 교류 프로그램 추진 여부
  - 교류대상국 정세 등
- 2. 교류 수요 확인**
  - 교류 목표, 교육과정별 주제
  - 교류 참여자의 자격요건 (경력, 전문분야, 소속기관, 교류 참여 수요 등)
  - 교류생 선발 절차 협의
- 3. 교류 프로그램 세부 준비**
  - 교류 일정, 교류 장소, 예산 분담, 준비사항 확인
  - 참여 인력 (관리자, 담당자, 가이드, 통역사, 보조인력 등)
  - 교류 과정 중 안전 관리
  - 교류 과정 종료 후 환류 계획

**[참고6. 초청/방문 교류 프로그램 기본 계획서 작성 시 필요사항]**

- ① 배경 및 경과 (협의과정 기술)
- ② 목적 (교류 프로그램의 목적 (ex. 글로벌 역량강화 등))
- ③ 일정
- ④ 프로그램 내용
- ⑤ 참여 인원 (교류 프로그램 직접 참여자, 관리자, 프로그램 지원부서 등으로 구분)
- ⑥ 초청/방문 프로그램 참여자 명단
- ⑦ 현지 숙소 및 교통편
- ⑧ 비용 부담 (예산)
- ⑨ 기타 참고 사항기록

**다. (대면) 교류 프로그램 사전 준비**

- 대면(초청/방문)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실제 초청/방문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한다.

[참고7. 초청/방문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 필요사항]

※ 교류 프로그램 직접 참여자 결정 (교원/ 학생/ 학교장 등 전체 구성원)

- 초청/방문 교류 프로그램 안내문 배부
- 지원자가 많은 경우 자체 기준 수립 후 참여자 결정

※ 교류 프로그램 관리자 결정 (참여 교원/ 학교장 등)

- 교류 프로그램 참여교원은 학교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결정
- 교사 및 학교장 등 참여교원은 공무상 국외여행 허가신청 필수  
(해외 출장 출발일 30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며, 초청/방문 교류를 위한 입출국 절차 지원을 위해 필요시 교류 대상국에도 관련 사항을 공유)

※ 초청/방문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 결정을 위한 안내문 예시<sup>5)</sup>

○○○○학년도 국제 교류 참여 희망자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세계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국제교류 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성원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 까지 ○○부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참여 인원: 10~20명

2. 세부내용

가. 프로그램 내용, 인원, 초청 및 방문 교류 내용은 교류 대상국 및 교류 대상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국가	프로그램 내용	일정	지원 내용
○○	○○학교와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나. 참여자에게는 교류 대상국 및 본교 학교 지원금 (     만원)이 제공되며, 개인 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다. 교류 활동에 참여한 구성원에게는 활동 종료 후 활동 인증서를 발급함.

3. 선발기준

- 가. 본교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여도
- 나. 영어 능력 혹은 해당 국어 언어 사용여부
- 다. 문화공연 특기 유, 무 등

<○○○○학년도 국제교류 참가신청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빈칸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월 ○○일까지 ○○부서에 제출

(학생용)

학년 반		보호자 서명	(인)
이름		보호자 연락처	
학생 연락처		특기	
어학능력			

(교원용)

이름		서명	
소속 부서 및 반		특기	
어학능력			

- 참여자의 항공권을 예약 후 입출국일 시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최종 발권한다. 예약서와 발권 내역, 일정, 명단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며, 초청장 및 가이드북을 준비하여 안내한다.
- 가이드북에는 교류대상국 소개, 교류 대상 기관 소개, 인솔자 연락처, 비상 연락처 (교류 대상 기관 담당자 연락처 및 공관 연락처), 교류대상국 출입국 시 유의 사항, 해외여행 시 유의사항 (환전, 귀중 품 관리, 예절 및 안전 등)을 명시한다.
- 자연재해, 범죄 사항, 질병 및 상해 등의 특이사항 발생을 고려하여, 여행자 보험을 사전 가입하며, 특약사항을 상세 확인한다.

5) 2019 부산교육청 국제교류 매뉴얼 부록III-4 국제교류희망자 조사 가정통신문 참고

[참고8. 초청/방문 교류 프로그램 초청장 예시]<sup>6)</sup>

School logo  
 (Month) (Date) (Year)  
 (School name)  
 (School address)

**Subject: Invitation to [School Name] [Country Name]**

Dear Principal (Name),  
 To better understand each other's cultures and promote cooperative learning exchange, we extend a formal invitation to you and your school to participate in a cultural exchange. Our aim is to establish a long-lasting relationship in which students and teachers from our schools can have effective communication and build friendships.

Date: (MM/DD/YYYY to MM/DD/YYYY)  
 Participants: Principal, head teach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student representatives (up to five)

Cost  
 • Expense within Korea: paid by (the host)  
 • Airfare and other costs: paid by (the visitor)

Sincerely,  
 (School Name) (Name of principal)  
 Principal's signature

<Names of Participants>

No.	Title	Name	Name (English)	Gender	Passport No.
1					

- 초청 및 방문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의 입출국 지원을 위해 차량 혹은 교통정보를 안내한다.
- 교류 프로그램 시작 전일부터 최대 프로그램 시작 익일까지는 참여자의 입출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교류 대상국에서 한국으로 입국 지원 절차를 위해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종합안

내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이사항이 발생 시에는 협력 기관에 고지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한국에서 교류대상국으로의 출국 지원 절차를 위해서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참고하여 비자 발급 절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6) 출처: 2019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매뉴얼 부록III-3 초청장

[참고9. (교류대상국→한국)초청자 입국 관리를 위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보 안내]

**1.전화번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해외에서 이용 시+82-2-1345)

**2.홈페이지**  
<http://www.immigration.go.kr>

**3.지원사항**

-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출입국민원 상담 및 생활편의 안내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 통역서비스 지원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3자 통역서비스 지원

**4. 상담시간**  
 평일 09:00~22:00 (야간 18:00 이후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 운영)

**5.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사항**

1번 : 출입국·외국인 관서 위치, 사무소별 관할구역 및 근무시간 안내  
 2번 : 사증발급인정 신청 결과 조회  
 3번 : 외국인퇴직신고 및 방문취업동포 근무처 팩스신고  
 4번 : 마을변호사 관련 문의  
 0번 : 상담원 연결

**6. 다국어 상담**  
 (국번없이)1345 연결 후 ARS 안내에 따라 원하는 언어의 번호를 누른 뒤  
 \*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언어로 상담 진행

[참고10. (한국→교류대상국) 방문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보]

**1.전화번호**  
 영사콜센터 (국내: 02-3210-0404/ 해외: +82-2-3210-0404)

**2.홈페이지**  
<https://www.0404.go.kr/dev/main.mofa>

**3. 어플리케이션**  
 앱스토어에서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활용

**4.지원정보**

- 여행경보제도, 위기상황 별 대처 메뉴얼, 동행, 대사관&총영사관 연락처 수록
- 개인 비자취득(사증면제제도 정보 수록)

**라. (대면) 교류대상국 도착 시 지원**

초청 및 방문자의 안전 관리에 유의하며, 필요시 통역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안전 관리를 위해 초청 및 방문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강의장, 숙소 등의 시설을 확인하고 강의장에서 숙소까지의 동

선 관리 및 교통 시설을 지원한다. 숙소 배정 시에는 문화, 종교, 성별 및 수요 사항을 고려하여 배정하며, 안전 관리 등을 위해 동행 인원 출입 제한 등을 검토 후에 초청자에게 사전 안내한다.

**마. (대면/비대면) 교류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교류 활동의 목적, 교류 대상 학교에 대한 정보, 교류 활동의 세부 일정,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대면 교류의 경우, 초청 및 방문 교류 프로그램 진행 중 필요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자연재해, 범죄 사항, 질병 및 상해 등 위급 시 긴급 연락처를 안내한다. 코로나 예방 및 관리를 포함한 안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비대면 교류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확인하고, 교육자료 공개, 공유, 활용 방안 등에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사항을 안내한다.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초상권을 위해 스크린을 임의 캡처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함을 안내한다.

교류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특정 종교, 인종, 국가 등을 향한 혐오 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 사항을 안내한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참여자 간의 교류 활동 시 현지 문화, 자국어 자국문화 등 상호 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기초 현지 언어 교육 및 주요 생활정보 안내를 통해 현

지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바. (대면/비대면) 교류 프로그램 운영**

교류 프로그램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사전 섭외하거나, 교류 대상 학교의 참여 교사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작하거나, 전문 강사를 통해 교재를 검토한다. 제작된 교재 및 자료에는 상호 문화 존중, 성 인지적 관점, 종교, 자료의 신뢰성 등을 사전 확인한다. 교류 자료는 필요 시 영어, 현지어 번역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계획을 세운다.

대면 교류 프로그램에는 현지 지역문화 체험, 교육봉사 및 홈스테이 등의 활동을 추가할 수 있다. 교류 대상국의 현지 지역 문화체험을 위해서 사전 일정 점검 및 방문 협의가 필요하다.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시혜적인 프로그램을 지양하며, 상대 국가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봉사 소양 교육 운영이 필요하다.

비대면(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양 기관의 담당자 최소 1인 이상이 꼭 참석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한다. 참여자들의 출석 관리, 참여도, 지적재산권, 초상권 위반사항,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을 확인한다.

**[참고11.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운영 예시]**

※ 국제 공동수업의 예

**1) 일정기간(방학) 동안 하나의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 후 상호 교류**

주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1회기	기후 위기 관련 수업 (양국 교사 Co teaching)
2회기	기후 위기가 우리가 사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하여 발표하기
3회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양국가의 학생이 공동으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실천과정을 기록하기
4회기	결과 공유하기

**2) 월 1회 정도 꾸준히 교류하면서 소통**

주제	상호문화의 이해
1회기	양 국가 소개 (위치, 자연환경 등)
2회기	양 국가 소개 (언어, 인구, 도시 등)
3회기	전통 놀이 배워보기 (한국)
4회기	전통 놀이 배워보기 (교류 국가)
5회기	학생들의 문화 소개하기 (한국)
6회기	학생들의 문화 소개하기 (교류 국가)
7회기	우리들의 일상생활 Vlog로 제작해서 소개하기
8회기	우리가 함께 만드는 세계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우리의 약속 만들기)

**사. (대면/비대면) 모니터링 및 성과 공유**

- 교류 프로그램에서 생산되는 활동 결과 보고서, 참여자들의 만족도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록화할 수 있으며, 향후 운영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 활동 결과 보고서에는 교류 프로그램 별 모니터링 결과, 중간성과공유회, 최종 성과공유회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모니터링:** 각 프로그램별 진행 일정, 절차, 참여자, 주요 결과 기록

**성과공유회:** 교류 활동 내용 발표, 성과 및 소감 공유

**아. (대면/비대면) 교류 프로그램 종료 후 지속적 관리**

교류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운영 결과 보고서에는 각 교육 과정별 교수자, 교육내용, 운영 방법, 주요 결과 등을 작성한다.

[참고12. 초청/방문 교류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시 필요사항]

1. 배경 및 경과 (협약과정 기술)
2. 목적 (교류 프로그램의 목적 (ex. 글로벌 역량강화 등))
3. 일정
4. 실제 추진 프로그램 내용
5. 참여 인원 (교류 프로그램 직접 참여자, 관리자, 프로그램 지원부서 등으로 구분)
6.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 명단 (활동인증서 발급을 위해 이수자명단, 참여자명단을 구분하여 작성)
7. 프로그램 운영 시 특이사항
8. 예산 계획 대비 실제 소요 예산
9. 녹화 자료 기록물 목록 및 향후 활용 계획 (폐기/보존/공유 등)
10. 기타 참고 사항기록

- 교류 프로그램 과정에 투입된 예산을 정산한다. 교류 프로그램 계획에 기반하여 산출한 예산 대비 정산 자료를 준비하고, 항목별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참여 소감문 등을 취합하며, 교류 대상국 대상 감사장을 발송할 수 있다. 운영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를 기록화한다.

[참고13. 초청/방문 교류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 대상 안내 서류]

- ※ 교류 프로그램 직접 참여자 제출 서류 (교원/ 학생 등 전체 참여자)
  - 초청/방문 교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체험학습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
  - 우수 참여 소감문을 바탕으로 시상식을 진행할 수 있음.
- ※ 교류 프로그램 관리자 제출 서류 (참여 교원/ 학교장 등)
  - 교사 및 학교장 등은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작성 후 제출

※ 감사장(Letter of Appreciation) 서식 예시<sup>7)</sup>

School logo  
School address  
Website  
E-mail

**Letter of Appreciation**

(Date) (Month) (Year)  
Dear Principal [Name]

Thank you for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visit [School name] Middle School. We learned a great deal about public education in [Country name] through the exchange programs.  
We greatly appreciate the passion and high competence of your kind teachers and found your programs well-prepared and carefully managed.  
Sharing our common challenges in education at this time was a great endeavor. Thank you very much again for allowing us to visit your school and introducing your educational activities to our teachers and students.

Sincerely yours,

signature \_\_\_\_\_  
[Name]  
Principal of [School Name]

7) 큰 세상을 만나다, 국제교류 매뉴얼 부록 p.27 (2020 서울시교육청)

## 위기 상황 시 매뉴얼

### ① 자연재해

#### 가. 사전조치

• 초청 및 방문 교류 시 현지에서의 자연 재해, 분쟁, 테러 등 위험 재난 예보 사항에 대해서 촉각을 기울이며, 관련 예보 시에는 즉각 소속기관과 교류 대상 기관으로 통보한다. 소속기관과 교류 대상 기관은 교육 및 파견 기관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 사전 안전 조치를 실시한다.

#### 나. 재난 사항 발생

• 참여자는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 등 초기 대응 조치 실시 후 소속기관과 교류 대상 기관에 지원을 요청한다. 소속기관과 교류 대상 기관은 현장 사항을 즉각 파악하여, 교류 지속 불가 사항 시 교류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 장소에서의 대기, 인접국 및 복귀 등의 의사결정 후 즉각 입국 지원을 실시한다.

#### 다. 사후조치

• 참여자는 재난 상황 종료 후 피해 사항 및 안전 현황을 관리기관에 통보하고, 소속기관과 교류 대상 기관은 교류 재개 필요성 및 일정, 향후 대책 방안은 조정한다. 피해 사항이 없으며, 안전 환경이 확인되는 경우 교류 프로그램을 재개하며, 교류 프로그램 재개가 불가능한 경우, 교류 일정 조정 혹은 교류 중단을 결정한다.

### ② 범죄 사항

#### 가. 사전조치

• 참여자는 교류 프로그램 기간 중 품위 유지 의무 및 문제 발생 시 신고 의무를 준수한다. 인근 이용 가능한 경찰서 등 시설 정보를 확인하며, 위급 시 즉시 관리기관에 통보한다.

#### 나. 범죄 사항 발생

• 참여자는 범죄 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 사항을 소속기관과 교류 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교류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교류를 종료하고 이후 대응 방안을 조율한다. 소속기관과 교류 대상 기관은 범죄 피해 사항 시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희망 시 현지 경찰서 등에 신고 및 연계 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

• 참여자가 현지법을 위반할 시에는 교류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중지하며, 국내 입국 혹은 중대 범죄시에는 현지법을 준수하여 관한 경찰서에 인계 조치를 할 수 있다.

#### 다. 사후조치

• 참여자는 범죄 사항에 따라 교류 프로그램 참여가 중단되는 경우 현지 상황에 따라 즉시 입국을 추진 할 수 있다.

### ③ 상해 및 질병

#### 가. 사전조치

• 상해 및 질병 등의 위급 상황이 예측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관리기관에 통보한다.

#### 나. 사항 발생

• 참여자는 관련 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 사항을 소속기관과 교류 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인근 병원에 내방하여 조치를 취한다. 교류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이후 대응방안을 조율한다.

#### 다. 사후조치

• 소속기관과 교류 대상 기관은 참여자와 협의 후 보험절차를 진행하며, 위급 시 가족들에게 통보한다.

## 보고

### 가. 활동 계획서

• 교류 사업의 주요 계획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표기한다.  
• 사업명, 기간, 예산 등을 포함하며 추진 계획을 상세히 기술한다.  
• 세부 교류 운영 계획에는 과정명, 기간, 장소, 참여대상, 운영 방법 등을 기술한다.

### 나. 결과보고서

• 활동 계획서 대비, 실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과정명, 일정, 교류 방법, 결과 등을 기술한다.  
• 교류 기간 중 대내외 홍보 활동을 한 경우 관련 내용을 작성한다.

### [참고13. 교류 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 양식 예시]

초청/방문/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계획 및 결과보고 예시

#### 가. 교류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국문)  
(영문)

교류프로그램기간: 2022.00.00(요일) - 2022.00.00(요일) / 00일간(주말포함)

진행 방법 및 장소 (대면/ 비대면)

• 교육장소: (대면) (온라인 링크)

참여자

• 교류 프로그램 참여인원: 00명

• 참여기관명: (소속기관명) (교류대상기관명)

• 참여자 목록



**나. 프로그램**

초청/방문 교류

일정	교류프로그램 상세내용	진행방법 및 장소	준비사항

온라인 교류

일정	교류프로그램 상세내용	운영계획			강의 언어	자막 언어
		강연 자료	영상 자료	학습 자료		

**다. 결과보고**

초청/방문 교류

일정	교류프로그램 상세내용	계획 대비 추진 결과	증빙 자료

온라인 교류

강의명	세부추진결과	운영계획			강의 언어	자막 언어
		강연 자료	영상 자료	학습 자료		

**라. 홍보실적**

홍보방법	홍보일	주요 내용	증빙 자료

**마. 프로그램 계획(운영)시 특이사항**

**바. 예산 및 정산**

**사. 기타 참고 사항기록**

**정산**

**가. 교류 프로그램 경비 편성**

- 교류 프로그램 계획서 및 예산 산출 비용은 초청/방문/온라인 교류를 요청한 기관에서 1차 검토 후에 교류 대상 기관에 예산 분담사항을 조정한다. 이후 최종 확정된 활동계획서와 예산 비용을 바탕으로 약정을 체결한다.
- 교류 프로그램 경비는 활동 계획서에 기반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사전 준비, 교류 진행, 사후 관리 등을 포함하여 부대 비용을 편성한다.

**나. 교류 프로그램 경비 집행**

- 교류 경비는 항목별 예산 편성 계획 한도액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 현지화 사용 시에는 고시 환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환차손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 교류 프로그램 경비는 활동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활동 계획의 세부 내용 변경 혹은 항목별 예산 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및 교류 대상 기관에 사전 논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교류프로그램 경비 정산을 위해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한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을 인정한다. 다만, 교류대상국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간이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다.

**다. 교류 경비 정산**

- 교류 프로그램 종료 후 1개월 내에 활동 결과보고서 및 활동경비 정산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한다. 교류 대상 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는 교류 대상 기관에도 정산 내용을 공유한다.
- 활동경비 정산서에는 정산세부내역서 1부, 증빙서류 1부 일체를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보완 요청 시 제출이 필요하다.
- 활동경비 정산서는 예산 편성 계획 항목별로 정리하며, 같은 항목 내에서는 집행일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한다.

참고문헌

[발간자료]

- 부산교육청(2019) 국제교류 매뉴얼. 부산: 부산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2017) 큰 세상을 만나다, 국제교류 매뉴얼 본문.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협력담당관.
-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큰 세상을 만나다, 국제교류 매뉴얼 본문.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협력담당관.
-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큰 세상을 만나다, 국제교류 매뉴얼 부록.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협력담당관.
- 한국국제협력단(2022)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 (온라인연수): CIAT 프로그램.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사업실.

[웹사이트]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http://www.immigration.go.kr>
- 서울특별시교육청: <https://www.sen.go.kr/main/services/index/index.action>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정보: <https://www.0404.go.kr/dev/main.mofa>
- 행정안전부 국제협력지원: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36&nttd=34450](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36&nttd=34450)
-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사업: [https://www.koica.go.kr/koica\\_kr/943/subview.do](https://www.koica.go.kr/koica_kr/943/subview.do)

## IV. 붙임

1.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소개
2.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소개
3. 후속교류 시 참고 프로그램

## 1.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소개

### (1) 사업 개요

2022년에 10주년을 맞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 주관하며, 교류 대상국 교육부가 현지 협력주체가 되어 함께하는 한국-아태지역 국가 양자 간 국제교육교류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몽골과 필리핀 두 나라를 대상으로 시작한 본 교육교류 사업은 지난 10년간 성장을 거듭하여 2022년 현재는 아태지역 7개국(말레이시아, 몽골,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과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 이후에는 온라인 교육교류를 도입, 학교 간 교류를 진행해왔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양국 교사는 각 교류국의 현지 학교에 3~4개월 간 배치되어 직접 교과 수업을 실시하고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배치학교의 일원이 되어 활동합니다. 7개 교류대상국가에 파견되는 한국 교사들과 한국으로 초청되어 온 7개 교류대상국 교사들은 모두 각국에서 선별된 역량 있는 교사들로서, 파견된 학교 현장에서 본인의 전공교과, 자국어 및 문화 이해 수업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생들과 동료교사와 교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지 활동과 교류는 파견·초청교사는 물론, 배치된 학교의 동료 교사와 학생들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향상시키고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 교육활동경험의 전반적인 공유와 교수학습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육교류를 통한 다문화감수성 및 글로벌 소통 능력 진작”입니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교육현장의 다문화교육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중·고 재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2009년 전체 학생의 0.35%에서 2022년 3.0%로 그 비율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교사 교육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참가교사들에게 다양한 연수와 워크숍, 현지 학교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육활동 및 상호간 교류, 프로젝트 수행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수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 교류협력 모델 구축”입니다. 교육교류사업은 기존 ODA 사업 방식과 차별화된 상호간 ‘우수교원’ 인적자원 교류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교육 ODA 분야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내적으로는 우리 교육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과 글로벌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2009년 OECD DAC 가입 이후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국제적 기대와 책임이 커지게 된 한국이 상호 호혜적 교육교류 모델을 통해 대상국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최근 한국과의 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호이해와 우애 증진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다른 민간외교보다 그 파급효

과는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교육 2030(Education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각국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달성하여야 할 전 지구적 목표를 설정한 바, 본 사업은 특히 세계시민교육의 증진(교육목표 4.7)과 국제협력을 통한 교사의 질 향상(교육목표 4.c)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관련 웹사이트

NETS: <https://nets.unescoapceiu.org/>

NETS(Network for Teachers and Students)는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서 얻은 지식들과 경험들을 공유하고 교육교류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아태교육원에서 개발하였으며, 교사들, 학생들, 학교들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NETS는 다양한 온라인 도구들을 통해서 회원들이 국경을 넘어 교육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이해교육(EIU)과 세계시민교육(GCED)에 대한 학습과 실천을 촉진하며, 협력적인 파트너십과 상호 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교사 및 학생과의 네트워킹을 들 수 있습니다. 즉, NETS는 유사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교사와 학생이 국경을 넘어 상호적으로 교류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NETS에서 교사와 학생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GCED를 협력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APTE 프로그램 참가자 및 동문 지원입니다. NETS는 APTE 프로그램의 전, 중, 후에 온라인 강의들, 후속활동들, 이외에 축적된 APTE의 자료들을 통해 광범위한 자료들을 갖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APTE 참가자들을 가장 최선으로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자료들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NETS는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GCED의 다양한 온라인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더 나은 GCED의 학습과 실천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APTE의 모범 사례들, GCED 관련 강의, 책, 뉴스 및 기사와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NETS는 교실 및 학교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GCED를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 2.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소개

### (1) 기관 개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함께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증진·발전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으로 2000년에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평화의 문화를 향하여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증진한다”는 사명 아래,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세계시민교육을 확산·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2년에 설립 22주년을 맞은 아태교육원은 초기에 국제이해교육(EIU: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증진을 주요 과제로 삼고 발전을 거듭해 오다, 2012년부터는 세계시민교육(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에 활동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창한 ‘세계교육 우선 구상(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에서 표방한 교육 목표로, 2015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과 같은 해 9월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통해 글로벌 의제화되었습니다. 아태교육원은 이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세계시민교육의 전문 기관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2) GCED 관련 웹사이트

GCED 온라인캠퍼스: <https://www.gcedonlinecampus.org/>

GCED 온라인 캠퍼스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학습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교육자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강좌, 전문가 특강 시리즈, 세계시민교육 실천사례 및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합니다. 모든 강좌와 콘텐츠는 무료이며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와 교실, 지역 공동체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에게 유용한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GCED클리어링하우스: <https://www.gcedclearinghouse.org/>

세계시민교육 클리어링하우스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유네스코 본부와 아태교육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세계시민교육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세계시민교육 클리어링하우스에서는 전세계에서 수집한 정책자료, 모범 사례, 교수학습자료, 기사와 논문 및 기타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다국어 자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 3. 후속교류 시 참고 프로그램

### 1) 재외교육기관포털 (Overseas Koreans Education Portal)

정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재외국민들에게 재외교육기관을 통해 국내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포털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교육기관의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재외교육 구성원 간 필요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서로가 협력적으로 교육력을 제고해 가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해당 포털의 '재외채용정보' 게시판을 통해 재외교육기관의 각종 과목을 아우르는 초빙교사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okeis.moe.go.kr/root/index.do>

### 2) 국제교사교류 프로그램 (공익재단법인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센터)

공익재단법인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센터(ACCU: 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는 1971년 일본 정부와 출판계를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ACCU는 설립 이래 일본을 거점으로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유네스코 회원국, 각국 정부 교육관계기관, 산업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교육협력, 인재육성, 문화교류 및 문화협력 등 현지의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활동을 다수 추진해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익재단법인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센터의 국제교사교류 프로그램은 현재 일본과 한국, 태국, 중국, 인도 간의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accu.or.jp/en/>

### 3) iEARN - 한국

1998년 설립된 iEARN은 통신 기술을 통해 전 세계의 학급을 연결하도록 돕는 비영리기구로, 140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30,000개 이상의 학교와 청소년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EARN의 프로젝트는 각 학급이 일정 및 상황에 맞도록 설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젝트에 선정된 교사 및 학급은 온라인 포럼에 참여해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급과 함께 활

동할 수 있습니다. iEARN의 모든 프로젝트는 "이 활동이 어떻게 지구에서 보다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참여 교사 및 학생들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역시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 홈페이지: <https://iearn.org/country/iearn-south-korea>

국제 홈페이지: <https://iearn.org/>

### 4) 교실을 위한 AFS 이펙트플러스 (AFS Effect+ for the Classroom)

교실을 위한 AFS 이펙트플러스(AFS Effect+ for the Classroom)은 미국 비영리 국제기구인 AFS Intercultural Programs의 연 단위 장학 프로그램으로,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UN SDGs를 주제로 하는 사회 영향력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를 전 세계와 공유하는 온라인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https://afs.org/effect-plus/2022-2023/>

### 5) 선생님을 위한 글로벌 협동수업 가이드

#### (Teachers' Guide to Global Collaboration)

선생님을 위한 글로벌 협동수업 가이드는 Longview Foundation과 iEARN-USA가 제작한 사용자 주도 리소스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를 통해 선생님들은 전 세계의 다른 학급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관련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lobaledguide.org/>

### 6) ASEF Classroom Network (ASEF ClassNet)

ASEF(아시아 유럽 재단)은 아이디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를 통해 아시아 - 유럽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여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간(Intergovernmental) 비영리 조직입니다. 교육은 ASEF의 주요한 업무 범위 중 하나로서, ASEF에서는 고등교육 및 교육 정책, 중등학교 교육, 청년 등의 테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ClassNet은 아시아와 유럽 전역의 중등학교, 직업 학교 및 고등학교 소속의 교사 및 학생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입니다. ClassNet은 교사 간 학습을 장려해 교사의 교육역량 및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교육-지역 간 교사교류 등을 제공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목표는 정보통신기술을 교육에 활용하여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ASEF 홈페이지: <https://asef.org/> ClassNet 홈페이지: <https://classnet.asef.org/>

### 7) 커넥팅 클래스룸(Connecting Classrooms through Global Learning)

영국문화교육원의 커넥팅 클래스룸은 학교의 학습, 지식 공유 및 국제 협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영국 및 기타 국가와 협력하여 여러 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들에게 온-오프라인 강좌를 제공해 세계시민교육에 도움이 될 국제적인 가치들을 숙지하고 이를 수업 속으로 가져오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강의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자료 및 관련 지식을 사용해 교류 대상 학교와 함께 수업을 진행할 것을 장려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류 대상 학교 찾기, 프로젝트 계획 세우기 등을 지원합니다.

<https://wales.britishcouncil.org/en/connecting-classrooms-through-global-learning>

### 8) 온라인 교육교류 이벤트(Education Exchange digital events)

영국문화원의 온라인 교육교류 이벤트는 전 세계의 교육자 및 관련 실무자들이 모여 기후 교육, 여성 교육 등 교육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교육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무료 패널 웨비나(온라인 컨퍼런스)입니다. 패널은 교사, 교장, 교수 및 교육 분야 연구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며, 방글라데시, 브라질, 크로아티아, 에티오피아, 아일랜드, 몰도바, 모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페인, 레바논, 요르단, 인도, 미국 등 100여 개 국가 출신 교사들이 웨비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https://www.britishcouncil.org/education/schools/education-exchange-digital-events>

### 9) E2: 교육교류 (E2: Education Exchange)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최하는 E2 교육교류는 교수학습방법론과 학생들의 성취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며, 다양한 연사들의 강의를 제공하고 다른 교육자 및 학교 관련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참가를 위해서는 Microsoft Learn Educator Center에 등록된 뒤 최소 두 개의 교수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https://educationblog.microsoft.com/en-us/2022/03/announcing-e2-education-exchange-moving-forward-together>

### 10) 글로벌 교육 트레이닝 파트너 프로그램 (Education Global Training Partners)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트레이닝 파트너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교육자 및 유관 분야 종사자를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료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를 글로벌 교육 트레이닝 파트너로 활동하게 하여 STEM 등 각종 교육공학 및 미래지향적 교육 관련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https://www.microsoft.com/en-us/education/training-and-events/global-training-partners>

### 11)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UNESCO Associated Schools Network, UNESCO ASPnet)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UNESCO Associated Schools Network, 약칭 UNESCO ASPnet)는 교육·과학·문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해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전문기구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전 세계 학교들의 네트워크입니다. 프로그램 참여 학교인 유네스코학교(UNESCO Associated Schools)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평화와 인권, 문화간 이해 등 유네스코 이념과 정신을 교육 현장에서 실천함으로써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홈페이지: <https://asp.unesco.or.kr/>

국제 홈페이지: <https://www.unesco.org/en/education/aspnet>

